

영어권문화연구

16권 1호, 2023년 4월

영어권문화연구소

Contents

Ⅰ 김 경 옥 Ⅰ

“별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와
공동체 회복 5

Ⅰ 김 대 중 Ⅰ

캐서린 앤 포터의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 속 전염병과 전쟁 연구 31

Ⅰ 성 승 은 Ⅰ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53

Ⅰ 이 상 빈 Ⅰ

신라 향가 번역의 형식에 관하여:
케빈 오록의 영어번역을 기반으로 85

Ⅰ 최 은 주 Ⅰ

존 란체스터의 『벽』에 나타난 대격변 시대의 사회체계와
상황적 존재들 113

Ⅱ Herzog, Matthew Ⅱ

Scholarship Boys Against the Welfare State:

Critiques of Education and Bureaucracy in Tony Harrison

and Richard Hoggart 141

·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169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171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176

·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183

·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184

· 원고작성 세부 지침 187

·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190

“별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나타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와 공동체 회복*

김 경 옥**

I. 서론

아프리카계 작가로 아프리카와 미국의 역사, 판타지, 과학을 융합한 ‘아
퓨로퓨처리즘’(Afrofuturism)을 창시했다고 평가받는 옥타비아 버틀러
(Octavia E. Butler)는 인종과 젠더 문제를 포함한 노예제, 권력, 종교, 인
간 존재의 의미, 생명공학, 기후변화 등 다양하면서 복합적인 주제의 소설
을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SF작가이다. 정치, 사회적 관점으로 현실을 날
카롭게 풍자하는 버틀러의 작품은 “과학소설이 오로지 이성애자 백인 남
성만의 장르가 아님을 보여주며, 흑인, 여성, 빈곤, 장애, 퀴어가 장르의 숨
겨진 진실의 이면에 항상 존재했음을 재현한다”(Canavan 3)고 평가받는
다. 그녀의 초기작인 『킨드레드』(*Kindred*)와 『릴리스의 아이들』(*Lilith’s
Brood*)은 시간여행과 외계 종족과의 이종 결합이라는 과학소설 장치를
통해 인종차별의 역사와 여성, 인간과 비인간의 문제를 재구성한 대표적
인 SF이다. 그녀의 작품 대부분이 초능력과 외계인 등 초현실적 소재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NRF-2020S1A6A3A03063902).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okgibson@naver.com

다루었다면 1993년에 발표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Parable of the Sower*)는 지구 온난화와 경제위기, 신자유주의로 인한 인간의 묵시록적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공동체적 윤리를 구현한 작품이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앞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칭함)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이후 『은총 받은 사람의 우화』(*Parable of the Talents*)(1998)가 출간되며 시리즈로 완성되었다¹⁾.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프리카계 소녀 로런 오야 올라미나(Lauren Oya Olamina)가 2024년에서 2027년까지 폭력과 공포, 죽음과 맞서 싸우며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낸 일기 형식의 이야기이다. 버틀러는 현재의 인종차별 문제가 노예제와 같은 과거 역사의 반복이라는 점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계급 불평등과 빈곤, 범죄, 자연 재해, 다국적 기업의 노동 현실 등의 신자유주의적 위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많은 비평가들은 버틀러의 이러한 사회정치적 통찰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미국 사회와 국가, 세계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데 유용하다”(Japtok and Jenkins 1)는 평가와 더불어 “가부장적 신화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신화, 인종주의 신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신화에 도전한다”(Miller 337)고 분석한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터 스틸만(Peter G. Stillman)은 버틀러가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경고”(warning to the present)(15) 역할과 새로운 유토피아 가능성을 제안한다고 비평한다. 마티아스 닐제스(Mathias Nilges)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포스트모던 비전이 아니라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²⁾ 소설로 정의하며 주인공 로런이 주장하는 “변

1) 우화 시리즈는 로런의 유토피안 공동체 이야기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와 『은총 받은 사람의 우화』에 이어서 『속이는 사람의 우화』(*Parable of the Trickster*)까지 총 세 편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6년 2월 버틀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 이야기인 『속이는 사람의 우화』는 출간되지 못하였다.

화”(The changes)³⁾(56)의 개념을 해방이나 진보적 이상이 아닌 “사회경제적 논리”(1335)로 해석하면서, 소설에서 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심 문제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1332-1336). 한편 필립 조스(Philip H. Jos)는 영적 리얼리즘 관점에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해석하여 “지구종”(Earthseed)(78)이 두려움과 소외에 대한 대안적 종교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408-429). 이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버틀러의 주요 주제인 인종과 젠더 정치학뿐만 아니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자본주의, 종교적 윤리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주제로 다양하고 다원화된 우리의 현실 세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소설의 전반부는 로런의 가족과 고향 로블리도(Robledo)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후반부는 집과 마을이 불타고 파괴되면서 혼자 살아남은 로런이 절망적인 조건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찾는 이야기이다. 소설의 배경은 갑작스러운 토네이도와 눈 폭풍,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된 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병들고 죽어가는 종말의 세계이다. 급격한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 불평등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장벽을 세워 서로를 경계하고, 도시에 남은 것은 거리에 나뒹구는 방치된 시신들과 그 시신을 노리는 들개들, 그리고 언제나 강도나 침입자로 변할 수 있는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 맞서 무장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뿐이다. 로블리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0km 남짓 떨어진 작은 도시로 예전에는 초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상어 떼한테 둘러싸인 섬처럼”(50) 고립되었다. 로런의 아버지와 같은 어른들은 풍요로웠던 과거 기억에 매달려 “좋았던 옛 시절이 돌아오길”(57) 기다리지만,

2) 포스트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술 체계 방식인 포드주의(Fordism)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형태의 기술·경제적, 사회·정치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말한다. 포스트포드주의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안승국 66-67).

3) Butler, Octavia E. *Parable of the Sower*. Grand Central, 2019. 이후 이 소설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만 표기함.

로런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58)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구원하기로 한다.

소설은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로 인한 포스트아포칼립스를⁴⁾ 재현하는데 마약, 범죄, 빈곤, 인종차별 등 세상의 결합에 대한 작가의 알레고리적 통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버틀러는 배경과 역사적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 이 소설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임을 숨기지 않는데,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주탐사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비판이 그 예이다. 버틀러는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대신 기업이 국가를 운영하며 경찰력은 민영화된 “최소한의 질서 유지 능력조차 상실한 현재의 미국을 지도화”(Stillman 15)한다. 또한 버틀러는 “가까운 미래의 암울한 전망을 탐구하기 위해 훈련된 추론을 사용”한다(재인용 Stillman 17).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에 관하여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다”(Potts 336)고 말한 바 있다. 마두 듀비(Madhu Dubey) 역시 현실 세계와 로런의 세계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현대 독자들에게 “충격적으로 친숙하다”(shock of familiarity)고 분석한다(106).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재현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는 문명 세계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앞서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세계이다. 인간의 결합과 사회구조적 문제, 계속되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이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고 혼돈 속에 놓이게 한다. 하지만 주인공 로런은 사회적 약으로 가득 찬 세상을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며, 읽고 배우며 “비상 배낭”(emergency packs)(58)을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을 대비한다. “버틀러와 그녀의 주인공이 미래를 생

4) 포스트아포칼립스(post-apocalyptic)는 종말 이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적 포스트아포칼립스 서사는 1950년대에 영미권에서 등장한 전 지구적 재난의 발생과 문명의 중단,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의미한다(문형준 61).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도시의 불빛이 사라진 세계를 배경으로 사회안전망과 공동체가 파괴됐지만, 희망의 원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각할 때 절대 하지 않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재인용 Japtok and Jenkins 2)이다. 버틀러는 또한 독자들이 “대안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을 고려”(Miller 345)하도록 격려한다. 본 연구는 현실로 다가온 포스트아포칼립스 미래의 재현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한 인간 실존의 위기를 살펴보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본에 의한 21세기 노예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또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상에서 공생과 공감의 사유 전환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재창조를 실현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자유주의와 포스트아포칼립스 미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내 앞의 벽이 불타고 있다. 어디선가 튀어나온 불이 벽을 집어삼키고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내 쪽으로 점점 다가온다”(4)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채 악몽에서 깨어나는 로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로런의 꿈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실제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향해서 분출되는 두려움과 공포의 정동이다. 소설의 배경인 로스앤젤레스는 “수많은 구더기로 뒤덮인 시체”(9)와 “진물이 나는 상처”(109)로 비유되며 마약과 범죄, 폭력이 일상화된 도시이다. 특히 로런의 고향 마을인 로블리도는 “한 때 녹색의 부유하고 벽이 없는 작은 도시”(10)였지만 지금은 위험한 거리의 사람들과 폭력적인 갱단으로 인해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인 이웃과 빈민가로 나누어져 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부자를 불태우기”(burn-the-rich movement)(163)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부자들은 “큰 총과 개인 군대와 같은 경비대, 최선식의 보안 시설”(117)로 그들만의 낙원을 보호하며 살아간다. 소설의 세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의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죽음의 디스토피아이다. 빈부의 차이와 인종적 차이는 지역

과 사람들을 분리하며 사회적 계층화를 더욱 확고히 굳혀간다.

로런 역시 거대한 장벽이 둘러치고 있는 폐쇄된 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다. 로런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총으로 무장하거나 무리 지어 나가지 않는 한 외부 세계로 외출할 수 없다. 거리는 폭력과 살상, 범죄가 항상 벌어지기 때문이다. 장벽 안 마을 역시 그저 “안전하다는 환상”(133)을 줄 뿐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 주위를 맴돈다. 로런의 아버지는 마을의 모든 집에 총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마을 순찰대를 만들어 외부의 습격을 대비한다. 그러나 여전히 살인과 방화는 일어나고 출근길에 죽임을 당하는 악순환은 발생한다. 정치인들은 “20세기의 영광과 부와 질서를 되돌려주겠다고 약속”(20)하면서 경제 성장과 과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복지와 인권은 작동을 멈춘 지 오래다. 21세기 캘리포니아에 대한 버틀러의 묘사는 “성찰에 의한 경험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결합한다”(Phillips 300). 사회학자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그의 책 『수정의 도시』(*City of Quartz*)에서 실제로 1990년대의 로스앤젤레스가 두려움과 감시의 분위기에 종속된 “요새 도시”(fortress cities)(200)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도시에서 “민간 보안군의 증가”(224)와 “높은 보안 벽”(244)이 감시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로블리도와 같은 “게이트 커뮤니티”(Gated Community)(244)의 등장과 확대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분리하고 거부하려는 움직임이며 이것이 정치와 사회 질서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일부 엘리트 부자들에 의한 권력 욕구임을 주장한다.

버틀러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책의 변화로 일어나는 사회 전반의 움직임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인종주의, 여성 혐오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비판적으로 의식화한다. 미국에서 자유 시장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개인 선택을 경제 행동의 중심적 위상으로 승격”(코츠 41) 시켜 “자유 시장만이 효율성, 소득 분배, 경제 성장, 기술 진보, 그리고 개인의 자유 수호 등 모

든 측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증하는 체제”(코츠 42)로 작동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있어 부와 소득을 일부 지배 계급에 한정시키고, 공공서비스와 복지수혜 등 사회적 임금을 삭감시켜 경찰력과 같은 정부의 역할은 축소한다. 버틀러는 자본주의가 사회, 정치적 제도 변화는 물론이고 인류의 생활방식과 인간의 본성까지 바꿔놓는 “좀비”⁵⁾(하먼 14)같은 공포와 절망의 체제임을 폭로하면서 좀비에게 물려도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신자유주의 정치 및 경제 정책은 기업도시 올리버(Oliver)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올리버는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평범한 해안가의 작은 도시로 시민들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일부는 바닷물에 침식되거나 깊이 침수되어”(118)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경제”(119)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올리버는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은 상승하고 때때로 지진도 일어난다”(118).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로 올리버의 제반 시설은 지속 불가능하게 되고 정치적 무관심은 일반 시민은 물론 “선출된 정치인조차 올리버를 지키려 하지 않으며”(118) 정부 차원의 제방, 방파제와 같은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리버는 점차 붕괴되어간다. 결국 올리버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도시를 매각하여 사유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올리버 주민들은 “기업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억압했는지 알고”(119) 있었음에도 “안전한 삶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일자리, 태평양 전투에 대한 원조를 받는 대가로 적은 급여를 받도록”(119) 설득되었다. 올리버는 “카기모토, 스타, 프램턴”(Kagimoto, Stamm, Frampton)(118)이라는 일본, 독일, 캐나다가 함께 만든 다국적 회사인 KSF에 인수되었다. KSF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경비원을 채용하여

5)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크리스 하먼(Chris Harman)은 그의 책 『좀비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에서 21세기 자본주의 체제를 “인류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인간의 정서에 반응해야 할 때는 거의 죽은 듯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갑자기 혼란을 일으키는 짓을 할 수 있는” “좀비 체제”라고 설명한다(14).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 문제는 KSF의 계획이 작은 도시 올리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도시를 확산하려는 거대 자본의 전략이라는 점이다.

KSF는 담수화 공장의 규모를 거대하게 확장할 예정이다. 올리버의 공장은 많은 담수화 공장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다. KSF는 이미 비옥하지만 물이 부족한 서남부 지역의 광활한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 회사는 서남부 지역의 농업과 수력, 태양광, 풍력 에너지 판매망을 장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올리버는 KSF가 보유한 해안가의 작은 자산일 뿐이다. 하지만 회사는 올리버를 통해 나보다 몇 살 많은 성실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공의 소유였던 토지를 이제는 그들이 통제하게 됐다. 이제 KSF는 사람들이 포기한 땅에서 엄청난 수자원과 전력, 기업형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KSF will expand the desalination plant to vast size. That plant will be the first of many. The company intends to dominate farming and the selling of water and solar and wind energy over much of the southwest-where for pennies it's already bought vast tracts of fertile, waterless land. So far, Olivar is one of its smaller coastal holdings, but with Olivar, it gets an eager, educated work force, people a few years older than I am whose options are very limited. And there's all that formerly public land that they now control. They mean to own great water, power, and agricultural industries in an area that most people have given up on. (119)

올리버에 대한 묘사는 민족 국가에서 다국적 자본으로 권력의 이동을 설명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국경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의 개별적인 삶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KSF와 같은 다국적 기업은 더 많은 노동력과 원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경제식민지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이 과정은 이미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최저 임금과 환경 및 노동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유예”(27)한 새로운 대통령 크리스토퍼 찰스 모페스 도너

(Christopher Charles Morpeth Donner)의 결정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신 자유주의의 무자비한 경제 논리로, 국가가 자본과의 유착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쇼핑몰이 “가장 안전한 장소”(173)이며 “상점의 경비원은 경찰만큼 철저히 무장했다”(241)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국가만큼 강력해졌다. 버틀러는 서구의 전 지구적 식민 지배와 제3세계에 대한 개입 등을 전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전 지구적 경제 흐름을 비판한다. 버틀러는 다국적 기업인 KSF를 제3세계가 아닌 미국에 세움으로써 “교양있는 중상류층 백인 공동체”(118)가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부자들의 경제식민지”(129)로 전락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것은 노동자를 제3세계인이 아니라 교양 있고 교육받은 미국인으로 설정하면서 여성, 농민, 원주민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미국기업과 미국인들을 패러디하는 것이다.

로런은 올리버가 미래 모습의 하나이거나 “과학소설의 오래된 설정”(123)이라고 말하지만 반콜레(Bankole)는 1990년대에 “사람들을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붙잡아놓고 월급도 안 주면서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한”(292)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리버를 미래비전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환기한다. 로런의 새엄마인 코리(Cory)는 올리버를 “멋진 계획”(120)이라고 여기며 그곳으로 이주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로런의 아버지는 KSF의 고용이 “사람들에게 빛을 지도록 유도해 발을 묶어놓고 일을 더 많이 시키는”(121) 새로운 “부채 노예제”(Debt Slavery)(121)임을 간파한다.

임금이 지불되기는 했지만, 현금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전표로 지급되었다. 일꾼들이 사는 판잣집에도 임대료가 부과되었다. 일꾼들은 음식과 옷, 현 옷 이듯 새 옷이든, 그 밖의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당연히 회사 지폐는 회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 노동자들은 계약 노동자로서 또는 재소자 신분으로 자신의 빛을 갚을 의무가 있었다.

… 부채 노예들은 더 적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할당된 작업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징벌받기도 하고,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먼 곳의 고용주에게 그들의 동의에 상관없이,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가족 없이 혼자서 교환되거나 팔리기도 하였다.

Wages were paid, but in company scrip, not in cash. Rent was charged for the workers' shacks. Workers had to pay for food, for clothing-new or used-for everything they needed, and, of course they could only spend their company notes at the company store. . . . They were obligated to work off the debt either as quasi-indentured people or as convicts, . . . debt slaves could be forced to work longer hours for less pay, could be "disciplined" if they failed to meet their quotas, could be traded and sold with or without their consent, with or without their families, to distant employers who had temporary or permanent need of them. (288)

버틀러는 한 인터뷰에서 “끔찍한 것은 당신들이 미국의 삶의 일부라 생각하지 않은 것들, 그것 중 일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노예제이다”(1994, 4)라고 말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부채 노예가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결함의 희생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원인의 피해자”(Miller 352)로 만든다. 자유 시장 경제 원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고용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며, 결국 노동자들을 “21세기 노예”(twenty-first century slave) (170)로 만든다. 약탈적 자본주의는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서 부채 경제를 탄생시킨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개선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교회와 이웃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소설 속 배경은 화성 탐사와 우주여행이 이루어지고 “가상현실 조끼와 사용자가 다양한 가상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터치링”(19)을 생산해내는 초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세계이다. 그러나 TV조차 작동되지 않

는 로블리도에서 스펙타클한 과학기술의 사용은 딴 세상 이야기이다. 자본의 불평등이 확산하면서 로블리도의 하류 계층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한 공간, 풍요로운 삶은 사라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졌으며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악화하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지속되며 많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민들의 대다수는 “너무 덥고 너무 가난”(5)하여 생존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는 것이다. 물질적 빈곤은 정서적 빈곤으로 가중되며 혐오와 차별은 재생산된다. 리처드 모스(Richard Moss) 같은 중산층 남자들은 여성 노숙인들을 데려와 일부다처제를 하면서도 어떠한 수치심도 없으며 정치인들은 “빵과 서커스”(Bread and circuses)⁶⁾(20)에만 머물고 있다. 경찰들은 가난한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두들겨 패고, 흑시라도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빼앗고 그들을 쫓아버리거나 잡아가둔다”(51). 심스 부인(Mrs. Sims)이 이웃인 중국계이자 중남미계인 수 가족(Hsu family)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36).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주장하듯이 자본주의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생물종의 생태적 퇴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연대의 말, 표현, 몸짓도 사라지면서”(56) 인간 실존적 생활양식도 파괴되는 것이다. 이윤축적에 기반을 둔 성장 시스템이 가져온 사회적 붕괴는 도덕적 공동체의 침식으로 이어짐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날카롭게 재현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없애 버리기 위해 불을 지르는데, 이런 대

6)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Juvenal)의 풍자시의 ‘판엠 옛 키르켄세스’(Panem et Circens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로마 권력자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막기 위하여 폭력적인 오락과 무료 음식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정치적으로 둔감하고 무기력한 대중을 만들었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Aldrete 4).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고”(27) 국가와 정치는 사라졌다.

상에는 개인적인 적개심을 가진 사람부터 외모나 말씨가 외국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 또 인종이 다른 사람까지 포함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분노 때문에, 그리고 절망감으로 불을 지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힘이 없지만, 타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힘은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People are setting fires to get rid of whomever they dislike from personal enmities to anyone who looks of sounds foreign or racially different. People are setting fires because they're frustrate, angry, hopeless. They have no power to improve their live, but they have the power to make others even more miserable. And the only way to prove to yourself that you have power is to use it. (143)

위의 인용은 소설에서 사회 붕괴와 자기 파멸을 일으키는 마약 중독자에 관한 묘사이다. “불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pyromania)(143)인 파이로(pyro) 중독자들은 무차별 방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며 광기와 열기에 들뜬 자신들 역시 지옥의 나라에 빠지게 한다.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방화범죄는 혐오와 증오의 확산이며 자기혐오의 결과이다. 로런의 동생 키스(Keith) 역시 포스트아포칼립스 시대에 자기 비하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마을을 떠나 장벽 밖으로 나가지만 결국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살해된다. 키스처럼 아프리카계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인종차별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단체 가입일 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의 불평등은 사람들을 분리하고 계층화한다. 로런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올리버 같은 거대기업은 “흑인이나 중남미계 가정을 모집하지 않는다”(122). 결국 인종과 계급에 따른 구별 짓기는 혐오와 증오를 양산한다. 혐오와 증오는 “우리 집단을 그들 집단으로부터, 순수를 오염으로부터, 위반 가능한 것을 위반 불가능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경계를 정의하고 위치 짓는 것”(밀러 349)으로 “도덕적인 방식으로 그 대상들을 비하한다”

(밀러 352). 파이로 중독자의 방화는 “LA 폭동”(Miller 350)으로 비유되는데, 버틀러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낮설게 하기를 통해 보여주면서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한 행태”(Miller 352)를 비판한다.

III. 포스트아포칼립스 공동체와 공감, 그리고 지구중 이야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디스토피아적 상황의 전반부와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후반부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버틀러는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서 모든 상황을 겪어나가는 로런의 경험을 통해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심연을 응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를 재창조한다. 로런은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와 새엄마, 남동생들과 폭력과 죽음이 일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종말 이후의 희망을 상상한다. 로런은 임신 중 어머니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인 “초공감 증후군”(hyperempathy syndrome)(11)을 가지고 태어났다. 초공감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그들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감각”(12)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공감자는 고통과 쾌락은 물론 타인이 상처 입으면 그 역시 피를 흘린다. 소설에서 초공감 증후군은 “약점이자 수치스러운 비밀”(178)로 “기질적 망상 증후군”(organic delusional syndrome)(12)으로 일컫는 정신적 질병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로런은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로런이 “어쩌면 정상인지도 몰라”(194)라고 한 해리(Harry)의 말처럼 로런의 초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의 비정상사회를 정상사회로 되돌리는 힘을 상징한다. 로런의 과도한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따라 그녀 역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기절하게 만듦으로써 그녀를 취약한 존재로 만든다. 로런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총을 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초공감이 타인과의 교류와 공생의 과정으로 작동한다. 패트리샤 멜저(Patricia Melzer)는 로런의 초공감을 “타인과의 단절과 소외를 금지하는 물리적 메커니즘”(36)이라고 설명하며 “타인의 세계를 단순히 이해하려는 의지를 넘어 실제로 경험하고 차이점을 건너는 고통스럽고 즐거운 과정을 나타내는 것”(36)이라고 설명한다.

로런의 공감 능력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며 발전해 간다. 여행 초기에 로런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간다. 결정적으로 로런과 친구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집 더미에서 앨리(Allie)와 질(Jill)을 구조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우정과 협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로런은 배고픈 에머리(Emery)와 그녀의 딸 토리(Tori)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일을 주며 그들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두를 의심하는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은 “여분의 식량”(283)을 나눠주며 나눔과 돌봄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로런과 동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적응하고 변화하고 다양성을 포용”(Stillman 23)해가는 것이다. 언니 질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앨리를 포용하고 위로하는 로런의 모습은 타인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초월적인 타자성의 실현을 상징한다. 버틀러는 기존 사회의 인간에 관한 냉담함과 무관심을 잔혹하게 그리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주인공의 극도의 민감성과 대비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아포칼립스 희망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교류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로런의 초공감은 더 이상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가치로 환원된다. 로런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누가 고문할 수 있을까?”(115)라고 질문하며 초공감이 흔한 질병이라면 사람들은 서로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누구나 감기처럼 초공감 증후군에 걸린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때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극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공감 세계에서 타자는 더 이상 자아의 존재론적 대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감 능력은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종말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공생적 얽힘을 통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타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타자 관계에도 주목한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에 의하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 서로를 소중한 타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서로 다르게 물려받은 역사,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의 미래,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부조화스러운 행위 주체들과 삶의 방식을 적당히 꿰맞추는 작업, 취약하지만 기초적인 작업”(2019, 125)을 필요로 한다. 로런이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인종과 성별은 물론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다. 인신매매와 매춘, 부채 노동, 노예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겪은 그들이지만 결코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로런의 공감은 서로의 말, 몸짓, 표정을 함께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 앞으로의 소망과 미래의 행동을 공유한다.

로런은 자신을 둘러싼 잔인하고 소름이 끼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이겨나간다. “혼돈의 도가니”(153)에서 탈출한 로런은 결국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173)라는 믿음으로 길을 나선다. 고통과 흠먼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로런은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해리와 자라(Zahra)를 만나 자신이 생각해왔던 공동체 설립을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앨리와 질이 자신들을 구해준 로런과 해리에게 “당신들은 누구죠?”(Who are you guys?)(237)라고 물어봤을 때 해리는 망설임 없이 “우린 지구종이야”(Earthseed)(237)라고 답을 한다. 지구종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share some ideas)(237)하는 삶의 철학이자 종교이며, 공동체 원리이다. 로런은 로블리도에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야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운명이 있어야 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76) 할

수 있다며 대안적 체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다. 로런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죽어가는 지구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종이다.

오늘 나는 뒷마당에서 잡초를 뽑다가 식물이 바람을 타고, 또는 동물과 물을 이용해서 식물의 모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씨앗을 퍼뜨리는 방식을 생각하다가 그 이름을 알아냈다. 식물은 제힘으로는 결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행을 한다. ... 식물은 인간의 발길이 닿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씨를 뿌리고 자라난다. 지구종. 나는 지구종이다. 누구나 지구종이 될 수 있다. 언젠가는 우리 같은 존재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지구에서 멀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 스스로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다.

Well, today, I found the name, found it while I was weeding the back garden and thinking about the way plants seed themselves, windborne, animalborne, waterborne, far from their parent plants. They have no ability at all to travel great distances under their own power, and yet they do travel. . . . plants seeded themselves and grew long before any humans arrive. Earthseed. I am Earthseed. Anyone can be. Someday,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us. And I think we'll have to seed ourselves farther and farther from this dying. (77-78)

반콜레가 지구종이 “불교와 실존주의, 이슬람교의 수피즘을 결합한 사상”(261)인 것 같다고 말하자 로런은 지구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와 다르며, 신 역시 “초자연적 권위의 표상이 아님”(219)을 설명한다. 지구종은 “신은 변화이다”(God-is Change)(77)를 신념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하며 그것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런은 지구종이 “신화나 신비주의 또는 마법”(217)을 수반하지 않으며 “나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것”(care about myself and others)(221)이며 ‘함께-되기’(해러웨이 2021, 28)이자 돌봄과 나눔의 원리임을 강조한다.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 숲이 된다.
비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
애벌레가 자라 벌이 되고,
벌이 모여 무리를 이룬다.
하나에서 여럿이 나오고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다.

Seed to tree,
tree to forest;
Rain to river,
river to sea;
Grubs to bees,
bees to swarm.
From one, many;
from many, one; (315)

지구종의 ‘변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일상 경험의 세계에서 변화를 수행하고 “신을 형성하며”(Shape God)(220)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로서의 신은 “무한한 잠재력”(220)이며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즉 지구종은 암울한 절망의 과거에 의해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순간에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Philips 303)을 제공한다. 인간은 모든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구종의 최종의 목표는 “별들 사이에 뿌리를 내는 것”(to take root among the stars)(222), 즉 새로운 별을 만드는 것이다. 로런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집단은 강하기”(302)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별이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에 로런은 반콜레의 땅인 험볼트 카운티(Humboldt County)의 해안가 산기슭에 도착한다. 마른 덩불과 수풀로 뒤덮인 야생이 자 빠와 재가 널린 죽음의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씨앗을 심어

지구중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로런은 해리와 자라는 물론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기로 한다. 이 공동체는 아프리카계와 백인, 아시아계, 라틴계, 여성과 남성, 노인과 어린이, 이성애자와 퀴어인 사람들이 모인 다원적 공동체이다. 지구중 공동체는 개인주의, 사유재산, 인종, 성별, 계급 또는 섹슈얼리티에 기반을 둔 차별을 거부하며 인간 및 비인간 세계와의 다양성, 상호 연결성 및 상호 의존성을 포용함을 보여준다. 버틀러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유토피아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 않는다”(재인용 Phillips 307)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러는 ‘함께 사는 능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학습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내일 우리는 겨울 정원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 몇 사람이 마을로 가서 연장과 작물의 씨앗, 생필품 따위를 사 올 것이다. 이제 우리의 거주지도 마련할 때도 됐다. 이 지역은 나무도 충분하고 땅과 언덕의 흙을 파서 굴을 만들 수도 있다.

Tomorrow we'll begin to prepare a winter garden. Next week, several of us will go into town to buy tools, more seed, supplies. Also it's time we began to build a shelter. There are trees enough in the area, and we can dig into the ground and into the hills. (325)

로런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328)이라고 확신한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씨앗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될 것이고, 떡갈나무는 숲을 이뤄 공동체가 될 것이다. 로런은 공동체의 이름을 ‘도토리’라는 뜻의 ‘에이콘’(Acorn)(328)으로 정한다. 로런의 도토리 씨앗은 “인간의 삶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반대로 인간의 삶을 통해 구성되기도 한, 쌀이나 꿀벌, 튜립 및 장내 세균총 같은 유기체적 존재자들을 다 포함하는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해러웨이 2019, 133). 해러웨이는 복수종들이 함께 잘 지내기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친족과의 유대

를 보장하는 “테라폴리스”(Terrapolis)(2021, 23)를 제안하는데, 그곳은 “언제나-너무나-많은 연결이라는 SF의 그물망 속에 존재”(2021, 25)하는 공간으로 “복수종의 스토리텔링”(2021, 25)을 위한 공간이다. 즉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무기물, 포스트 휴머니스트와 퇴비주의자, 산 것과 죽은 것들의 고향이다. 에이콘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328) 또 하나의 테라폴리스로 ‘함께-되기’의 공생체로 탄생된다.

로런의 마지막 일기는 반콜레의 가족을 위한 장례식 날을 기록한다. 공동체의 일원인 나티비다드(Natividad)는 자신이 오랫동안 짠 솔을 반콜레 가족의 유골들을 감싸도록 건네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326)이라며 반콜레를 위로하고 죽은 가족을 추모한다. 로런은 반콜레에게 떠나보낸 사람들을 기억하는 의식을 열 것을 제안하며 회복과 재구성의 과정에는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꼭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애도의 장면은 “환원 불가능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Phillis 306) 고도의 실천 윤리이다. 로런은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쁨과 때로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마법의 치유력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치료제”(taking care of other people can be a good cure for nightmare)(257)일지 모른다는 말처럼 서로에 관한 관대함과 친밀감으로 서로를 돌볼 때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후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 종말론적 상황을 맞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빈곤, 그로 인한 폭력과 범죄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를 향한 희망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자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이다. 버틀러는 20세기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심화가 환경 파괴와 경제 붕괴로 공동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목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기업과 자본의 노예가 되고 불안과 절망, 소외로 파이로 중독자들같이 자신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소설은 아프리카계 소녀 로런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중 공동체이다. 로런의 지구중은 공동체적 윤리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나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사회 질서의 붕괴에 대응하여 상호 원조와 집단성을 통해 구성된 ‘재난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이런 공동체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449)한다고 이야기한다. 로런의 지구중은 솔닛이 말한 재난 공동체로 “인류의 생존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무정부적 변화철학을 수용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Dunning 185).

버틀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통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나 장밋빛 환상을 단순히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비판과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계몽된 공동체주의에 대한 희망적인 실험”(Phillips 305)인 지구중에 대한 로런의 제안은 공동체에 대한 강한 믿음의 진술이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모두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프롤로그는 지구중의 경전인 『산 자들의 책』(*The Books of The Living*)에서 인용된 어구로 시작한다. 『산 자들의 책』은 인간의 삶이 상실과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탄생과 희망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의 과정에 지침을 제공한다. 로런의 세계에서 공감과 연대는 더 이상 헛된 망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단순한 이상이나 신비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실용적 가치로 “아무도 변화를 멈출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의

도하든 그렇지 않든 변화를 형성한다”(No one can stop Change, but we all shape Change whether we mean to or not“(262)는 로런의 말처럼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 실행해 가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인류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아포칼립스적 공포를 경험했다. 삶과 죽음의 불완전한 경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취약성은 타인에 대한 거부와 혐오로 표면화되었다. 그럼에도 경계와 구분, 다름의 차이를 벗어나는 삶의 방식과 상호의존의 공동체적 관계의 변화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 주제어

옥타비아 버틀러,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포스트아포칼립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공동체, 공감

■ 인용문헌

- 가타리, 펠릭스. 『세 가지 생태학』. 윤수중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 문형준. 「왜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은 인간을 살려두는가: 인류세 시대 서사로서의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 『안과 밖』 43. (2017): 59-78.
- 밀러, 윌리엄 이언. 『혐오의 해부』. 하홍규 옮김. 서울: 한울, 2022.
- 솔닛, 레베카.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혜영 옮김. 서울: 팬타그램, 2012.
- 안승국.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와 포스트포드주의」. 『국제정치논총』 39.3. (2000): 61-78.
- 코츠, 데이비드 M.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광세호 옮김. 서울: 나람북스, 2018.
- 하먼, 크리스. 『좀비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이정구·최용찬 옮김. 서울: 책갈피, 2012.
- 해러웨이, 도나.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신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 옮김. 파주: 마농지, 2021.
- _____.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서울: 책세상, 2019.
- Aldrete, Gregory G. “Science Fiction, Spectacle, And The Art of Political Distraction.” *Film&History* 51.2 (2021): 4-20.
- Butler, Octavia E. *Parable of the Sower*. New York: Grand Central, 2019.
- _____. “Sci-Fi Tales from Octavia E. Butler.” Interview with Jerome H. Jackson. *Crisis* (1994): 4-5.
- Canavan, Gerry. *Octavia Butler*. IL: U of IP, 2016.
- Davis, Mike. *City of Quartz*. New York: Verso, 2018.
- Dubey, Madhu. “Folk and Urban Communities in African American

Women’s Fictio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999): 103–128.

Dunning, Stefanie K. “‘Learn or Die’: Survivalism and Anarchy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Human Contradictions in Octavia E. Butler’s Work*, Ed. Martin Japtok and Jerry Rafiki Jenkins. CA: Palgrave Macmillan, 2020.

Japtok, Martin and Jerry Rafiki Jenkins. “Introduction: Human Contradictions in Octavia Butler’s Work.” *Human Contradictions in Octavia Butler’s Work*, Ed. Martin Japtok and Jerry Rafiki Jenkins. CA: Palgrave Macmillan, 2020.

Jos, Philip H. “Fear and the Spiritual Realism of Octavia Butler’s Earthseed.” *Utopian Studies* 23.2 (2012): 408–429.

Miller, Jim. “Post–Apocalyptic Hoping: Octavia Butler’s Dystopian/Utopian Vision.” *Science Fiction Studies* 25.2 (1998): 336–360.

Melzer, Patricia. “‘All That You Touch You Change’: Utopian Desire and the Concept of Change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and Parable of the Talents*.” *Femspec* 3.2 (2002): 31–52.

Nilges, Mathias. “‘We Need the Stars’: Change, Community, and the Absent Father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and “*Parable of the Talents*.” *Callaloo* 32.4 (2009): 1332–1352.

Phillips, Jerry. “The Intuition of the Future: Utopia and Catastrophe in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NOVEL: A Forum on Fiction* 35.2/3 (2002): 299–311.

Potts, Stephen W. “‘We Keep Playing the Same Record’: A Conversation with Octavia E. Butler,” *Science–Fiction Studies* 23.3 (1996): 331–338.

Stillman, Peter G. “Dystopian Critiques, Utopian Possibilities, and Human

Purposes in Octavia Butler's *Parables*.” *Utopian Studies* 14.1
(2003): 15-35.

■ Abstract

**“To take root among the stars”:
a Post-Apocalyptic World and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in *Parable of the Sower***

Kim, Kyungok
(Sookmyung Women's Univ.)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is a tale of science fiction and speculative fabulation that depicts a world of social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poverty. The resulting violence and crime take place against a backdrop of American society facing an apocalyptic situation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Still, the story projects hope for the creation of a new community. Butler exposes the class inequalities and grind of poverty in American society thanks to capitalism, crime, natural disasters and the harsh conditions of labor enforc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She also recreates the problem of racism as a repetition of history and slavery. This paper examines the crisis of human existence caused by neoliberal capitalism through the reproduction of a post-apocalyptic future that becomes reality. It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trajectory of human existence by facing up to the facts of ecological destruct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forms of 21st-century slavery practised under capitalistic systems. The paper holds out the hope of restoring and re-creating community through

symbiosis and empathic thought-shifting in a post-apocalyptic world.

■ Key words

Octavia E. Butler, *Parable of the Sower*, Post-Apocalyptic, Neoliberal Capitalism, Community, Empath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3년 3월 27일 ○심사일: 2023년 4월 7일 ○게재일: 2023년 4월 11일

캐서린 앤 포터의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 속 전염병과 전쟁 연구*

김 대 중**

I. 질병과 문학

판데믹은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왔고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전염병은 ““병이 났다”는 사실에 ”병이 옮겨졌다“”라는 사실이 합쳐져 발생하는 만큼 역사적 사회적 이슈이다(정과리 14). 서구에서의 전염병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초기에는 『오이디푸스』에서처럼 인간의 운명과 신의 저주에 대한 신화적 의미를 지녔거나 성경의 율기에 나오듯 신의 징벌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전염병은 늘 외부의 침입이나 전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근대 휴머니즘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과 질병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되기 시작한다. 특히 18세기 말부터 발전된 임상의학이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제공하지만, 신이 사라진 혹은 떠난 세계에서 인간은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불안에 시달리는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보게 되었다. 현대에 인간과 전염병의 문제는 초국가주의/인간/동물/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복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8070).

** 강원대학교 교수, daimon2002@kangwon.ac.kr

잡한 담론의 문맥을 갖는다. 가령 최근 초국가주의 시대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늘면서 지역적 엔데믹이 국제적 판데믹으로 급속히 바뀐다. 전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하층계급에서 상류층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속도를 지니고 퍼져나가면서 지구촌에 상존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코로나 19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과 인문학의 만남은 불가피하다. 질병과 인문학은 이미 의료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 ‘공감’이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문학을 통해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과 의료행위의 문제를 여러 문맥에서 제시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전염병 현상과 이에 대한 문학적 재현은 서구 문학사에서 질병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가령 서구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전염병의 사례 중 하나는 『일리아스』(*Illiad*)에서 신이 아가멤논의 크리세스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기 위해 보낸 역병이다. 이후 중세를 끝낸 흑사병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Decameron*)나 다니엘 드 포(Daniel Defoe)의 『흑사병 연대기』(*A Journal of the Plague Year*)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얽혀져 재현되었다. 엔데믹이나 펜데믹을 다룬 근대 소설들은 주로 현실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나 가상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제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는 소설들이 많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문학에 나타난 전염병으로서의 스페인 독감과 인간과 전쟁의 관계에 주목한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호모 데우스』(*Homo Deus*)에서 인류 역사가 늘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시달렸으며 이것을 이겨내려는 노력들이 역사에 투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전염병의 서사에 전쟁이 들어가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의 이들의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것뿐 아니라, 대량 살상이라는 현상과 자신이 왜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현대인의 실존적 상황에서 교집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선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수잔 손탁(Susan Sontag)의 전염병과 인간과 문학에 대해 제시한 인문학적 해석을 제시하

려 한다. 더불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임상의학의 탄생』(*The Birth of the Clinic*)을 비롯해 근현대 전염병에 대한 여러 담론들을 살피려 한다. 이후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을 다룬 미국 여성 소설가 캐서린 앤 포터(Katherine Anne Porter)의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Pale Horse, Pale Rider”)를 통해 어떻게 전염병과 전쟁이 문학에서 문맥화되었는지 살피려 한다.

II, 근현대 문학과 감염병 그리고 전쟁

19세기 서양에서 질병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조명된다. 과학의 발전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의료적 시선 아래 드러낸다. 가령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가 세균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밝힌 이후 로베르트 코흐(Heinrich Hermann Robert Koch, 1843-1910)는 현미경을 통해 결핵균이나 콜레라균을 눈으로 확인한다. 이후 나온 항생제와 항균제는 이제야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 건강의 적균들과 제대로 맞서 싸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 이후 전염병은 전쟁과 같은 여러 개념들을 통한 은유화의 과정을 거친다.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은유로서의 질병과 은유로서의 에이즈』(*Illness as Metaphor and AIDS and its Metaphors*)에서 질병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나 전쟁과 같은 주변 상황의 은유로 작용했는지 논한다. 손탁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 “암치료는 전쟁의 특징”을 가진 단어로 묘사되고, 암세포는 침략하고 정상세포로 전이되어 ‘식민지(colony)를 건설하는 적군으로 여겨진다(66). 또는 전염병이 “사회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지면서 운명과 같이 다가오는 전염병의 원인을 내부에 암약하는 ‘소수자’들의 탓으로 돌렸다(Sontag 140). 전염병은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전체주의의 은유로 사용되었다. 가령 19세기에 미국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을

“황역”(Yellow Peril)이라 부르고 ‘중국인 입국 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법으로 막았던 과거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박멸대상으로 여기며 발생하는 혐오범죄와 연결된다.

전염병의 역사는 의학 특히 임상의학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전염병과 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한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전염병의 근본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에 전염병에 관련해 단지 병에 걸린 이들의 “숫자와 위중도”에만 관심을 가졌다(23). 그러나 임상의학이 전염병을 다루게 되면서 환자의 회복보다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의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전염병은 국가 주도 의료 체계의 발생과도 관련된다. 전염병의 발발과 동시에 국가 단위의 전염병 전문의학회가 생기고 전국적 혹은 국지적 행정명령들이 내려진다. 이때부터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통해 “의료 행위에 대한 정치적 권력들과 의료인 전체를 관할하는 특권을 지닌 의료 체제”가 시작된다(27). 이제 “의학적 공간은 사회적 공간과 우연하게라도 겹치거나 가로지르거나 사회적 공간을 꿰뚫는다. 모든 공간에서 의사들의 교차하는 시선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동식 관리를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31). 누구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와 방역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걸리지 않은 이들도 모두 잠재적 감염자로 판단된다. 의료인 역시 국가에 동원되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의 신체는 지속해서 다양한 검사와 진단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식민주의 담론도 문맥화된다. 말라리아, 천연두, 콜레라, 에볼라 등과 같은 전염병의 임상사례들이 전세계적으로 연구되면서 제3세계의 전염병이 제1세계나 제2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물론 전염병은 대부분 피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국가로 퍼진 사례가 대부분 이었고 서구의 제3세계에 대한 방역은 대부분 실패한다.

물론 전염병을 임상의학이나 생명정치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울

프의 「질병에 걸린다는 것에 대하여」(“On Being Ill”)는 휴머니즘과 질병과 문학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¹⁾ 평생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울프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에 대하여」를 쓰기 전 스페인 독감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을 심하게 앓았다. 그녀는 이 경험을 “건강의 빛들이 꺼질 때, 그때 발견되지 못하던 나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독감의 약한 공격에 쓰레기들과 사막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 그리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구렁이로 내려가는지를 느끼고 우리의 머리 위로 절멸의 바다가 다가오는지 느끼게 된다”라고 묘사한다(3). 그러면서 울프는 사랑과 같은 주제와 달리 전염병이 문학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이란 죽는 순간까지 전염병을 끝없이 앓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울프가 볼 때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사회적 현상이면서 개인의 실존적 문제이다. 인간이란 죽는 순간까지 질병을 끝없이 앓는 주체이다. 더불어 질병이란 “노예에 불과한 마음에 대해 몸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으로서 환자는 고독 속에 침대에 누워 열병과 우울증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며 신체가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은 질병 앞에 무너지고 인간은 질병의 노예가 된다고 본다(5). 질병은 실존적 인간의 고독한 선택들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울프가 볼 때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또한 상상력의 원천이며 문학의 재료이기도 하다. 울프는 “질병 속에서 언어는 신비로운 면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언어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선 것을 알게 되고, ... 이를 통해 시인은 언어가 개념에 비해 나약한 것을 알기에 언어가 표현하거나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단어로 그의 페이지를 뒤덮는다”라고 말한다(21). 울프는 존 던의 시들이나 말라르메의 시는 병에 걸릴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울프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작품에서 질병 속에 놓인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다루었다. 가령 『항해』(Voyage Out)에서 울프는 레이첼(Rachel)의 열병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렇다면 근현대 문학작품에서 전염병은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본 연구가 초점을 둔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20세기 초반의 팬데믹에 대해 미국 작가들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한다”(Bollinger 364).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스페인 독감은 전염성이 강할 뿐 아니라 중증도도 높았다(Arnold 28). 이러한 측면에서 엘리자베스 아우카(Elizabeth Outka)는 그녀의 『바이러스와 모더니즘』(*Viral Modernism*)에서 스페인 독감이 20세기 근대성과 문학에서의 모더니즘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아우카는 실제로 이 독감이 많은 작가들과 작품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독감이 모더니즘 문학 연구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한다(1). 아우카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전쟁을 든다. 모두의 관심이 양차 대전으로 쏠린 상황에서 작가나 독자들은 질병이나 판데믹의 위협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적게 가졌다. 그러나 아우카는 전쟁과 더불어 스페인 독감은 오히려 “죽음과 희생, 변하는 적들과 위협들과 목표들, 국내 전선과 실제 전선 사이의 위협과 비난의 계산의 변화”를 불렀다고 본다(2).

Ⅲ. 판데믹과 전쟁: 캐서린 앤 포터의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는 1차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던 시기에 한 여성이 겪은 스페인 독감 투병 경험을 다룬 중편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자기 삶 속에 침입한 질병과 사투를 벌인다. 작품의 화자처럼 포터는 덴버에 있는 『록키 마운틴 뉴스』(*Rocky Mountain News*)의 기자로 일하던 중 스페인 독감에 걸렸지만, 병원이 포화상태가 되어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한다. 포터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사경을 헤매면서 신문에 부고가 준비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다(Davis 57). 퇴원할 때 그녀는 머리가 다 빠져 버릴 정도였으며 이후 머리가 다시 자라

긴 했지만 백발이 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Brooker 214). 국내에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 반면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로버트 펜 워렌(Robert Penn Warren)은 이 작품에 담긴 포터의 글쓰기와 그 속에 담긴 아이러니에 대해 논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했다. 아우카는 작품의 중심 주제로 전쟁과 전염병 사이의 유사성과 재생(resurrection)과 죄의식을 든다. 사라 영블러드(Sarah Youngblood)는 이 작품의 구조와 심상에 대해 연구를 했다. 영블러드는 이 작품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분들이 주인공의 심리적 상황에 맞춰져 구조화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작품은 미란다의 세계 속 “평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심상들을 통해 드러낸다고 분석한다(345). 그러나 영블러드의 해석은 작품에서 왜 전쟁과 전염병이 연결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주엘 스피어스 브루커(Jewel Spears Brooker)는 알브레히트 듀러(Albrecht Dürer)의 그림들과 모더니즘을 통해 작품 속 전쟁과 전염병이 연결된 묵시록적 세계관을 조망한다. 브루커는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의 배경에 중세와 종교개혁과 모더니즘의 만남이 있다고 해석한다. 브루커의 해석은 작품의 지엽적인 부분에 치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²⁾

덴버에 있는 신문사 기자인 작품 속 여성 화자 미란다 게이(Miranda Gay)는 작품의 시작인 아침에 무언가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며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전쟁은 전염병의 은유이다. 손탁이 논하듯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투쟁, 전쟁”의 용어로 묘사되고 사회 전체를 군대화하고 작전을 펼치듯 방역이 이루어졌다(95). 특히 “전염병이라는 은유는 ...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위기에 대한 동의어로 이용되었다”(Sontag 143). 화

2) 이 외에도 코다이 루치(Kodai Luchi)는 포터의 다른 작품들과 이 작품을 연결시키며 미란다가 겪는 죽음에 대한 강박을 분석한다. 로렐 볼링저(Laurel Bollinger)는 포터의 개인적 트라우마와 연결시켜 작품을 분석한다. 조지 치트햄은 작품 속 몰락과 구원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개리 시우바(Gary M. Ciuba)는 작품 전체를 프로이트의 애도의 측면에서 조명한다.

자는 전쟁을 떠올리며 이내 전날 밤의 일을 회상한다. 전날 화자는 전쟁채권(liberty bond)을 사라는 이들로 인하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쟁과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몫이지만 국가가 이를 명분으로 국민을 통제하거나 선동할 수 있다. 1차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던 당시 전쟁채권을 파는 이들은 애국심을 미끼로 강압적이고 교활한 말투로 미란다를 압박했다. 가령 미란다가 전쟁채권을 왜 강매하냐고 따지자 이들은 “우리는 채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사지 않는지 이유를 묻는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대꾸한다(273). 그들은 전쟁채권을 사는 것이 “당신이 충성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지에 대한 신님의 보증”이라고 주장한다(273). 이에 미란다는 속으로 “내가 이따 전쟁은 개나 주라고 한다면 어떨까? 내가 이 조그만 깡패에게 차라리 벨로 숲 전투에서 뒤흔겨서 썩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273). 그러나 미란다는 침묵한다. 미란다의 침묵에는 전쟁 채권을 사지 않으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직장을 잃거나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옆에는 자신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죄의식이 담겨 있다. 전염병과 같은 문맥에서 “전쟁은 정치적이고 사회적 암시로만 다루어질 뿐 아니라 특별히 심리적이고 도덕적 함의로도 다루어진다”(Youngblood 345).

전쟁과 전염병의 유비는 계속된다. 미란다는 두통과 열감을 느끼며 이게 다 “전쟁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한다(274). 전쟁은 끔찍하지만 피할 수 없으며 누군가를 순식간에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 감염병과 같다. 또 하나의 유사점은 살아남은 자들이 느끼는 죄의식이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죄의식과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Outka 58). 해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본국에 남은 이들이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자신이 옮긴 전염병으로 잃게 되는 이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또한 전쟁과 전염병은 이런 측면 때문에 모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낸다. 전염병이 주로 외부에서 들어와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그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듯, 전쟁은

해외에서 벌어지지만, 내부에 있던 다른 전쟁들과 사회 내부의 모순을 폭로한다. 한 예로 전쟁에서 남자들은 전투에 끌려가지만, 여성들도 그에 못지 않은 시련들을 겪는다. 가령 미란다는 신문사 리포터로서 타우니(Towney)라는 동료와 함께, 납치되어 폭행당한 한 여성을 인터뷰하지만, 자신이 겪은 끔찍한 폭행은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 여성의 부탁에 미란다는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사인 한 신문사는 이 사건을 알게 되자 바로 보도하고, 미란다가 타우니는 모두 좌천당한다. 피해 여성이 이 일로 어떤 2차 가해를 겪었는지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여성은 남성중심문화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다. 그들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들뿐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들은 나약한 존재로 비취진다. 전쟁은 남성성의 상징이다. 미란다는 좌천되어 연극평이나 하는 상황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둘 방법을 궁리하다, 자신의 기사를 동료인 척(Chuck)에게 맡긴다. 척은 폐가 안 좋아서 징병되지 않았다. 미란다는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척과 같은 남자들이 “피에 굶주린 여성이여, 나의 흰 깃털이나 뽑지 말아달라”고 생각한다고 느낀다(290). 전쟁에 참여해야만 남성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척과 같은 남성들은 ‘하얀 깃털을 꽂은’ 겁쟁이가 되었다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전쟁 채권으로 힘들었던 미란다는 자신의 남자친구 아담(Adam)과 만나 데이트한다. 미란다가 동갑인 24세의 아담은 애국심이 깊은 청년으로서 아직 전장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지뢰 제거 부대의 중위로 있다. 아담은 척과 같은 나약한 남성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병역을 마치면 전기 기사가 되고 싶어 하고 기계류를 좋아하는 순수한 청년인 아담은 이번 휴가가 끝나면 6개월간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아담은 자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자랑해도 미란다는 그걸 다 믿을 만큼 그를 사랑한다. 그러던 아담과 미란다는 데이트하며 걷는 중에 장례식이 열리는 것을 본다. 아담은 자신이 뉴스에서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보았다며 정신력이 강하면 전염병도 전쟁처럼 이길 수 있다

고 말하지만, 미란다는 불안해하며 “중세로부터 나온....어떤 전염병으로 보여. 이렇게 많은 장례식을 본 적이 있어?”라고 묻는다(281). 미란다는 중세의 페스트 창궐과 현재를 비교한다. 미란단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간다. 아담의 허세를 비웃듯 거리에 나온 여성들의 웃음소리도 “피를 얼어붙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 같은 조종소리처럼 어둡게 울렸다”(276). 조종 소리는 죽음을 매개로 전염병과 전쟁을 묶는다. 전쟁과 전염병은 미란단의 머리에서 하나가 되고 공포와 절망감으로 미란단을 도망치게 한다. 가령 미란단은 부상자가 가득한 군 병원에 방문한다. 그곳에서 미란단은 고통과 절망에 삶의 의지를 잃은 듯한 부상자들을 만나고 그 고통이 자신에게 전염되는 느낌을 받는다. 미란단은 방문을 중단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선다. 미란단은 역병에서 도망치듯 전쟁의 공포로부터도 도망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에서 창궐하는 낯을 든 죽음의 신은 미란다가 도망칠수록 더 빠르게 쫓아온다.

직장에 온 미란다는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타우니는 “이 전염병이 위장하고 보스턴으로 들어온 독일 배에 의해 옮겨졌다는” 소문을 전한다(284). 괴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실제 역사 속 스페인 독감은 1918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 1918년 8월부터 미국과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고병원성 스페인 독감으로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군 병사 4만 3,000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는 제 1차세계대전 중 사망한 미군 병사 10만여 명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였다”(박만성 94). 스페인 독감은 실제로는 미국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전세계로 퍼졌다. 스페인 독감은 1919년까지 이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명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며 “제1차 세계대전이 지속된 4년 반 동안의 사망자 수가 1,500만명”이라고 알려졌다(박만성 96). 전쟁은 전염병의 전파를 더 빠르게 했고 더 많은 이들이 죽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전쟁과 바이러스를 모두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적들을 섬멸할 수 있다는 국가의 프로파간

다는 아담과 같이 순진한 무수히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방역과 전쟁은 모두 인구 보전이라는 생명관리정치에 복속되어 수행된다. 국가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구를 지켜내야 하고 특히 생산인력의 보전은 중요한 국가의 책무가 된다. 전쟁 역시 국가 방위 혹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인구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방역이나 전쟁이 국가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인구 보전을 빌미로 국가 주도의 폭력이 일어난다. 미란다가 본 한 연극은 전염병과 전쟁이 어떻게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의 프로파간다로 활용되는지 잘 보여준다. 데이트 중에 아담과 미란다는 연극을 함께 본다. 연극의 막간에 거대한 미국 국기가 먼지가 가득하게 축 늘어져 나타난다. 축 늘어진 국기는 전쟁과 전염병의 결과물인 전장의 시체나 병실 환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런데도 막간을 이용해 깃발 앞에서 전쟁을 선전하는 이는 “이들 죽은 이들은 아무런 소용없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을 끝내려는 전쟁이며 민주주의와 인류를 위한 전쟁이며 영원히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입니다”라고 외치고 전쟁 채권을 사라고 홍보한다(293). 미란다는 이 장면을 보고서 “또 냄새나는 늙은이가 젊은 이들에게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294). 그러나 아담은 이에 대해 삶과 죽음이란 운에 맡겨진 것이라며 국가의 능력에 한치의 우려도 없다는 듯 말한다. 전쟁에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하려는 아담을 보며 미란다는 “순수하고 ... 무결점의 완벽한 희생양”이라 여긴다(295). 연극을 본 후 아담과 중세시대 흑사병을 겪던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추던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면서 미란다는 그의 죽음을 예감한다(296). 즐거움의 무도회에서 죽음과 전장은 마치 미래에 반드시 올 손님처럼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희상 장면이 끝나고, 시점은 미란다가 춤을 추고 돌아온 이후로 다시 바뀐다. 미란다는 종일 아파서 누워 있게 된다. 부대로 돌아갔던 아담은 미란다로부터 소식이 없자 부대를 나와 그녀를 방문해 간호한다. 미란다는

고열 속에 환상을 본다. 소설은 전반부의 사실주의적 서술에서 후반부에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듯한 내적 독백과 다양한 상징과 심상이 가득한 내러티브로 바뀐다. 소설 속 언어는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신체의 상태와 유사해진다(Outka 59). 첫 번째 환상에서 미란다는 조용히 흐르는 강과 제방에 묶인 배 한 척을 목격하는데, 그 배의 뒤쪽에는 괴이한 색채의 동물들이 가득한 정글이 펼쳐져 있다. 배는 날개를 펴고 정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는 ‘위험’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진다. 정글은 전쟁과 전염병이 퍼진 세상을 상징하고 ‘배’는 그녀와 아담이 살고 있는 ‘미국’을 상징한다. 그녀가 이러한 환상을 보는 동안 독감은 도시 전체, 미국 전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아감벤이 논하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가 전쟁터처럼 도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담은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매일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며 그녀의 증상도 심각하다고 걱정한다. 미란다는 아담 역시 독감에 걸릴 수 있다며 부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아담은 그녀를 간호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거대한 낫을 든 ‘죽음의 신’(Grim Reaper)의 이미지가 전염병과 전쟁을 매개로 환상을 지배한다. 손탁이 논하듯 고대와 달리 전염병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136).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기에 인간은 전염병 앞에 무방비상태로 운명처럼 전염병을 받아들였다. 고열로 비몽사몽 속에 있지만 미란다는 잠이 들면 그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미란다는 잠들지 않기 위해 텍사스에서 불리는 흑인들의 영가인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Pale Horse, Pale Rider”)를 부른다.³⁾ 이 노래에 나오는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 ... 어

3)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는 요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구절에서 인용되었다. 아우카는 요한 계시록에서 창백한 말 위에 탄 이가 ‘죽음’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전적 아이콘인 죽음의 신”(classic iconography of the Grim Reaper)를 지칭한다고 해석한다(55). 또한 브루키는 이 작품의 배경이 듀러의 그림에서 나오고 있으며 포터가 계시록을 통해 일종의 알레고리로 작품을 구성했다고 논한다. 특히 꿈에서 나오는 장면들과 듀러의 그림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떤 사랑하는 이도 데려가지 … 죽음은 항상 노래부르는 이를 애도하게 만들지”라는 가사는 전쟁터와 병원에 퍼지는 죽음의 공포와 애도를 담아낸다(303-4). 국가의 통제뿐 아니라 죽음과 애도는 전쟁과 전염병의 공통분모이다. 아담이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사온다고 나간 사이 미란다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신문사 사장의 요청으로 불러온 앰블런스에 실려 입원한다. 병원에서도 미란다는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광경을 본다. 미란단의 환상은 “어떻게 바이러스가 경계들과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를 무너뜨리는지 잘 보여준다”(Outka 66). 미란다는 환상과 현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혼란스러워 한다. 또한 자신이 지금 누워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미란다는 마치 전장에서 죽음을 앞둔 병사처럼 혼란스러워 한다. 죽음은 전장에서처럼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으며 다가온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미란단에게 신체는 “육신의 문제”(problem of flesh)가 된다(Ciuba 60). 신체의 존엄이 사라진 육신은 살아있는 몸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는 전쟁터로 변한다. 육신은 신체와 시체 사이의 공통영역이다. 전쟁은 육신이라는 전쟁터를 통해 전염병과 하나의 담론이 된다. 가령 미란다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두 명의 검은 형체들이 시체를 수의에 쌓아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나 눈앞에 전장에서의 포연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퍼지는 장면이나 자신은 죄가 없다고 외치는 어떤 남자를 본다. 이 환상 속 남자의 모습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전장에서 죽어간다는 상황에 느끼는 미란단의 죄의식과, 자신이 옮긴 바이러스로 고통받을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죄의식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전쟁터와 병원은 그녀의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합쳐져 또다른 기이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미란다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인 힐데스하임(Hilldesheim)이 독일군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총검으로 아기를 찌르고 들고 다니는 환상도 본다(309). 독일 이름을 가진 의사는 실제 독일군으로 겹쳐진다. 그녀는 두 번째 환상에서 자신이 어릴 때 살던 농장의 우물에

힐데스하임이 독을 타고 아기를 우물에 집어던지려는 광경을 보고는 미친 듯 울부짖으며 의사를 죽이라고 소리친다. 미란다의 이 환상은 자신이 전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느끼는 죄의식을 반영한 환상들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미란다는 전쟁 채권에서부터 강요되었던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이러한 환상을 헤맨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장면들이 미란다가 겪는 의료현장의 폭력적 양태에 대한 고발이라는 해석이다. 미란다에게 의사는 치료의 주체이면서 통제와 관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전쟁에서 병사들에게 돌격을 명령하는 장교들과 같이 느껴진다.⁴⁾ 미란다는 자신의 신체가 의사들의 시선 속에서 관리되지만 자신의 신체 주권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는다. 미란다는 환상에서 보듯 의사가 감염된 자신의 신체를 전염병이라는 적군에게 점령당한 신체처럼 여긴다고 느낀다. 또는 역으로 의사를 독일장교로 착각한 장면에서 보듯 미란다에게 의사는 적군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신체가 지금 의사인 적군에게 처벌이나 고문을 당한다고 느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임상의학에서 환자의 몸은 전염병이라는 적군에 점령당한 수복해야 할 땅이다. 따라서 환자의 복지나 회복보다 전염병의 퇴치가 우선시된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임상의학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시된다. 환자의 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푸코는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들이 “안도를 구하기 위해 누워 있는 환자의 아픈 몸을 앞에 두고, 환자의 몸을 알기 위해 바라본다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환자의 몸을 보여야 하는 것이 환자의 침묵 속에서 더 치욕적인 무언의 폭력이 아닐까?”라고 묻는다 (152). 환자의 육신이라는 공간에서 병원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상실된다. 특히 환자의 질병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레지던트나 인턴들의 실습에 활용되는 상황은 이러한 존엄상실을 부추긴다.

4) 실제 1차대전은 끔찍한 참호전이었으며 기관총의 등장으로 많은 병사들이 돌격 명령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참호전은 또한 전염병이 병사들 사이에 퍼지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염병과 같은 존재사건은 타자에 대한 윤리의 문제를 내포한다. 질병이라는 ‘사건’ 이전에는 의료인과 환자는 각각의 개체이지만 의료 관계가 하나의 ‘사건’으로 설정되는 순간 의료 주체와 의료 타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가령 질병의 주체인 환자 앞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관장하는 타자가 된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의료인이 치료해야 할 대상이면서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타자로서의 의료인은 병원 속 권력관계 속에서 권력의 주체가 되고, 질병의 주체인 환자는 무기력한 타자가 된다. 의료인은 전염병에 걸린 대상을 ‘전염병’이라는 퇴치해야 할 전염병의 주체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처지에 놓인다. 더불어 공리주의와 절대주의의 윤리적 갈등은 전염병이라는 사건 앞에 의료인과 환자를 모호한 관계로 몰아넣는다.⁵⁾ 간호사와 의사의 위계로 인하여 간호사들이 전염병의 위험에 더 심하게 노출되는 문제나 환자 신체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등장했다. 전염병의 시기에 시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타자의 윤리에 들어간다. 시체들은 모두 신원확인만 마친 상태에서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화장되었다. 푸코가 논했듯 근대이후의 병원에서 신체들은 시체들과 마찬가지로 처리의 대상이 되고 생명관리정치의 또다른 이름인 죽음관리정치에 복속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은 오히려 안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미란다에게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환상에서 미란다는 천사들과 같이 있는 지인을 만난다. 미란다는 이들과 함께 세례를 상징하는 물 속으로 들어가고 “무엇도 묻지 않고, 아

5) 가령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서 의료인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누구를 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들이 집중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위험한 고비에 있는 80대 노인을 최대한 많은 의료자원을 동원해 치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대나 30대의 중증 환자들을 더 많이 치료하는 것이 옳은지 문제가 되었다. 음압병동의 부족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음압병동에서 치료받게 할지도 논란이 되었다. 백신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젊은이들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역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무것도 희망하지 않으며, 엑스터시 속에서의 인식”을 얻는다(311). 그러나 이러한 극도의 편안함 속에서도 그녀는 다른 나라에 소중한 어떤 것을 두고 왔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죽은 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 순간 편안한 느낌이 삭막하고 얼음만이 있는 대지에 누워있는 느낌으로 바뀐다(312). 미란다가 꿈꾼 천국의 꿈은 아픈 신체가 존재하는 현재가 아닌 죽음 이후의 피안일 수 있다. 그리고 지옥은 유럽 전역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이 차가운 시체가 되는 전장이나, 세계에 퍼진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들의 세계를 함께 보여준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미란다는 다시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 사이 고통이 불길처럼 그녀를 덮치고 자신이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입사 체험을 한다. 미란다는 약물이 들어오자 아파하며 소리를 치지만 그건 단지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의 일관성 없는 소리”로 여겨진다(312). 질병 속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어진다. 미란다의 신체에서 언어는 삭제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역시 고통 속에서 사라진다.⁶⁾ 공감이 사라지고 질병을 전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병원에서 미란다는 타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느낀다. 울프가 보기에 질병 특히 전염병에 걸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이지만 실제로 타자들은 공감을 전혀 반대로 느낀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독감과 같은 질병을 누군가 겪고 있다고 할 때, 환자를 아는 사람은 자신들은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의 거룩한 안도”(divine relief of sympathy)와 같은 모순된 감정을 느낀다(9). 상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면서도 나는 괜찮다는 안도 역시 생긴다.

고통을 참으며 병원에 누워있던 미란다는 엄청난 축하의 소음들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묻자 간호사는 휴전 소식이며 전쟁이 끝났음을 알린다. 하지만 이 환호의 소리들조차 미란다에게는 죽어가는 동물의 소리나 대포

6) 아감벤은 그의 『언어와 죽음』(*Language and Death*)과 『열림』(*The Open*)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인류학적 기제로 인하여 생성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떻게 예외상황에서 해체되는지를 논하고 있다.

소리로 느껴진다. 미란다에게 전염병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혼수상태로까지 갔다가 살아나 회복되어 퇴원한 후, 미란다는 군대에서 한 달 전에 온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는 아담이 미란다를 간호한 후 캠프로 돌아갔으나 독감으로 죽었으며 죽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미란다에게 꼭 알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속으로 미란다는 “아담. 이제 다시 죽을 필요는 없을 테니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한다(317). 어쩌면 아담은 자신의 죽음의 책임이 미란다에게 있다고 보고 그것을 꼭 알려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 소식에도 미란다는 기이할 정도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듯 행동한다. 물론 살아남은 그녀가 가졌을 죄의식과 실존적 전율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 여겨진다. 어쩌면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 아담이 그녀를 대신해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미란다는 전쟁에서 아담이 죽지 않고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안도를 느꼈을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종전을 맞으며 전쟁에 가지 않고 살아남았다거나 아담이 어쨌든 미란다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에 안도를 느꼈을 수도 있다. 미란다의 실존적 전율은 이 불확실한 감정에서 나온다.

IV. 결론: 질병과 전쟁의 레퀴엠

미란다는 생존했고 “더 이상 전쟁도 전염병도 없게 되었다”(317). 그러나 미란다의 기대와 달리 전쟁은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전염병은 1918년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전쟁의 고통과 전염병의 고통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종전과 팬데믹의 종언은 늘 다시 올 전쟁과 다시 올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이어진다. 미란다는 아마도 살아남은 자로서 또 다른 전쟁과 전염병을 경험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전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었고 세계는 신냉전의 산물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있

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들과 전염병에 의해 봉쇄된 도시 속 시민들의 모습의 옆에는 인간적 존엄을 상실한 시체들이 놓여져 있었다. 미란다의 경우처럼 전쟁에서나 팬데믹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죄의식과 더불어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아직 애도는 끝나지 않았고 거룩한 안도 역시 진행중이다.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며 우리는 또다른 종류의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 언젠가 저들에게 닥칠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에게 그 재난이 닥치지 않은 것에 안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전염병과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불안과 전율 속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이 두 세계사적 사건을 경험해 보고 현재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전염병과 전쟁을 다룬 문학이 교집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이다.

(강원대학교)

■ 주제어

캐서린 앤 포터,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 전염병, 전쟁, 미셸 푸코, 수잔 손탁

■ 인용문헌

- 박만성.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또 발생할까?」.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이야기』.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20. 94-109.
- 정과리. 「감염병의 철학적 의미」. 『감염병과 인문학』. 서울: 강, 2014.
- Arnold, Catharine. *Pandemic 1918: The Story of the Deadliest Influenza in History*. London: Michael O'Mara Books Limited, 2020. Print.
- Bollinger, Laurel. “Trauma, Influenza, and Revelation in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49 (2013): 364-389
- Brooker, Jewel Spears. “Nightmare and Apocalypse in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The Mississippi Quarterly*. 62.2 (2009): 213-234.
- Ciuba, Gary M. “One Singer Left to Mourn: Death and Discourse in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South Atlantic Review* 61.1(1996): 55-76.
- Davis, David A. “The Forgotten Apocalypse: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Traumatic Memory, and the Influenza Pandemic of 1918.”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43.2 (2011): 55-74.
- Foucault, Michel.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Trans. A.M. Sheridan Smith. New York: Random House, 1994.
- Harari, Yuval Noah.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2016.

- Luchi, Kodai. "Katherine Anne Porter's Faithful and Relentless Vision of Death in Pale Horse, Pale Rider." *The Southern Quarterly* 53.1 (2015): 153-70.
- Ouka, Elizabeth. *Viral Modernism: The Influenza Pandemic and Interwar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2019.
- Porter, Katherine A. "Pale Horse, Pale Rider." *The Collected Stories of Katherine Anne Porter*. Harvest/HBJ Book: New York, 2009. 269-317.
- Sontag, Susan. *Illness as Metaphor and AIDS and its Metaphors*. New York: Penguin Group, 1991.
- Youngblood, Sarah. "Structure and Imagery in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Modern Fiction Studies* 5.4 (1959): 344-352.
- Warren, Robert Penn. *Selected Essays*. New York: Random House, 1958.
- Woolf, Virginia. *On Being Ill: with Notes from Sick Rooms by Julia Stephen*. Wesleyan UP, 2012.

■ Abstract

War and Contagious Disease in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Dae-Joong Kim

(Kangwon National Univ.)

This essay endeavors to investigate the representation of contagious diseases, specifically the Spanish flu pandemic of the early 20th century, in conjunction with the catastrophic backdrop of war in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The Spanish flu pandemic was a global influenza outbreak that occurred during World War I and resulted in an estimated 20 million deaths. Literature and writers of the time were also influenced by this pandemic, although only a few modern writers represented their personal experiences of the pandemic. However, some writers bore witness to and portrayed the social phenomena and existential crises that people experienced as a result of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is essay focuses on contextualizing these two devastating events, the war and the pandemic of 1918, and utilizes theoretical insights into the human condition and the clinic system for pandemic prevention from scholars such as Michel Foucault, Virginia Woolf, and Susan Sontag. Among the writers who addressed this issue, the essay conducts a thorough analysis of Katherine Anne Porter's "Pale Horse, Pale Rider," a short fiction work imbued with symbolic and existential descriptions

of human beings pushed to the brink of humanity due to the ravages of war and pandemic.

■ Key words

Katherine Anne Porter, “Pale Horse, Pale Rider”, contagious disease, war, Michel Foucault, Susan Sontag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3년 3월 23일 ○심사일: 2023년 4월 10일 ○게재일: 2023년 4월 11일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 승 은**

I. 서론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경망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의 등장 이후 기계번역의 활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학부에서 기계번역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번역 교육에서는 외국어 숙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게 되면 과연 번역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김순미, 「신경망번역기」 29-30).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이 과제를 온라인 번역기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학생들이 활용하는 있는 기계번역을 인정하고 이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를 볼 수 있다(Bowker; Ducar and Schocket; Urlaub and Dessein). 이러한 논의는 수업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외국어 초급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빈도 높게 활용하는 경우 외국어 향상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영미권에서 수학하는 국제 학생의 경영학 수업의 경우에는 기계번역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이 쌓여 있지만 이

*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michsung@hufs.ac.kr

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번역을 통해 생산된 구문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Bowker 3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부의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학생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미 일상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번역수업에서 기계번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NMT로 대표되는 기계번역은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혁신적이며 파괴적인(disruptive) 기술이다(Urlaub and Dessein). 올라옉과 데세인은 이를 1970-1980년대에 대중화된 휴대용 전자계산기에 비유한다. 전자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전자계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자계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학생의 계산 능력이 꼭 저해되는 것은 아니며 계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46-47). 이렇게 볼 때 온라인 번역기인 기계번역도 우리에게 점점 익숙한 도구로 인식됨에 따라 기계번역이 잘하는 번역은 기계번역이 하도록 맡기고 우리는 더 숙고가 필요한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이제 번역수업에서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우커(Bowker)는 기계번역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 기계번역 리터러시(machine translation literacy)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기계번역을 제대로 이해, 평가 및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착안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개념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최근의 개념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창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협업하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운지, 김수환, 이은환). 기계번역 리터러시는 기계번역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방점이 있다(Bowker 28). 기계번역은 상황,

텍스트, 영어 구사 수준, 활용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텍스트에 기계번역이 유용하고, 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활용할지 알기 위해 학생들이 기계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도록 기계번역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바우커의 연구에서는 보안과 윤리, 기계번역 알고리즘, 다양한 기계번역 툴, 기계번역에 적합한 번역 과업, 프리에디팅 등을 교육하였다(35-36).

기계번역 활용을 논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의 결과를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 및 원문을 먼저 수정하는 프리에디팅에 초점이 주어졌으나, 포스트에디팅이나 프리에디팅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계번역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역 수업의 한영번역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기계번역을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한영번역 방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은 자신의 B언어¹⁾(여기서는 영어)에 대한 지식에 비해 이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마승혜와 성승은 91). 본고는 번역 결과물 이외에 번역 수행 과정에서의 전략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언제 기계번역이 언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
2. 학생들은 언제 기계번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3. 번역 결과물과 과정 측면에서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향후 기계번역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계번역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번역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2장에서는 학부 번역 수업에서의 기계번역 사용

1) 파리 통번역대학원 ESIT의 정의에 따르면 A언어는 통번역사의 모국어, B언어는 통번역 수행의 제1외국어이다.

현황과 B언어로의 번역에서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4장에서는 수업 결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5장에서는 번역 결과물 측면과 번역 수행 과정의 전략 측면에서 논의를 정리한다.

II. 선행연구

2.1 학부 번역수업에서의 기계번역 활용 현황

본고에서 말하는 기계번역은 구글이 신경망기계번역을 출시한 2016년 이후의 기계번역을 뜻한다. 신경망기계번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부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번역 교육의 경우 NMT가 등장한 이후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학부의 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기계번역을 한 후에 포스트에디팅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접 번역을 하기보다는 감수를 하는 것이므로 번역 능력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김순미 「신경망번역기」 29-30).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로 학부 번역 교육에서의 기계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순미 「번역 교육」; 마승혜와 성승은; 서보현과 김순영; 이상빈 「학부번역전공자」; 이상빈 「국내학부 번역전공자」; Pym; Yamada). 이상빈(「학부번역전공자」 60)은 앞으로 번역료나 기계번역 수준을 감안하면 통번역대학원보다 오히려 학부 번역전공자가 기계번역포스트에디팅 영역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번역 능력, 언어 수준, 수업의 목표 등에 따라 MT 관련 과목의 구성, 혜택을 보는 집단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김순미 「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번역 교육」 56-58; Bowker).

영어 교육에서도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미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계번역을 인정하고 이를 수업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계번역 사용의 이점을 논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Ducar and Schocket; Lee; Lee and Briggs; Lee and Lee; Urlaub and Dessein). 온라인 번역기를 휴대용 전자계산기에 버금가는 혁신적 기술로 소개한 올라웁과 데세인(Urlaub and Dessein)은 학생들의 기계번역의 사용을 막을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번역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기계번역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학습 기회로 삼아 기계번역이 언제 유용한지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교육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계번역 리터러시(machine translation literacy)를 강조하는 바우커(Bowker)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바우커는 영미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국제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기계번역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그는 보안 및 윤리, 기계번역 알고리즘과 다양한 온라인 번역기에 대한 이해, 번역의 목표·청중·상황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프리에디팅 소개 등 기계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학생들은 기계번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영번역을 비롯하여 B언어로의 번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2.2 기계번역과 B언어로의 번역 및 글쓰기에 대한 선행 연구

기계번역을 외국어로의 번역이나 글쓰기에 사용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이 자신의 글쓰기와 기계번역의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가 개선

되었음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이(Lee)의 연구에서는 학생이 자신이 한국어로 쓴 글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하고, 이후에 이를 기계번역과 비교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이 둘을 평가하였는데, 기계번역 결과와 비교하여 수정한 글이 더 점수가 높았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통해 어휘, 문법, 표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평한다. 한국 학생들이 자신이 작성한 영어에 대해 기계번역과 대조하여 언어적 오류를 수정하여 결과를 제시한 연구(Lee and Briggs)에서는 단·복수, 어휘, 전치사 등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제시했는데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통해 수정한 결과에서 오류가 줄어들어 기계번역이 문법 수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기계번역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메타언어인식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외국어의 유창성이 높아진다고 논의한 연구도 있다(Correa; Enkin and Mejias-Bikandi; Jolley and Maimone; Lee). 메타언어란 언어 자체를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한 용어로, 메타언어인식은 언어의 속성과 기능을 설명하고 언어의 속성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인데(Friesen and Bialysok 1-2) 메타언어적 인식과 능력이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ibid.). 그렇다면 메타언어 능력과 언어 능력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의 관계를 고찰한 알리푸르(Alipour)의 연구에서는 메타언어 능력은 L2(이 연구에서는 영어)의 오류를 인식·설명·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고, 언어 능력은 괄호 안에 L2의 특정 어휘를 쓰도록 하는 괄호 채우기 테스트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기반하면 메타언어인식은 번역대상 언어인 도착어(target language)나 출발어(source language)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Lee)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한영번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메타언어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자체가 학습 전반을 향상하며 자연스럽게 유창한 영어로 표현하는 실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지난 30년간의 기계번역 연구를 고찰한 결과 기계번역의 이점을 두 가지로 제시한 연구도 있었는데(Jolley와 Maimone), 곧 메타언어인식 향상과 번역 결과 및 L2의 개선이다.

기계번역의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 외에 기계번역 자체의 효과를 논한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이 학습자에게 일대일로 피드백을 주고 어휘 및 통사적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국내 대학생의 한영번역에서 기계번역 사용을 고찰한 연구(Lee and Lee)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 찾기, 자신의 표현에 대한 대안 찾기, 자신이 사용한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에 기계번역을 활용하였다고 보고한다. 특히 파파고를 사용한 학생들은 기계번역과 함께 제시되는 다양한 예를 함께 활용하며 대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기계번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계번역 결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기계번역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뎀(Pym)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계번역은 각 학생에게 맞춤형된 코퍼스와 유사한 역할을 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다(Bernardini). 이 연구는 이태리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저자는 더 다양한 언어조합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23). 그 외에도 기계번역은 정서적 측면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좀 더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Ninö). 니뇨(Ninö)는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학생들의 3/4은 기계번역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의 번역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였다(9). 유사한 맥락에서 특히 언어에 자신감이 덜한 학생들은 자신의 번역을 하기 전에 MT의 결과를 먼저 참고함으로써 부담감을 덜고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김순미 「번역 교육」 67).

물론 기계번역의 단점에 대한 논의도 있다. 기계번역은 어휘, 문법 등의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담화 차원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연구(Groves and Mundt)가 있으며, 기계번역은 언어 쌍, 텍스트 유형, 주제 분야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Godwin-Jones). 또한 학생들의 번역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논의도 있다(김순미 「신경망번역기」). 기계번역 결과에 대해 포스트 에디팅을 하다보면, 자신이 처음부터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대비하여 번역 능력 개발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29).

기계번역은 이처럼 논란이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언어적, 전략적, 정서적으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학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영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결과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언어적, 전략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는지, 혹은 번역 작업을 저해한다고 느꼈는지, 해당 사례와 함께 학생들의 저널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2022년 2학기 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결과를 고찰한다. 해당 수업에서는 기계번역과 컴퓨터보조번역(Computer-aided translation, CAT) 툴을 소개하여 영한, 한영 양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 26명의 학생은 영어통번역을 전공하거나 이중전공하는 학생들로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이며 이 중 한 명은 외국인 학생이다. 본고에서는 한영번역 결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생들은 영한번역보다 한영번역을 대체로 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마승혜와 성승은) 기계번역을 활용할 여지가 더 크다고 사료된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쌓인 것에 비해 이를 활용하여 영어 구문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수업 초기에는 간략히 기계번역의 발전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프리에디팅과 포스트에디팅의 개념을 예시 와 함께 소개하고, 번역은 해당 번역을 수행하는 목표에 따라 번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는 바우커(Bowk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 리터러시

를 위한 전반적 소개에 해당된다. 기계번역은 5주차부터 영한번역으로 시작하였고 9주차부터는 한영번역을 하였다.

수업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경제, 시사, 문화 관련 내용으로 신문 기사, 칼럼, 블로그 등에서 발췌하였다.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은 같은 주제가 반복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영한번역에서 달러 가치 상승이 주제일 때 한영번역에서도 같은 주제의 자료를 다루어 내용이 겹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영한번역 후 한영번역을 할 때 주제 지식과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²⁾ 아래는 한영번역에서 사용된 자료이다. 모두 정보 제공과 동시에 호소적 성격을 갖는 텍스트이다.

- 강달러를 넘는 방법, 중앙일보, 2022.9.20
- ‘복리의 마법’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치과신문, 2021.4.2
- 인플레이션 시대, 월급의 소중함, 한국경제신문, 2022.09.16
- “김포 집마저 날릴 판” ... ‘인서울’ 꿈꾸던 ‘빛슬람’의 비명, 한국경제신문, 2022.10.15
- 글로벌 환경에서 K-콘텐츠의 가치와 의미 철학 생성하기: K드라마와 K뮤비, K예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10.25
- NFT가 중요한 미래 트렌드인 이유, IT 동아, 2022.8.9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시작하면서 번역 저널을 함께 기록하였다. 저널의 양식은 미리 소개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바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는 번역(이하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는 각자 정하도록 하였다. 기계번역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 사례와 자신의 번역 작업을 저해한다고 느낀 사례를 해당 문장/단락을 중심으로 적고, 포스트에디팅과 프리

2) 한영번역의 한국어 자료 “달러를 넘는 방법”(중앙일보, 2022.9.20.)을 하기 전에 사용한 영한번역의 영어 자료는 “Dollar’s Rise Spells Trouble for Global Economies”(Wall Street Journal, 2022.9.18.)이다. 번역 시 해당 주제의 다른 자료도 함께 고찰하면서 배경지식과 관련 표현을 익히도록 하였다.

에디팅을 통해 수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도록 하였다.

제출한 저널 양식의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1. 인간번역, 기계번역 중 어떤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기계번역 결과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된 경우는 언제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쓰고 자신의 번역과 비교하시오. 프리에디팅 및 포스트에디팅 결과를 함께 소개하시오.
3. 기계번역 결과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쓰고 자신의 번역과 비교하시오. 프리에디팅 및 포스트에디팅 결과를 함께 소개하시오.

IV. 분석결과

4.1 인간번역 먼저 vs. 기계번역 먼저

저널 분석 결과,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하기 전 인간번역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약 57.7%(15명)가 인간번역을, 30.8%(8명)는 기계번역을 선호했고, 11.5%(3명)는 확실한 선호가 없다고 하였다. 인간번역을 선호한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먼저 하면 그 결과가 이미 머릿속에 남아서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번역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기계번역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장 단위로 번역이 되다 보니 글 전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어지지 않기도 한데, 기계번역을 먼저 하고 인간번역을 하면 이러한 부분이 계속 기억나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기계번역을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 학생들은 번역의 속도와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어휘나 표현, 문장 구조를 제시하여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제 기계번역이 유용하다고 생각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여긴 경우를 예시를 통해 보고자 한다. 기계번역은 파파고나 구글 번역 중 원하는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4.2 기계번역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경우

1) 통사 구조

<예 1>

ST: 다음달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제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포워드 가이드스(금리 정책방향 사전 제시)는 25bp(1bp=0.01%포인트) 인상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50bp 인상 전망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MT³⁾: However, as the U.S. and other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tightening intensity,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a 50-bp increase.

as ... ,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서 문장의 구조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학생은 기계번역을 자신의 인간번역과 비교하며 기계번역이 통사 구조를 잘 잡는다고 평가하였다. 학생이 직접 수행한 번역(인간번역)은 “But as the U.S. and many other countries are stepping up their tightening measures, it is likely that the BOK come up with a 50-bp increase”이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구조를 기계번역이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예 2>

ST: 이렇게 복리로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복리의 마법’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3) MT는 기계번역을 뜻한다.

MT: Long-term investment with compound interest can make a big profit.

“장기 투자하다”라는 서술어를 기계번역이 주어로 처리한 것이 영어스러운 표현이 되어 마음에 들었다.

이 예는 원문이 복잡한 구조는 아니지만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서술어를 영어에서 주어로 처리한 점을 언급하였는데, 영어의 언어 구조를 생각하는 메타언어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 3>

ST: 라잔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인도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국제경제 분야의 석학이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 시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과 강달러가 미국 외 나머지 국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MT: When he was governor of the Indian Central Bank, he strongly criticized the U.S. Federal Reserve's monetary policy and strong dollar for shocking the rest of the country.

흔히 표현하는 문장의 구조를 잘 짜주었다고 생각하는 번역이다. 무엇보다 총재 시절의 번역을 간단하지만 정확한 ‘when he was governor~’으로 표현했다. 이상태로 뒤도 괜찮지만 동사를 ‘served as’와 같이 보다 고급지게 바꾸어 줄 수 있어서 MT를 활용해 다듬기 좋다.

학생은 이처럼 기계번역이 제시한 구조를 기반으로 표현을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인도 중앙은행을 검색하여 Indian Central Bank를 Reserve Bank of India로 수정하였다고 기록했다. 이하 각 예에서는 기계번역의 오류를 수정한 과정을 모두 소개하지는 않으며, 해당 항목과 관련된 내용만 중점적으로 논한다.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2) 단어·구·관용어

<예 4>

ST: “아직 강달러는 초기 단계다.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국제경제의 취약성은 커질 것이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월 스트리트저널(WJS)의 19일자 기사 ‘세계 경제의 문제가 된 달러가치 상승(Dollar's Rise Spells Trouble for Global Economics)’에서 한 말이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MT: The strong dollar is still in its infancy.

“infancy”는 원래 유아기라는 뜻을 가진다. 발달 면에서 ‘초창기’로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적절하게 잘 번역한 것 같다.

학생의 글을 보면 어휘의 지시적 의미 이외에 비유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언어 표현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잇는 어느 점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김종도 67) 이 역시 메타언어인식에 속한다.

<예 5>

ST: 금리를 올리면 원화가치 하락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MT: Raising interest rates has the effect of easing the won's depreciation.

나의 첫 인간번역은 raising the base rate helps to stop the falling of the won's value. 이었다. ‘완화’라는 동사를 영어사전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relax, relieve, alleviate, soften 등등), 이 중에서 문맥에 적절한 동사인 ease를 사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세를 depreciation이라는 단어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것도 좋았다.

이 예에서 학생은 기계번역의 결과를 자신의 결과와 비교하며 어느 것

이 나은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처럼 기계번역을 일종의 동료 피드백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추후 더 논의할 것이다.

3) 문법

<예 6>

ST: 전문가들이 전하는 테슬라주가의 하락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테슬라가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김포 집마저 날릴 판” ‘인서울’ 꿈꾸던 ‘빛슬람’의 비명)

MT: First of all, Tesla is a growth stock vulnerable to interest rate hikes.

부정관사가 와야 하는 자리에 부정관사를 알맞게 사용하였고 복수형이 자연스러운 명사(interest rate hikes)에는 복수형을 사용해주었다.

학생은 이 예에서 기계번역이 관사를 잘 사용하여 자신도 이에 따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학생의 글에서 문법적 오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Lee & Briggs). 본고의 한 학생 저널에서도 기계번역이 기본적인 문법 실수가 적다고 언급하였다. 기계번역은 그러나 관사의 사용 등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곧 다시 살펴볼 것이다.

4) 용어·고유명사

<예 7>

ST: 라잔 교수는 신흥국 경제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미국발(發) 고금리와 강달러로 신흥국 국가와 기업들이 값이아 할 달러 표시 부채의 부담이 늘었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MT: US high interest rates and the strong dollars have increased the burden of dollar-denominated debt owed by emerging countries and companies.

‘달러 표시 부채’라는 용어는 한국어로도 생소해서 인간번역만으로 처음부터 검색을 통해 찾으려고 했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파과고를 사용하여 이 단어가 맞는지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미국발’, ‘강달러’, ‘신흥국’, ‘달러 표시 부채’까지 경제용어들이 다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들을 잘 사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편한 번역이 가능했다. 하지만 US high interest rates나 strong dollars와 같이 어색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예시에서 소개된 2명의 저널에서 학생들은 빈도 높게 사용되는 용어를 기계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평하였다.

<예 8>

ST: 둘째, 기준금리 인상.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 하락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강도가 세졌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MT: Second, raising the benchmark interest rate.

위 문장에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문장 구성에 더불어 기준금리를 ‘benchmark interest rate’로 번역한 사실이다. 이전 과제들을 통해 기준금리가 경제용어 사전에서도 base rate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로 대체어를 따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계번역에서 benchmark interest rate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오역인가 싶었으나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니 똑같이 기준금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번역이 도움이 되었다.

학생의 저널에서 영어에서 지시 대상을 여러 표현으로 다르게 지칭하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처럼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수업에서도 전통적인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는) 수업과 같이 영어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논

의를 할 수 있다.

4.3 기계번역이 유용하지 않다고 한 경우

학생들이 기계번역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 경우’와 유사한 항목이 제시되었다. 다만 통사 구조와 관련되어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잡아줬다”고 기술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주어를 잘못 잡는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1) 맥락 파악 부족

<예 9>

ST: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명목임금)는 높아질 것이다. (중략) 근로소득의 소중함은 당장의 숫자로만 계산하기 어렵기도 하다. (인플레이션 시대, 월급의 소중함)

MT: The importance of earned income is sometimes difficult to calculate only by the number of people right now.

People 얘기가 아닌데 기계번역에서는 어떤 numbers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넣어준 것 같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오역이 발생했다. by numbers 로 수정해야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통한다.

<예 10>

ST: 강달러를 넘는 방법(“강달러를 넘는 방법”)

MT: A way of exceeding a strong dollar

기계번역은 ‘넘다’를 exceed로 이해해서 번역함. 기계번역이 글의 전체적인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문맥 파악을 할 수 없기에 번역가의 포스트에디팅이 필수적이다. Ways to respond to the strong dollar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기계번역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히 언급되었는데 주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어휘가 해당 맥락에서 사용된 의미를 파악하는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예 11>에서는 한국어에서의 ‘넘다’를 exceed로 번역하여 한계를 극복한다는 더 확장된 뜻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논했다.

2) 단어·구·관용어

<예 11>

ST: 실제 테슬라의 PER은 80배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1000배에 달했던 수치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김포 집마저 날릴 판” ... ‘인서울’ 꿈 꾸던 ‘빛슬람’의 비명)

MT: Considering the number that was once 1,000 times higher, it's an everything.

기계번역이 ‘격세지감’이라는 관용어를 제대로 살려 번역하지 못했다. 맥락에서 격세지감의 의미를 살펴보면 테슬라의 PER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기계번역은 이 맥락을 살리지 못해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리려면 ‘it's an everything’대신 ‘it's indeed a big-nose dive’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수업에서는 “격세지감”과 같은 관용구나 사자성어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3) 문법

앞에서는 기계번역의 단·복수 및 관사 사용이 적절해서 도움이 되었다

는 사례가 있었지만 잘못 번역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예 12>

ST: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올리고 시중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포 집마저 날릴 판)

MT: The prospect that the Federal Reserve (Fed), the U.S. central bank, will take the “Giant Step” for the fourth consecutive time next month (0.75 percentage points at a time) is gaining momentum.

이 문장에서는 the Giant Step보다는 a Giant Step이 맞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취하는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므로 a가 맞고, giant step으로 소문자로 써야 한다. MT가 이렇게 오히려 찾기 힘든 작은 실수를 함으로써 번역에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4) 용어·고유명사

<예 13>

ST: 어떤 정보나 데이터 등을 NFT로 만드는 행위를 ‘민팅(minting)’이라 한다. (NFT가 중요한 미래 트렌드인 이유)

MT: The act of making certain information or data into NFT is called ‘mining.’⁴⁾

원문에는 괄호 안에 이미 “minting”이 나왔지만 기계번역에서는 “mining”이라고 오역하는 점에서 기계번역의 약점을 볼 수 있다.

4) 해당 기계번역은 2022년 2학기에 수행한 것인데 2023년 4월 17일에 확인한 결과, 구글 번역과 파파고 모두 “minting”으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기계번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는데 시간에 따른 기계번역 결과의 개선 사례는 이성화와 김세현을 참조한다(131-132).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기계번역의 경우 양질의 번역 데이터가 쌓여야 완전한 번역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만큼의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민팅”과 같이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어휘는 기계번역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하여 기계번역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Policy Board), 라구람 라잔(Rahguram Rajan) 교수의 인명과 국제금융협회 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명칭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언급되었다. 학생들은 기계번역 결과를 잘못 파악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래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한다.

4.4 기계번역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경우

학생의 이해 부족으로 기계번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들로 영어 텍스트의 관행에 대한 지식 부족, 배경지식 결여, 메타언어인식 부족으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예 14>

ST: 아직까지 한국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았고, 거시경제도 비교적 순항했으며 해외 순채권국이라는 위상도 도움이 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 등 덕분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강달러를 넘는 방법)

MT: Bloomberg reported on the 19th that South Korea and other emerging Asian countries are relatively doing well thanks to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날짜 표기법이 달라 매번 포스트에디팅을 해야 했다. 한국 텍스트에선 월까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어 텍스트와는 대비된다. 기계번역이 이런 디테일까지 반영해서 번역하게 되는 날이 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이 예에서 학생은 “19일 보도 했다”는 문장에 대해 월까지 표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영어 기사에서는 가까운 시일을 지칭할 때는 요일로 표시하기도 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가까운 시일을 요일로 표시하는 것을 알고 “MT는 19일을 화요일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쓴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영어 신문 기사의 관행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⁵⁾ 어휘, 문법, 통사 차원의 번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담화 전체에 대한 것이다(Groves and Mundt).

<예 15>

ST: 실제 테슬라의 PER은 80배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1,000배에 달했던 수치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테슬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한때 1,000배를 넘나들었습니다. (김포 집마저 날릴 판)

MT: Tesla has been worth its price-to-earnings multiple of about 1000.

‘주가수익비율이 ~배를 넘나들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기계번역은 이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특정 구문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계번역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 예는 테슬라의 PER(price-to-earnings ratio)이 한 때는 1,000배였

5) 아래 CNN 기사에서 가까운 시일은 요일을 쓰고 있다(“What to expect from this week’s Fed meeting” 2022.12.13). 밑줄은 연구자의 것이다.

The Federal Reserve is expected to raise interest rates by half a point at the conclusion of its two-day policy meeting on Wednesday, an indication that the central bank is pulling back on its aggressive stance as signs begin to emerge that inflation may be easing. (중략)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Bank of England and the Swiss National Bank are expected to follow the United States with half-point moves of their own on Thursday. (중략) The Federal Reserve announces its rate hike decision Wednesday at 2 p.m., followed by a press conference with Chair Powell at 2:30 p.m.

(<https://edition.cnn.com/2022/12/13/economy/federal-reserve-december-meeting/index.html>).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는데 80배 선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므로 기계번역 결과는 오류이다. 학생이 기계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한 것은 해당 배경지식 부족 내지는 기계번역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결과이다. 배경지식 보유와 기계번역에 대한 검증이 중요함을 다시 볼 수 있다. 핼(Pym)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 기술이 확산되는 시기에 중요한 스킬로 데이터의 진위를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는 학생의 메타언어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단어/구문에 대한 문자적 의미 외에 비유적 의미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예 16>

ST: 조직사회의 괴롭힘 문화는 'D.P.'를 낳았고, 경쟁 사회의 위험성과 피곤함은 '오징어 게임'을 낳았다. (글로벌 환경에서 K-콘텐츠의 가치와 의미 철학 생성하기: K드라마와 K무비, K예능)

MT: The bullying culture in the organized society gave birth to "D.P.," and the dangers and tiredness of the competitive society gave birth to "Squid Game."

출발텍스트에서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을 직역으로 'gave birth'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한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지 못했다.

수업에서 이 부분을 고찰하면서⁶⁾ 학생들은 이 어휘를 사전에서 검색해 봐도 문자적 의미 이외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표현에서도 사용함을 보았으며, COCA⁷⁾와 같은 툴의 검색을 통해서도 확장된 비유적 의미

6) 수업에서 다룰 번역을 학생들이 미리 번역하여 과제로 제출하였고 수업에서는 번역 결과를 논의했다.

7) COCA는 Contemporary American Corpus 이 약자로, 예컨대 "give birth to" 이 후에 나오는 명사(구)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COCA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창

로 사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고는 국내 학부의 한영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기계번역의 결과물 측면과 번역 수행 과정의 전략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체로 통사 구조, 단어·구·관용어, 문법, 용어·고유명사가 있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도 유사한 항목이었다. 학생들은 기계번역으로 특히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길고 복잡한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기려면 막막할 때가 있는데 기계번역의 통사 구조를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한편, 통사 구조 관련 기계번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언급 중 다수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주어를 잘못 인식해서 문장 구조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단어·구·관용어에 대해서는 기계번역 결과를 자신이 한 번역과 비교하여 자신이 선택한 어휘가 적절한지 확인하거나 기계번역을 통해 대안을 찾았다. 이때 기계번역이 제시한 어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어휘의 의미장을 고려하여 문자적 의미에서 더 확장된 의미에 대해 탐색하기도 하였다.

문법 역시 기계번역이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고,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경우 학생들은 왜 오류인지를 논의하며 해당 문법 내용을 다시 점

수를 참조한다.

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이 학생의 문법 오류를 상당 부분 수정해 준다는 논의가 있었는데(Lee; Lee and Briggs), 본고에서 논한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의 오류를 통해 영어의 문법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용어나 고유명사도 기계번역 결과가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가 모두 발견되었다. 두 경우 모두 기계번역 결과를 다시 검색해서 적절한 어휘를 찾기도 하고, COCA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활용한 컴퓨터보조번역(CAT) 툴의 텀베이스(termbase, 용어집)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기계번역의 결과를 잘못 파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영어 텍스트 유형의 관행에 대한 지식 부족, 배경 주제 지식 결여, 메타언어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기계번역이 미시적인 언어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담화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Groves and Mundt, 117-120; Lee 168-169)처럼, 영어 텍스트 유형의 관행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계번역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계번역 결과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수업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기계번역의 결과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번역 수행 과정에서의 전략과 정서적 측면에서 기계번역이 도움이 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학생들은 기계번역을 통해 메타언어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기회를 가졌다. 선행연구에서도 기계번역의 사용은 메타언어인식과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lley & Maimone; Lee).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어휘의 문자적 의미와 그 이면의 의미를 생각하거나(예 4) 한국어에서 특정 문장성분이 영어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영어스러운’ 표현을 논하면서(예 2) 언어 자체와 영어와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 표현에

서의 부족한 점을 알아차리고(noticing), 이를 수정하기 위해 검색하여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고(retrieving), 이후 자신의 구문을 만들어내는 것(creating)으로 볼 수 있다(Lee 170).

둘째로, 기계번역은 일종의 동료 피드백의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기계번역은 학우를 통해서는 얻지 못하는 동료 피드백의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는데, 이는 언어로 실험을 하고 놀이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Correa 15). 수업에서의 동료 피드백이나 기계번역의 결과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번역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Lee 168). 본고에서도 기계번역이 꼭 오류 없는 번역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자신의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 기계번역을 자신의 번역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번역을 다른 시선으로 검토하였다(예 5, 예 8). 학생들은 또한 기계번역을 기반으로 또 다른 대안을 탐색하기도 하였다(예 3).

셋째로, 기계번역은 한영번역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줄여준다. 학생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할지 모를 때 구조를 잡아주며 용어를 제공해 주어서 한영번역 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계번역이 심리적 부담을 낮추어 준다는 논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김순미 「신경망번역기」; Niño). 한 학생은 기계번역의 결과를 참고하며 “편안하게 내 방식대로 번역을 할 수 있었기에 기계번역을 참고한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기계번역은 메타언어인식 향상을 통해 출발어와 도착어의 유창성을 확대하며 동료 피드백의 역할을 하고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법을 수정하고 통사 구조, 어휘 및 표현을 개선하여 번역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기계번역은 번역 결과물의 품질 향상과 번역과정에서의 전략적,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번역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기계번역의 작동 원리와 기계번역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텍스트 유형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등 기계번역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계번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관련 도구를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COCA와 텀베이스를 논하였는데, 온라인 번역기를 인정하고 수업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 중에서는 온라인 사전 WordReference나 사전 기능과 함께 두 언어의 문장쌍을 보여주는 *linguee* 등의 활용을 강조하기도 한다(Ducar and Schocket).

우리는 본고를 통해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수업에서도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하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았다. 통사 구조, 단어·구·관용어, 문법, 용어·고유명사 등의 텍스트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물론, 번역 과정에서 메타언어인식을 향상하고 동료 피드백과 같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어로의 번역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한 학생은 저널에서 기계번역은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였는데, 신속하고 편리한 이점은 있으나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인간 번역자가 기계번역에 잠식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계번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번역 리터러시를 갖추고, 관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기계번역의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소규모의 인원과 적은 양의 데이터로 기계번역이 결과물과 과정 측면에서 유용성을 살펴보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업에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계번역이 전략적, 정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대상 인원을 늘리고 텍스트 유형을 한정하며 영한번역 방향으로도 고찰하면 더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 주제어

기계번역, 한영번역, B언어로의 번역, 기계번역 리터러시, 메타언어인식, 동료 피드백

■ 인용문헌

- 김순미. 「신경망번역기 (NMT)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3 (2017): 5-37.
- 김순미. 「번역 교육 지원 도구로서 기계번역(MT) 활용 - 한영번역 포스트 에디팅(MTPE) 수행에 대한 학습자 태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2021): 51-80.
- 김종도. 『인지언어학적 원근법에서 본 은유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마승혜, 성승은. 「다단계 기계번역을 활용한 비전문가 번역 품질 향상 방안 모색-학부 실습 과정 및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4 (2019): 83-113.
- 서보현, 김순영. 「번역사의 번역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1.3 (2020): 63-91.
- 이상빈.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2017): 37-64.
- 이상빈. 「국내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 (process) 및 행위 연구」. 『번역학연구』 19.3 (2018): 259-286.
- 이성화, 김세현. 「영-한 및 한-영 기계번역 품질향상을 위한 프리에디팅 기법 제안」. 『번역학연구』 19.5 (2018): 121-154.
- 이운지, 김수환, 이은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교육연구논총』 40.3 (2019): 201-221.
- 이창수. 「한영번역 교육에서의 영어코퍼스 활용 방안 연구 - COCA 활용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2014): 403-423.
- Alipour, Sepideh. "Metalinguistic and Linguistic Knowledge in Foreign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Language Learners.”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12 (2014): 2640–2645.

Bernardini, Silvia. “Discovery Learning in the Language-for-translation Classroom: Corpora as Learning Aids.” *Cadernos de Tradução* 36 (2016): 14–35.

Bowker, Lynne.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Students and Business English Instructors.”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25.1-2 (2020): 25–43.

Correa, Maite. “Leaving the “Peer” out of Peer-editing: Online Translators as a Pedagogical Tool in the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Classroom.” *Latin American Journal of Content &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7.1 (2014): 1–20.

Ducar, Cynthia and Deborah Houk Schocket. “Machine Translation and the L2 Classroom: Pedagogical Solutions for Making Peace with Google Translate.” *Foreign Language Annals* 51.4 (2018): 779–795.

Ellis, Rod.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L2 Explicit Knowledge.” *Language learning* 54.2 (2004): 227–275.

Enkin, Elizabeth, and Errapel Mejias-Bikani. “Using Online Translators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Ideas for Advanced-level Spanish.” *Latin American Journal of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9.1 (2016): 138–158.

Friesen Deanna C. and Ellen Bialystok. “Metalinguistic Ability in Bilingual Children: The Role of Executive Control.” *Riv Psicolinguist Appl.* 12.3 (2012): 47–56.

Godwin-Jones, Robert. “Contributing, Creating, Curating: Digital

- Literacies for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9.3 (2015): 8–20.
- Groves, Michael and Klaus Mundt. “Friend or Foe? Google Translate in Language for Academic Purpo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7 (2015): 112–121.
- Jolley, Jason R., and Luciane Maimone. “Thirty Years of Machine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L2 Journal* 14.1 (2022): 26–44.
- Lee, Giin and Byungmin Lee. “Characteristics of Eight Korean EFL Young Adults’ L2 Writing Using Machine Translation Program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2 (2021): 34–58.
- Lee, Sangmin–Michelle. “The Impact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on EFL Students’ Writing.”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3.3 (2020): 157–175.
- Lee, Sangmin–Michelle and Neil Briggs. “Effects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to Mediate the Revision Proc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Writing.” *ReCALL* 33.1 (2021): 18–33.
- Niño, Ana. “Machine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ers’ and Tutors’ Perceptions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CALL* 21.2 (2009): 241–258.
- Pym, Anthony.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58.3 (2013): 487–503.
- Urlaub, Per and Eva Dessen. “From Disrupted Classrooms to Human-machine Collaboration? The Pocket Calculator, Google Translate, And the Future of Language Education.” *L2 Journal* 14.1 (2022): 45–59.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Yamada, Masaru. “Can College Students be Post-editors? An Investigation into Employing Language Learners in Machine Translation Plus Post-editing Settings.” *Machine Translation* 29 (2015): 49–67.

■ Abstract

Using Machine Translation in the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room: What Kinds of Help Do Korean Students Get in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Sung, Seung-eu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benefits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for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Translation into B languages, English in this case, is often regarded as more difficult than translation into one's mother tongue. This paper examines machine translation in terms of the end product and the process. The analysis draws from the translations and commentaries of twenty-six undergraduate students during the fall semester of 2022.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although machine translation is not always accurate and readable, the students were still able to learn from it. They used machine translation as peer feedback to selectively choose expressions and explore different options, which led to enhanced metalinguistic awareness. This helped them to use more authentic and contextualized expressions and improve grammatical accuracy. Using machine translation also served to lower student anxiety and establish a more nonthreatening learning environment. In this regard, machine translation can enhance Korean-into-English

- 학부 한영번역 수업에서는 기계번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성승은

transl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both the product and process.

■ Key words

machine translation,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translation into B languages,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metalinguistic awareness, peer feedback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3년 3월 27일 ○심사일: 2023년 4월 11일 ○게재일: 2023년 4월 11일

신라 향가 번역의 형식에 관하여: 케빈 오록의 영어번역을 기반으로*

이 상 빈**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신라 향가(鄕歌)의 영어번역, 특히 번역의 ‘형식’을 논한다. 여기서 형식¹⁾이란 연(聯, stanza)과 행(行, line)의 형태, 특정 행의 감탄사 사용, 행의 시작 방식 등과 같이, 향가 번역에서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구조/형태적 요소를 뜻한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다양한 고전시가²⁾를 번역한 **故 케빈 오록(Kevin O’Rourke)**의 영어번역본이다. 다만 논문 일부에서는 상세한 논의를 위해 다른 역자의 번역도 살펴본다.

케빈 오록(1939~2020)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로서 1964년 춘천의 한 성당에서 국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 말부터는 경희대 영문

*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2023.04.22.)에서 소개되었다. 이 연구는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NRF-2021S1A5A2A01061942).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sblee0110@naver.com

1) ‘형식’은 문학 작품에서 외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운율, 장, 절 등을 뜻하는 개념이다(「형식」).
2) 고전시가(古典詩歌)란 “외형률을 가진 운문인 노래를 가리키는 문학양식”을 뜻한다(「고전시가」).

과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1982년에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는 한국문학작품을 본격적으로 번역하였고,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 서울명예시민상, 보판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오록은 생전에 2,000수가 넘는 시를 번역한 시가 번역 전문가였다. 「원왕생가」, 「처용가」 등의 향가와 「성산별곡」, 「사미인곡」 등의 가사(歌辭)를 비롯해, 이규보의 한시(漢詩), 김삿갓 시, 나아가 조병화, 서정주 등의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번역하였다. 하지만 오록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은 매우 미미했다. 그의 번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아티클(article) 형태의 논문은 두 연구(김순영; 이상빈, 「케빈 오록」)를 제외하면 찾기가 어렵고, 오록을 다른 역자와 함께 다룬 논문도 손에 꼽을 정도다(예: 강혜정; 박진임; 안영훈). 게다가 오록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시조나 한시처럼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오록의 시조 번역과 관련된 이상빈의 연구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상빈에 따르면, 오록은 형태적 등가(formal equivalence) 구현이 불가능한 시조의 3장(초장, 중장, 종장) 구조와 종장의 첫 구 3음절을 영어로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두고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케빈 오록」).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오록의 시조 번역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의 번역은 (1) 장 구분, 들어쓰기, 종장 첫 구, 대소문자 구분 등에 있어 원문과 큰 차이를 보이며, (2) 다른 역자의 시조 번역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3) 구조적 측면에서 두 번이나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이상빈은 시조를 영역할 때 고려할 문법적, 구성적 요소를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필자는 다른 고대 시가 분야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번역 실무와 학술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케빈 오록의 향가 번역과 관련해, 본 논문이 다룬 연구질문(주제)은 다음과 같다.

1. 오록의 번역은 원문과 비교할 때 형식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2. 오록의 번역은 다른 역자의 번역과 비교할 때 형식 면에서 특징이 있는가?
3. 오록의 번역은 형식 면에서 통시적 변화가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문 2장에서는 향가의 형식을 간략히 설명한 후, 고대 시가문학의 형식을 번역의 맥락에서 논의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연구 질문 세 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례로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향가의 형식

향가는 고려속요, 가사, 시조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고전시가를 이루는 대표적인 문학 장르(영역)이다.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된 시가문학이며, 향찰(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로 표기된 것이 특징이다. 현전하는 향가는 총 25수인데, 이 가운데 14수는 신라 향가이고 11수는 고려 향가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향가 14수, 즉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모죽지랑가」, 「원가」, 「처용가」, 「혜성가」, 「도천수관음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원왕생가」, 「우적가」이다.

향가의 형식은 흔히 4구체(「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8구체(「모죽지랑가」, 「원가」, 「처용가」), 10구체(「혜성가」, 「도천수관음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원왕생가」, 「우적가」)로 나뉜다.³⁾

3)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의 분류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케빈 오록, 피터 리 등의 역자들이 소개한 일반적 관점만을 다룬다.

이 중 10구체와 8구체는 하위 구조를 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구체 향가(‘사뇌가’라고도 함)는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제1장과 제2장은 각 4행(구)으로 구성되고, 제3장은 2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부 구조에서 제3장을 빼면 8구체 향가가 된다. 10구체 향가의 제3장(9행과 10행)을 ‘낙구’, ‘후구’ 또는 ‘격구’라 하는데, 그 첫머리에는 대개 “아아”와 같은 감탄사가 등장한다. 「원왕생가」를 통해 10구체 향가의 숨은 구조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달이 어찌서
서방까지 가시겠읍니까.
無量壽佛 前에
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 여기까지 제1장(4행)
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願往生願往生
두 손 곧추 모아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 여기까지 제2장(4행)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 여기서부터 낙구/제3장(2행). “아아”는 감탄사
四十八大願 이루실까. (김완진 118-119; 밑줄 친 부분은 필자의 것)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누구나 동의하는, 확립된 이론이 아니다.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의 관계)을 달리 보는 학자도 있고, 낙구와 감탄사에 관한 이견도 존재한다. 일례로, 서울대 김성규 교수는 「향가의 구성 형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향가는 형식 면에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土田杏村(1929), 小倉進平(1929) 등이 편의상 붙인 명칭을 답습한 것이다. 향가 자체는 기원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10구체 향가의 제9구 앞에 기록되어 있는 “後句, 後言, 隔句, 落句”라는 시 형식에 대한 표현을 문제 삼아, ‘隔句’ 등으로 표현된 부분이 後句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後句, 隔句, 落句’에 보이는 ‘句’의 길이를 시 형식 설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두 개의 句로 나뉘었던 단위를 하나

의 句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에 ‘4+4+2(後句)’로 이해되던 10구체 향가가 원래는 ‘3(2+후렴)+3(2+후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177)

외국인 번역가들도 향가의 형식을 똑같은 시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논문 4장에서 자세히 볼 텐데, 케빈 오록은 향가의 형식을 조금 느슨한 것으로 봤던 반면, 피터 리(Peter H. Lee)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 해석하였다.

2. 고전 시가문학 번역의 형식과 관련된 연구

고전시가의 형식을 한영 번역의 맥락에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고전시가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대개 형식의 변화가 필연적이지만, 그간의 연구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거나 형식을 다른 주제와 함께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임주탁은 황진이 시조의 내용과 형식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면서 영어번역의 양상과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만한 논문은 이상빈(「케빈 오록」; “In Search of an Ideal *Sijo*”)일 것이다. 이 두 논문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오록의 영역을 기반으로 시조 원문의 형식이 번역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논한 것이다. 오록의 번역은 아래 황진이 시조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 면에서 독특하다.

동지(冬至) ㅅ 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리차드 러트(Richard Rutt)를 비롯한 여러 번역가의 번역 형식(아래)

I will break in two the long strong back of this long midwinter night,	초장 (2행)
Roll it up and put it away under the springtime coverlet,	중장 (2행)
And the night that my loved one comes back again I will unroll it to lengthen the time. (Rutt 77)	종장 (2행)

케인 오록의 번역 형식(아래)

I'll cut a piece from the waist of this interminable eleventh moon night, and wind it in coils beneath these bed covers, warm and fragrant as the spring breeze,	초장(2행)
coil by coil	중장(1행)
to unwind it the night my lover returns,	종장 (2행)
	첫 구 나머지

이처럼 오록은 시조의 형식을 초장 2행, 중장 1행, 종장 2행으로 번역하였다. 위 사례에서는 중장을 1행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장에만 들어쓰기를 하였고, 각 행을 (다른 일부 역자처럼)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았다. 종장 첫 행은 3단어/3음절인 coil by coil로 만들어, 시조의 첫 구 3음절 (“아희야”, “두위라”, “하믈며”)와 같은 감탄어, 호격어 등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처럼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 번역한 것은 오록이 시조의 근원을 가곡창(5행의 노랫말 배열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이다.⁴⁾

물론 위와 같은 형식을 오록이 처음부터 만들어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도 제법 오랫동안 다른 번역가들이 사용했던 형식(예: 위에서 제시한 3연 6행 구조)으로 시조를 번역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두 차례나 형식을 바꿨고, 90년대 중반부터 사망 전까지는 위에서 소개한 초장 2행, 중장 1행, 종장 2행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종장 첫 구와 관련해서는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면 종장 첫 3음절을 번역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기존 번역의 종장 첫 행을 3음절(또는 세 단어)이나 3음절에 가깝게

4) 조태성의 논문은 오록의 번역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정하였다.⁵⁾ 물론 영어와 한국어의 근원적 차이로 인해 종장 첫 3음절을 영어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조 번역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약 84%의 번역에서 종장 첫 행의 음절(또는 단어)이 2~4 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분석대상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오록의 향가 번역을 최대한 파악·수집하고자 하였다. 오록은 신라 향가 14수를 모두 번역해 『The Book of Korean Poetry: Songs of Shilla and Koryo』(2006)에 담았는데, 그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록의 신라 향가 14수 번역(향가 나열 순서는 2006년 역서를 따름)]

원문	길이	영어 제목	출간 연도		
서동요	4구	Sōdong's Song	2005	2006	
혜성가	10구	Comet Song		2006	
풍요	4구	Song of the Wind		2006	
도천수관음가	10구	Song to the Goddess of Mercy		2006	
모죽지랑가	8구	Song in Praise of Lord Chukchi		2006	
헌화가	4구	Presenting the Flowers	2005	2006	
원가	8구	Song of a Bitter Heart		2006	

5) 가령, 한 시조의 종장을 아래와 같이 교정한 바 있다(Sang-Bin Lee n.p.).

However important love may be,
must one follow a host of lovers around?

Important,
though love may be, must one follow a host of lovers around?

도솔가	4구	Song of the Tsita Heaven			2006	
제망매가	10구	Ritual Service for a Dead Sister			2006	2013
안민가	10구	Appeasing the People			2006	
찬기과랑가	10구	Song in Praise of Lord Kip'a	2001		2006	
원왕생가	10구	Song in Search of Eternal Life			2006	
우적가	10구	Meeting with Bandits	2001		2006	
처용가	8구	Ch'öyong's Song	2001	2005	2006	2013

오록의 향가 번역은 2006년 역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Mirrored Minds』(2001), 『A Hundred Love Poems from Old Korea』(2005), 『My Korea: Forty Years Without a Horsehair Hat』(2013)에서도 향가 번역 몇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이러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역자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신라 향가를 연구한 주요 역자의 번역을 최대한 모았다. 오록의 번역과 비교할 수 있는 번역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록의 신라 향가 번역과 비교할 수 있는 번역]

원문	오록의 번역과 비교할 수 있는 번역(숫자는 출처 페이지)
서동요	Hoyt (38); Lee (Columbia 9); Kiaer (24)
해성가	Lee (Columbia 10); Kiaer (48)
풍요	Lee (Columbia 11)
도천수관음가	Zong (3); Hoyt (39-40); Lee (Columbia 20)
모죽지랑가	Rutt (86); Lee (Columbia 13); Kiaer (54)
현화가	Lee (Columbia 14); Kiaer (27)
원가	Lee (Columbia 15)
도솔가	Lee (Columbia 16)
제망매가	Hyun (40); Rutt (85); Zong (3); Wilson (58); Hoyt (39); Lee (Columbia 17); Kiaer (30); Pettid and Cha (페이지 없음)

안민가	Lee (Columbia 18); Kiaer (37)
찬기파랑가	Hyun (38); Lee (Columbia 19); Kiaer (58)
원왕생가	Lee (Columbia 12); Kiaer (33)
우적가	Hyun (39); Lee (Columbia 21); Kiaer (51)
처용가	Hyun (41); Zong (4); Chung (97); Hoyt (40-41); McCann (20-21); Lee (Columbia 22); Kiaer (41)

두 곳 이상에 수록된 번역의 경우 [표 2]에는 하나만 담았다. 예를 들면 피터 리의 향가 번역은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Poetry』(2002)뿐만 아니라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1980),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2003)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 간에는 향가의 구조적 차이가 없어, 본고에서는 편의상 2002년 역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 장에서 제시할 향가 ‘원문’, 즉 향찰 텍스트의 한역본은 김완진의 『향가해독법연구』(1980)에서 발췌한 것이다. 향가 한역본은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향가의 형식만을 논하기 때문에 형식만 같다면 어떤 한역본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향가해독법연구』는 오록이 원문으로 사용한 책이기도 하다(*The Book xv*).⁶⁾

IV. 분석 내용

1. 오록 번역의 형식상 특징

향가 원문과 케빈 오록의 번역을 비교한 결과, 시의 형식에서 다음과 같

6) 오록은 『향가해독법연구』와 『鄉歌新解讀研究』(강길운)를 원문으로 활용하였다. 비전문가에게는 『향가해독법연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오록은 원문의 행(구) 수와 번역의 행 수를 무조건 맞추지 않았다. 향가 14편 중 11편은 전체 행 수를 맞췄으나 「혜성가」, 「도천수관음가」, 「원왕생가」(모두 10구체)는 각각 9행, 11행, 11행으로 번역하였다. 가령 논문 2장에서 소개한 「원왕생가」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Moon,
 are you westering?
 Pray to Amithaba,
 Say
 there is one
 who worships the judicial throne,
 who, hands joined in prayer,
 longs for the Pure Land,
 Let the forty-eight vows be kept,
 let the flesh be annihilated;
 let me enter the Pure Land. (*The Book 1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왕생가」는 10행이 아닌, 11행으로 번역되었다. 사실 이 번역은 아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10행 시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1행과 2행을 붙여 Moon, are you westering?으로 쓴다면, 원문과 번역의 행 수를 맞추으로써 번역의 시각적 등가(visual equivalence)⁷⁾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오록의 11행 번역을 옹호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호칭어 Moon(‘나’의 대화 상대자이자 ‘나’의 소망을 부처님께 전하는 매개체) 하나만을 첫 행에 두는 것이 시의 ‘호흡(속도)’을 자연스럽게 하고 시의 심상(달을 호명하는 상황에서의 심상)을 조성하는 데도 좋다.

둘째, 오록은 8구체 향가의 4-4 구조와 10구체 향가의 4-4-2 구조를 가

7) 시각적 등가는 텍스트의 외형이나 형식 면에서 번역이 원문을 닮았다고 보는 가치(value)이다.

시화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록의 「제망매가」 번역은 원문과 마찬가지로 연이 하나뿐이다. 논문 4.2장에서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번역을 당연한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부 번역가들은 향가의 숨은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해 10구체 향가를 ‘3연’, 즉 1연 4행, 2연 4행, 3연 2행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김완진 127)

You left
on the life-death road,
with no word
of farewell:
we are two leaves, torn
by early autumn winds
from a single tree,
scattered who knows where.
Let me abide in the Way, I pray,
until we meet in the Western Paradise. (*The Book 33*)

셋째, 오록은 대개 감탄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제망매가」의 제9구에는 “아아”라는 감탄사가 있지만, 오록의 번역에는 “아아”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없다. 하지만 「관음가」에는 아래 인용문(낙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외적으로 감탄사가 있다.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慈悲라고 큰고. (김완진 107)

Ah, ah, in your boundless compassion
hear my prayer. (*The Book* 14)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록은 향가를 번역할 때 원문의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논문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오록은 시조를 번역(번역 교정)할 때 3장 구조와 종장 3음절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하지만 향가를 번역할 때는 원문의 행 수를 대부분 맞췄으나 예외를 두었으며, 시조의 종장 3음절에 해당하는 감탄사를 대부분 번역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자유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다음 인용문에서 추정할 수 있다.

Translating *hyangga* presents a considerable challenge. Because the poems were recorded in *hyangch'al*, translations tend to have the feel of *hansi*. Different interpreters produce poems that are totally different. The translator must pick the best interpretation of the poem (or a combination of interpretations) and invent a form for each poem. The four, eight and ten line mould is a guide but hardly prescriptive. ("Reflections" 69-70)

오록의 논문에서 발췌한 윗글은 향가라는 장르를 오록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준다.⁸⁾ 그에 따르면 향가는 한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수반하며, 자연스레 외국어 번역도 어떤 한역(들)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4구체, 8구체, 10구체라는 틀은 하나

8) 오록은 2006년 역서에서 향가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향가에 관한 글이 많이 나왔지만, 향가는 아직도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설명되지 않았다”, “향가에 관한 학자들의 설명은 상이하다” 정도의 논의가 있을 뿐이다(*The Book* 10).

의 지침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은 아니며, 향가의 형태는 외국어 번역 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2. 다른 번역가와의 비교

다음으로, 오록의 번역이 다른 역자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아래 인용문 여덟 개는 「제망매가」에 대한 (1) 피터 현, (2) 리차드 러트, (3) 정인섭, (4) 그레이엄 월슨, (5) 제임스 호이트, (6) 피터 리, (7) 마이클 페티드와 차길, (8) 케빈 오록의 번역이다.

(1) Hyun (40)

Upon the thorny path of life and death,
Fearful and wordless,
We part, you and I.
We know not wherefore
The two falling leaves
From the same tree are scattered
By the first winds of autumn,
Abide by your Way
Until we reunite in Nirvana.

(2) Rutt (85)

Here is the road of life and of death,
Were you afraid
When you left, not even saying:
“I am going now?”

Like fallen leaves borne hither and thither
On the early autumn wind,
Though born from the same branch,
We do not know where we go.

How I strive to perfect my road, waiting
To greet you in the abode of Amitabha.

(3) Zong (3)

The way of life and death
Exists here and is dreadful,
Even the word of departure
Silently passes by
Like leaves falling here and there
In the autumn wind,
Though born on the same branch
Do I not know where you are gone.
Oh, I'll meet you at Midari
Schooling myself in Buddhism.

(4) Wilson (58)

Along that stony road, from life to death,
You vanished, saying nothing; but afraid.

Leaves that have grown upon the self-same tree,
Who knows where they may scatter in the stress
Of autumn's first cold wind, to what distinct
Ends of the earth their dust may be conveyed?

Be steadfast, sister, steadfast in the Way;
That we may leaf again in Nothingness.

(5) Hoyt (39)

The road of life and death
Cannot be avoided
Did you depart unable
To say, "I'm on the way?"
Like leaves floating down here and there
In some early autumn wind,
Though coming from a single branch,

We know not the place we go to,
Waiting here behind, I will practice the Way
And meet you in paradise.

(6) Lee (*The Columbia* 17)

On the hard road of life and death
That is near our land,
You went, afraid,
Without words,

We know not where we go,
Leaves blown, scattered,
Though fallen from the same tree,
By the first winds of autumn.

Ah, I will polish the path
Until I meet you in the Pure Land.

(7) Pettid and Cha (n. p.)

The road of life and death
Fearfully lies in front of us,
Did you leave,
Not even finishing the words, I go?
Like the leaves that fall asunder
In an early autumn wind,
We were born from the same branch,
But I do not know where you go.
Ah, ah! Until we meet in Amitabha's Pure Land,
I shall wait and cultivate the Way.

(8) O'Rourke (*The Book* 33)

You left
on the life-death road,
with no word
of farewell:

we are two leaves, torn
 by early autumn winds
 from a single tree,
 scattered who knows where.
 Let me abide in the Way, I pray,
 until we meet in the Western Paradise.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가에 따른 형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번역가가 10구체 향가를 10행으로 번역하지는 않았다. 「제망매가」의 경우 현(Hyun)과 윌슨(Wilson)은 각각 9행과 8행으로 번역하였고, 오록을 포함한 다른 역자는 10행으로 번역하였다. 둘째, 리(Lee)와 러트(Rutt)는 10구체 향가의 숨은 구조인 4-4-2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⁹⁾ 윌슨은 독특하게 1연 2행, 2연 4행, 3연 2행으로 번역했는데, 이러한 재구성의 배경이나 이유는 아쉽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¹⁰⁾ 셋째, 리, 정(Zong), 윌슨, 페티드와 차(Pettid and Cha)의 번역에는 “아이”에 해당하는 감탄사나 그에 준하는 어휘가 존재한다. 리, 정, 페티드와 차의 번역에는 Ah 또는 Oh가 있고, 윌슨의 번역에는 감탄사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Sister라는 호칭이 있다. 넷째, 시조와 관련된 이전 논문(「케빈오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오록은 각 행을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았다.

「제망매가」뿐만 아니라 다른 향가의 번역을 살펴봐도, 피터 리의 번역은 연의 수(3개), 행의 수(4-4-2), 감탄사 존재 여부 등에 있어 매우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터 리가 향가를 번역할 때 구조적으로 매우 엄

9) 연이 아니라 문장을 기준으로 10구체를 해석하면, 오록의 「제망매가」 번역은 4-4-2 구조(1행부터 4행까지 한 문장, 5행부터 8행까지 한 문장, 9행과 10행이 한 문장)를 따른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생각해도 예외는 있다. 「원왕생가」에서는 4행부터 8행까지가 한 문장이고, 「도천수관음가」에서는 5행부터 9행까지가 한 문장이다.

10) 낙구 2행은 똑같다. 앞의 8구는 역자가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2-4행으로 나뉘을 가능성이 있다.

격했다는 사실은 다음 두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n the basis of the surviving songs, we recognize three forms: a stanza of four lines; two stanzas of four lines; and two stanzas of four lines plus a stanza of two lines. (중략) The third is the most polished and popular form, appearing toward the end of the sixth century. It has two stanzas of four lines that introduce and develop the main theme, and a final stanza of two lines, in the form of a wish, command, or exclamation, that summarizes a thought developed in the song. (중략) Structurally, the ninth line begins with an interjection, variously indicated but reconstructed throughout the *hyangga* as aya (Ah!). (Ayayo occurs once and conveys the same sense.) (*An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15)

In the first stanza [「제망매가」 번역의 1연] there is the image of a crossroads (“the ... road of life and death”) and in the second there is the image of the tree. (“Hyangga” 75)

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피터 리는 10구체 향가를 ten-line song으로 표현한다. 그에게 10구체 향가는 1연 4행, 2연 4행, 3연 2행의 시이다. 특히 낙구의 첫 행은 Ah(Ayayo)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해야 한다. 피터 리의 감탄사 사용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그의 여러 번역본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감탄사가 없던 낙구에 감탄사를 추가한 교정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¹¹⁾

8구체 향가의 번역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8구체 향가인 「처용가」를 기반으로, (1) 케빈 오록, (2) 데이비드 맥캔, (3) 정종화, (4) 제임스 호이트, (5) 지은 카이어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1) 가령 「원왕생가」의 낙구는 Can the forty-eight vows be met / If this flesh remains unannihilated?(*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17)에서 Ah, would he leave me out / When he fulfills the forty-eight vows?(*The Columbia* 12)로 수정되었다.

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김완진 94)

(1) O'Rourke (*The Book* 21)

I reveled all night
in the moonlit capital,
came home and discovered
four legs in my bed!
Two are mine;
whose are the other two?
Legs once mine, now purloined,
what am I to do?

(2) McCann (20-21)

In the bright moon of the capital
I enjoyed the night until late,
When I came back and looked in my bed
there were four legs in it,
Two are mine,
but the other two—Whose are they?
Once upon a time that was mine;
what shall be done, now these are taken?

(3) Chung (97)

Under the bright moonlight in the capital city
I caroused late at night
When I returned to my chamber
Lo, there are four legs in my bed!

Two were mine;
Whose legs are the other two?
Even though the two were mine once
What can I do when they are taken away?

(4) Hoyt (40-41)

In the bright moon of the Eastern Capital,
Having made merry into the night,
I enter [my home] and
Look at the bed;
Four legs are there: (“[my home]”은 역자의 것임)

Two were mine;
Two are whose?
Once they were mine but
Being dispossessed, what shall I do?

(5) Kiaer (41)

1 In the bright night of the capital,
2 After playing late into the night,
3-4 I come home to find four legs in my bed,
5-6 Two are my wives, but what about the other two?
7-8 Once they were mine - but no longer.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8구체 향가에서도 오록의 번역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즉, 연 구분 없는 8행 시이며, 모든 행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만 보면 오록의 번역은 맥캔의 것과 유사하다. 오록과 맥캔의 번역은 행 단위로 비교하면 서로 다르지만, 연 구분과 소문자 사용만을 놓고 보면 가장 비슷하다. 세 번째로 제시된 정종화의 번역은 앞서 살펴본 피터 리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연 구분(“1연 4행 + 1연 4행”)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호이트의 번역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연 구분에 있어 호이트의 번역은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8구체 「제

망매가」는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8구체 「처용가」는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이트는 행 수도 자유롭게 결정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처용가」 번역의 1연은 4행이 아닌, 5행으로 되어 있다. 한편, 마지막에 제시한 카이어의 번역은 원문의 8행이 5행으로 압축됐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다만 이 번역에는 행 앞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어, 번역으로 인한 행 변화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가령 번역 3행(I come home to find four legs in my bed)은 원문 3-4행과 대응시킬 수 있다.¹²⁾

간략히 요약하면, 오록은 향가의 형식을 구현하는 데 있어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자유롭지도 않았다. 행 수에 있어서는 대개 원문을 그대로 따랐지만, 일부 10구체 향가에서는 한 행이 길거나 짧은 번역을 택하였다. 또한 피터 리, 정종화 등의 역자와 달리, 향가의 숨은 구조인 4-4 또는 4-4-2 구조를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행의 시작을 표현할 때는 맥 칸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3. 번역의 통시적 변화

결론부터 말하면, 시조와 달리 향가 번역의 경우에는 교정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오록의 2001년 역서 『Mirrored Minds』에는 「찬기파랑가」, 「우적가」, 「처용가」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번역들은 2006년 역서인 『The Book of Korean Poetry: Songs of Shilla and Koryo』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우적가」의 낙구에만 미미한 수정이 있을 뿐, 세 향가 모두 완전히 똑같다. 「우적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록의 자기교정(self-revision)은 아래와 같다.

아아, 조만한 勲業은

12) 카이어의 책(교육용 서적)에는 10행으로 이루어진 한역 원본과 영어번역이 함께 있다.

아직 덕도 없습니다. (김완진 156)

not much of a merit hill
to erect a mansion on (*Mirrored Minds* 25)

but it is not much of a merit hill
to build a mansion on (*The Book* 20)

오록의 향가 번역이 시조 번역과 달리 형식상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록이 향가의 형식을 다소 느슨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향가를 번역한 시기가 커리어 중후반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조는 오록이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수십 년간 다룬 분야이므로, 그만큼 형식에 대한 고민도 깊었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다. 반면 향가는 기본적으로 작품 수가 매우 적고 오록이 2000년대 초·중반에만 다룬 분야이므로 형식에 대한 고민이 적었을 것이다. 1990년대에 오록은 한시를 포함한 다양한 시 역서를 출간했고, 특히 시조 번역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틀을 확립하였다(이상빈, 「시의 형태적 특성」 60). 따라서 향가를 번역할 때는 이미 한국 시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케빈 오록의 향가 번역을 중심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주제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를 좀 더 확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번역가라 할지라도 장르에 따라 번역 접근법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논문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록은 시조를 번역할 때 매우 엄격하면서도 독특한 형식을 취했다. 원문과 확연히 다른 5행 구조를 기반으

로, 종장 첫 구의 음절 규칙을 영어에서도 구현하고자 하였다. 반면 향가를 번역할 때는 철저히지도, 아주 느슨하지도 않은 형식을 사용하였다. 전체 행수를 무조건 맞추거나 10구체 향가의 숨은 구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시조를 번역할 때와 비교하면 시각적 등가가 훨씬 더 높은 번역을 했다.

둘째, 장르에 대한 역자의 이해가 번역의 외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록이 시조와 향가를 다르게 번역했던 이유는 해당 장르에 대한 학계나 일반인의 관점과도 관련 있다. 오록은 일부 학계의 주장대로 시조의 구조를 가곡창에서 찾았다. 또한 종장 첫 구는 일반 독자의 머릿속에도 남아 있는, 시조의 정체성 요소로 인식하였다. 반면 향가의 구, 감탄사 등은 시조에서만큼 확정적이거나 규범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자신의 역서에서도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오록의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피터 리나 정종화의 경우와는 크게 달랐다. 피터 리는 오록과 달리 10구체 향가의 4-4-2 구조를 여러 저서에서 설명하고 실제 번역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였다. 또한 제9구의 감탄사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예외 없이 번역하였다.

셋째, 향가 장르에서도 형식이 다른 여러 영역본이 공존한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 독자들이 어떤 번역을 만나느냐에 따라 향가에 대한 첫인상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조 장르에서도 확인된 이러한 ‘공존’의 문제는 일부 고전시가에 대한 국문학계의 이견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 독자들에게는 의도치 않은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독자의 올바른 독해를 위해서는 형식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나 주석 등이 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 주제어

케빈 오록, 향가 번역, 시조 번역, 시의 형식, 10구체 향가.

■ 인용문헌

- 강길운. 『향가신해독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강혜정. 「세계의 시 World Poetry」(Norton, 1997) 所在 韓國 古典詩의 존재 양상 고찰. 『어문논집』 78 (2016): 65-97.
- 김성규. 「향가의 구성 형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 『국어국문학』 176 (2017): 177-208.
- 김순영. 「김삿갓 시(詩)의 번역 양상 고찰」. 『통번역학연구』 18.4 (2014): 25-43.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80.
- 박옥수. 「한영문학 번역의 대화체에서 드러난 생략어의 번역」. 『동화와 번역』 25 (2013): 171-92.
- 박진임. 「고시조 영역 양상 고찰: 강용흘, 케빈 오록, 데이비드 맥켄 번역 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8.3 (2020): 279-302.
- 「시가(詩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294>. 2023년 1월 29일 검색.
- 안영훈. 「서양인이 간행한 이규보(李奎報) 영역시(英譯詩)의 양상과 특징: 생태적 관점의 읽기와 의미 부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7 (2022): 223-60.
- 이상빈. 「케빈 오록의 시조 번역의 구조적 특징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6.2 (2022): 109-32.
- _____. 「시의 형태적 특성과 번역 — 김혜순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의 번역을 기반으로」. 『T&I Review』 12.2 (2022): 55-78.
- 임주탁. 「한국고전시가의 영어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 황진이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114 (2011): 273-300.
- 조태성. 「시조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시론: 시조의 감성 구조와 套語의 활

- 용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31 (2009): 201-20.
- 「향가(鄕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2873>. 2023년 1월 29일 검색.
- 「형식」。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fd5c40c68d24900969690e72f8e9e4e>. 2023년 1월 29일 검색.
- Lee, Peter H. *Anthology of Korean Poetry: From the Earliest Era to the Present*. Honolulu: U of Hawaii P, 1974.
- _____. “Hyangga.”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edited by Peter H. Lee, Cambridge: Cambridge UP, 2003, 66-86.
- _____. *An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Honolulu: U of Hawai‘i P, 2017.
- _____. “Reflections on Translating Classical Korean Poetry.” *Acta Koreana* 11.1 (2008): 65-80.
- Lee, Sang-Bin. “In Search of an Ideal *Sijo* Format in English: Investigating Kevin O’Rourke’s Translations of *Sijo*.” *Acta Koreana* 26.2 (accepted manuscript).
- Rutt, Richard.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1.

· 분석대상의 출처(논문이나 단행본 형식으로 제시)

- Chung, Chong-wha.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 Anthology*.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1989.
- Hoyt, James. *Soaring Phoenixes and Prancing Dragons*. Seoul: Jimoondang, 2000.
- Hyun, Peter. *Voices of the Dawn*. London: Murray, 1960.

- Kiaer, Jieun. *The Old Korean Poetry: Grammatical Analysis and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2014.
- Lee, Peter H.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 Honolulu: U of Hawaii P, 1983.
- _____.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Poetry*. New York: Columbia UP, 2002.
- McCann, David R. *Early Korean literature: Selections and Introductions*. New York: Columbia UP, 2000.
- O'Rourke, Kevin. *Mirrored Minds*. Seoul: Eastward, 2001.
- _____. *The Book of Korean Poetry: Songs of Shilla and Koryo*. Iowa City: U of Iowa P, 2006.
- _____. *My Korea: Forty Years Without a Horsehair Hat*. Kent, UK: Renaissance Books, 2013.
- Pettid, Michael, and Kil Cha, translator.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From Ancient Times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y Mi Sook Ko, Min Jung, and Byung Sul Jung, <https://library.ltikorea.or.kr/ebooks/300522>. 2023년 1월 30일 검색.
- Rutt, Richard. "Song for a Dead Sister." *Korean Verses*. By Korean Poets Association. Seoul: Mun Won, 1961, 85.
- Wilson, Graeme. "For a Dead Sister." *Korea Journal* 19.2 (1979): 58.
- Zong, In-Sob. *A Pageant of Korean Poetry*. Seoul: Eomun-Gag, 1963.

■ Abstract

Investigating the Form of Kevin O'Rourke's Translation of Shilla *Hyangga*

Lee, Sang-Bi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Kevin O'Rourke (1939–2020) was an Irish missionary priest and one of the most foremost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He translated more than 2,000 poems, including traditional works of *shiga* such as *hyangga*, *hanshi*, and *shijo*. This study investigates his translations of Shilla *hyangga* in three respects, with an emphasis on the form of the ten-line *hyangga*. First, O'Rourke's translations are compared with the 'source texts' or Korean translations of the songs transcribed in *hyangch'al*. Second, translations by O'Rourke and other translators such as Peter H. Lee and Chung Chong-wha are compared in terms of line arrangement, interjection, and capitalization. Third, multiple anthologies are examin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changes in O'Rourke's format for translation. Findings show that (1) O'Rourke found it unnecessary to reproduce the explicit and implicit form of the ten-line *hyangga*, (2) other translators were more strict about the form of *hyangga*, and (3) O'Rourke did not revise his format, unlike what he did for *shijo* translation.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findings.

■ Key words

Kevin O'Rourke, *hyangga* translation, *shijo* (*sijo*) translation, form in poetry, ten-line *hyangga*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3년 3월 5일 ○심사일: 2023년 4월 12일 ○게재일: 2023년 4월 12일

존 란체스터의 『벽』에 나타난 대격변 시대의 사회체계와 상황적 존재들*

최 은 주**

I. 서론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에 의하면, 기후 문제는 지정학적 이슈의 핵심이며 불의·불평등의 문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Down to Earth 3*).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에 들어섰다는 생각 없이는 불평등의 폭증, 탈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 잘못 알려진 갈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2). 신기후체제는 라투르가 그의 저서 『가이아 마주하기: 신기후체제에 대한 여덟 개 강의』(*Face à Gaïa. Huit conférences sur le Nouveau Régime Climatique* 2015)에서 제안한 용어로, 지질학자들이 홀로세(Holocene)라고 정의한 최근최대빙하기(Last Glacial Maximum)가 끝난 이후 다소 안정적인 상황의 구기후체제(Older Climate Regime)가 있었으나 인류가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됨에 따라 인간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5760).

**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oieunjoo@gmail.com

불안정한 신기후체제로 전환하였다. 전례 없는 규모의 생태적 변환에 접어들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가 지구에 엄습하였다.

모든 개인이 한 국가의 국민이며 오직 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배타적 국민 구성은 근대 국민국가 모델이 지닌 특징이다. 이 모델은 낸시 제이(Nancy Jay)가 지적한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로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는 모든 변화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안적인 사회질서의 형태(제3의 가능성)를 사교할 수 없다(Jay 54).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 질서에 대한 대안이 무질서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누적된 분쟁, 경제 실패, 기후 변화에 떠밀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기후 변화와 이주 논쟁은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닌 양립하는 문제이지만 기후 변화가 아직 다룰 줄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의 모든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셀러 42, 312).

본고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극대화하여 형상화한 가상 세계를 그린 존 란체스터(John Lanchester)의 『벽』(*The Wall*, 2019)에서 '대격변'(the Change)으로 불리는 시대 이후의(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와 그 사회 안과 밖의 상황적 존재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상황적'이라는 말은 고정된 자기 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며, 얼마든지 박탈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진다. 그러나 이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비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류가 발생시킨 기후 변화는 종으로서 인간 존재 자체가 빚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상이한 인간 집단들이 더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기여했음에도 지구 온난화는 궁극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인간 행동이 이루어낸 총체적 결과물(Ghosh 115)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이 상승한 바다와 그로 인한 홍수는

『벽』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벽』은 영국 브리튼 섬(Britain)에 요새를 구축하고 벽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즉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면서 난민을 막고, 자신들의 영토(soil)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는 어떠한 구호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브렉시트(Brexit)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2016년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확정하고, 2020년 1월 정식 탈퇴했다.

라투르의 말을 빌려, 신기후체제는 오랫동안 국경을 휩쓸었고, 우리를 모든 풍랑에 노출시켰으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벽도 침입자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10). 두 다리로 걸어서 넘어오는 난민에 맞서기 위해 국경 봉쇄를 한다고 해도, 다른 형태의 이동, 즉 기후, 침식, 공해, 자원고갈,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이 국가로 한정 지을 수 없고, 형체도 없는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끈질기게도 “위협에 대해 항상 내부와 외부, 고유한 것과 생소한 것, 개별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경계에 머문다”(에스포지토, 『임무니타스』 8). 이때의 ‘우리’는 유럽이지만 꼭 유럽일 필요는 없다. 꼭 유럽일 필요가 없지만,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은, 로베르트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에 따르면, ‘우리’라는 개념을 “외부와 의 모든 접촉을 절단하는 면역화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내부로 데려간다”(Esposito, *Terms of the Political* 41). ‘우리’는 “타자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접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면’이나 ‘갑옷’을 사용”(Esposito, *Terms of the Political* 40)함으로써 다시금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가 말하는 ‘우리’와 라투르가 말하는 ‘우리’는 다르다. “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감시당하고 판단되어왔음을 본의 아니게 알아차린”(Ghosh 121) 인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와 “모든 민족을 침략한”(Latour 103) 유럽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탄소 경제로 인한 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그리고 『벽』의 주인공 조셉 카바나(Joseph Kavanagh)의 출발 또한 어쩌면 다르다. 카바나는 아일랜드의 성

(姓)으로, 어원은 ‘잘생겼다’는 뜻의 Caomhánach에서 유래하며, 소설 전체에서 카바나는 조셉이 아니라 카바나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 이미 제국과 다중이라는 타자¹⁾의 생산 구도에서 처음부터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카바나가 근본적으로 영국적인 ‘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배경인 브리튼 섬은 지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극도의 추위가 닥쳤고 해안선 2,000마일을 잃었지만, 여전히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과 펍(Pub), 대중교통, 휴가가 잔존하여 대격변 이전의 풍경을 드문드문 드러내는 지구 유일한 곳이다. 반드시 영국일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인 맥락에서 난민과 기후 변화를 소재로 택한 『벽』에서 란체스터조차 세계의 다른 지역과 벽을 쌓은 미래의 영국을 상상하고 있으며, 다른 작가들처럼 영국에, 따라서 고유의 영국식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는 데 동참한다는 비판(Hauthal 316)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밖에 디스토피아적 절망에 대항하는 더 나은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대신 단지 느낌의 디스토피아적 구조를 재현할 뿐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한다는 평가(Rychter 300)가 있다. 그러나 『벽』을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종말론적 세계의 원인인 환경 문제를 잘 그려냈기 때문이 아니다. 기후 변화를 다루는 상상력에서는 오히려 단순하며, 결과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벽이라는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주의적 공동체 이념을 깊숙이 심어놓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공동체의 이념은 그 대립물인 벽을 부서뜨리려는 커녕 오히려 벽을 높이 세우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벽을 지키는 단조로운 삶이지만 경계병들이 강렬한 목적의식을 지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따라서 『벽』에 대해 에리카 와그너(Erica Wagner)가 던지는 “누구에

1) 존 어리(John Urry)는 미국에 빗대어 제국과 다중의 생산을 논한다. 제국은 매우 강력한 다중이라는 타자를 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금 세탁, 마약 거래, 도시 범죄, 망명 신청, 밀입국, 노예무역, 도시 테러 같은 지구적 유동체를 통해 ‘제국과 다중’의 생산이 크게 변화한다고 하였다(154-155).

대한 디스토피아인가?”(A dystopia for whom?)라는 질문(Wagner)은 의미심장하다. 빙하와 해빙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 이변은 현재 진행형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난민 이동 대부분은 기후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과 기후 변화는 식량문제로 이어져 마침내 사는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전치(displacement)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진실이 가로놓여 있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홈랜드는 사라지면서 이주의 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벽』은 현재 삶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설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정상성’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Wittmann).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정치가들은 똑같은 연설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아이폰과 비슷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현실과 소설 세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벽 이쪽에 존재하는 자들은 피부 속에 시민임을 나타내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벽 밖의 적으로 표상되는 ‘타자들’(Others)에게는 그와 같은 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세대에게 ‘나쁜’ 현실과 ‘더 나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써만 표상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대격변은 이미 진행 중이며, 불안한 현재는 위급한 미래로 향하고 있다. 이 속에서 타자는 일별이 가능하지 않은 전체로서 등장할 뿐이며, 그들에게는 얼굴도 목소리도 없다.

II.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오늘날 환경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적 사고와 심지어 중세적 사고에서처럼 우주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합한 위치와 경계를 가리키는 가시적인 살아있는 우주는 아니지만 ‘둘러싸는 몸’(*sôma periéchon*)으로 간주되었다(Luhmann 6). 큰 몸이 작은 몸을 포함하고 유지하였으며, 경계란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장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Umwelt)²⁾이라는 용어가 발명되었던 19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야 비로소 정점에 이른 이론적 전회(theoretical turn)에 의해 뒤집혔는데, system, 즉 체계가 체계 고유의 환경을 정하고, 체계 자체가 분화하면서 무엇이 되었든 환경을 경계 저편에 있는 것으로 구성해낸 것이다(Luhmann 6). 환경은 그렇게 경계 저편에서 타자가 되었으며, 인간은 비인간(동물, 식물, 사물)의 활기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잊기 시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던 나라들에서 대대적인 탈식민화가 진행된 시기”(Chakrabarty 15)의 인간 활동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인간의 활기 또한 부각시키는 ‘대가속’(Great Acceleration, ‘거대한 가속’이라고도 불린다)의 개념은 중요하다.

벽은 상징적이다. 경계이자 국경이며, 내부와 바깥을 전제한다. 벽은 위반이 일어나는 한계가 아니라 횡단되는 통과와 경로를 생산한다. 벽은 동시에 물질적이다. 그러한 벽은 세울 수도, 1989년 베를린에서처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란체스터의 『벽』에서 벽 또한 그런 상징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자 압박한 환경 붕괴에 대한 불안, 안전과 안보에 대한 보편적인 꿈, 제한된 천연자원과 인간에 대한 환대 같은 아이디어들이 모여드는 중심 이미지가 바로 이 거대하고 구체적인 벽이다(Rychter 293). 공식 명칭이 ‘국립 해안 방어 체계’(NCDS, National Coastal Defence Structure)인 거대한 벽은 “낮고 긴 콘크리트 흉물”(a long low concrete monster, 4)이다. 콘크리트는 그 유효 성분이

2)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원저(*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en einstellen?* 1986)에는 Umwelt, 존 베드나즈(John Bednarz Jr.)의 영어 번역판(*Ecological Communication* 1989)에는 Umwelt와 environment가 병기되어 있다. 독일어 Umwelt는 environment, 환경 등으로 번역되지만, 독일어 어원은 인간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주변 세계’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또는 물리적·자연적 환경의 세계로써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의 순환과정이라는 점에서 19세기적 관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륨이다.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약 90%를 차지하는 규산염도 들어가며, 점토도 필요하다. 1,450도의 높은 온도를 가하면 규산칼륨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철근 등이 합쳐지면 콘크리트가 생겨난다. 소설에서 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운”(steep and slippery, 5) 콘크리트 계단으로 묘사되며, “춥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절망적인 곳”(a cold, hard, unforgiving, desperate place, 5)으로 비친다. 벽의 소재가 콘크리트 물질이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과다 탄소 배출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높인 인간 활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에 의한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였음에도 다른 대안 물질을 찾지 못한 인류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벽』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세상, 벽을 지키는 복무 속으로 모든 젊은 세대를 내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서 발생한 홍수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풍경이 달라졌으며, 체제 또한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향유했던 해변은 없어지고 오로지 바다만 있으며 그곳을 지키기 위한 벽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존 어리(John Urry)에 의하면, 해변은 소비의 장소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259).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중간 공간’으로써 매혹과 욕망의 장소인 것이다. 경관의 장소, 특히 노동이 아닌 여가의 장소라는 것도 특이점이다.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북미 부유층에게 ‘엄청난 정동’(immense affect)의 장소이자 지상의 낙원이며 과잉의 장소였던 해변은 공장과 직장, 가정에 대한 상징적 ‘타자’를 의미한다(Urry 259). 정동은 무의식적이지만 육체적이며 외재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흥분, 몸짓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즉 신체 위에 드러나는 느낌이자 반응으로, 자기 인식 전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다. 해변에서 햇볕은 거의 별거벗은 몸을 어루만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정동에 의해 해변은 전 세계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된다.

『벽』에서 ‘우리’ 세계에서는 사라진 해변과 대조적으로 벽은 ‘우리’와 ‘타자’가 나뉘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대문자 ‘O’로 된 ‘Others’는 타자가 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명료하게 나누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벽을 침투하고자 하는 타자를 상대하는 영국인이자 영국 내에서 부모 세대와 갈라진 자식 세대로,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55).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대격변이 고립된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라는 특별한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한순간에 벌어진 것 같은 사건처럼 느껴진다(110). 따라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부모 세계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 세계가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대격변은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없는 현재형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하지 않은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선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제약이 계층을 둘러싸고 있다. 즉 ‘우리’ 세계에는 엘리트(Elite), 경계병(Defender)/공군(Flight)/경비대(Guard), 도우미(Help) 계층이 존재한다. 경계병은 벽을 지키며, 공군에는 항공기를 타는 소수의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드론 조종사가 소속돼 있다. 정식 명칭이 ‘해안 경비대’(Coast Guard)인 경비대는 크게 중거리용 함선과 단거리용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벽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병은 추방될 수 있으나 공군과 경비대는 추방되지 않는다(37). 그렇기에 공군이나 경비대의 입대는 훨씬 어렵다. 공군에 입대하려면 생체 측정 테스트를 여러 번 통과해야 하며, 경비대에 입대하는 데는 선박·해양 관련 분야에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37).

‘우리’ 세계의 분화된 사회체계에서 경계병은 적이 벽을 넘으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사실이다. 적이 마이크로 칩을 구해서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사병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적과 엘리트 계층에겐 중차대한 일이지만 경계병에게 달아난 적은 더 이상 관심사

가 아니었다(114). ‘우리’ 세계는 여전히 계층화된 사회이지만 집의 개념은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즐겼던 해변은 사라져 과거 역사 속에만 존재한다. 세상으로 나올 때 세상은 주어진다.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세계 속으로 의지 없이 태어나는 것이다. 특정 시대와 국가, 지역에 그대로 던져진다. 그것을 작동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먼저다. 시스템이 없다면 개별 인간 주체의 힘은 보잘것없을 것이다(Urry 45). 주체가 모여서 경이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특히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들의 관념 또는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다양한 사물을 이동시키는 시스템 덕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하여 개별 인간은 별다른 인지적 숙고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벽』이 재현하는 디스토피아조차 다른 인간들로부터 벽을 지키는 방식의 정치적인 경계와 정체성이 부동성/이동성(im/ mobility)에 의해 형성된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즉 디스토피아라고 하지만 이전의 삶과 달라졌다 해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그 삶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삶에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 말이다. 『벽』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말은 지역·도시·국가·세계의 체계들이 인종·성별·계층·국적·성별에 따라 다른, 규율된 이동을 생성(셀러 60)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취약한 ‘다른’ 집단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타자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의 이동이 카바나를 비롯한 ‘우리’에게는 파괴와 위협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시금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진다.

경계병은 처음 의무기간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무 연장이 가능하다. 카바나는 복무 연장을 자신에게 달린 일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지 안다며, 장교로 훈련받을 기회가 생기면 대학에 가고, 엘리트 계층에 진입하여 항공기를 타고 날아가 회담이

나 대담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20). 카바나는 엘리트 계층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는 동시에 선망하였다. 벽을 넘어온 적을 물리치고 훈장을 받은 후, 그리고 히파(Hifa)와 함께 번식자(Breeders)가 될 것을 선택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엘리트 계층이 되기를 가장 바라게 되었다. 엘리트들은 다른 엘리트 계층 사람들과의 회의를 위해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다. 항공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는 극소수만이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회조차 일련의 규제하고 통제하는 규칙, 관습, 제도 전체인 체계화된 네트워크는 이동성(mobility)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셀러 132), 따라서 ‘우리’의 세계에서조차도 권력은 사람들의 차별적 이동 능력을 명백히 드러낸다. 특권 계층은 개인의 이동 능력과 이동 잠재력과 는 별개의 더 많은 이동의 편리를 즐기고, 더 다양한 종류의 이동성에 접근한다(셀러 16). 이것은 이동 권리인데, 에스포지토는 권리가 언제나 누군가의 것, 즉 어떤 소유의 대상인 동시에 방식이고, 내용인 동시에 형식이라고 말한다(에스포지토, 『임무니타스』 53). 원천적인 단계에서 무언가 ‘이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다’라는 식으로 정립된다는 것이다. 권리는 남에게서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며, 따라서 권리는 주관적인 소유물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소유물은 이전되거나 전달되지 않으며 물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단지 ‘취할 수 있을 뿐이다(에스포지토, 『임무니타스』 53).

계층과 달리 식량의 패턴은 과거에 머물지 않은 것들이다. 벽에서 복무하는 첫날 아침, 카바나는 포리지(porridge), 즉オート밀에 우유나 물을 부어 걸쭉하게 끓인 음식을 먹고, 간식 시간이 되어서는 에너지바를 먹는다. 포리지와 단백질류에 따뜻한 음료로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벽에는 상존하는 추위가 있으며, 20분을 걸어도 초소는 더욱 춥다. 그의 ‘위치’는 벽이다. 몸은 다채로운 감각을 통해 다른 몸, 물건, 물리 세계와 조우하는데(Urry 272), 그가 먹는 음식물, 일과를 보내는 벽, 추위가 그의 몸을 가로지르며 그의 사회적 삶을 생산하고 윤곽을 만든다. 그렇게 그가 짙어

진 책임과 하루와 생각이 모두 벽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미래가 벽에서 벌어지는 일에 달려 있다. 카바나와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벽은 그만큼 지배적이다.

영국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끊고, 빈곤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하는 특권을 가진 백인 서구 사회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선택된 생존자들, 즉 영국인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한다. 이때 보호의 대상은 ‘공동’이다. 물론 영국으로 제한한 공동이다. 위협으로부터 공동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유한 의무가 요구되는데, 주체성의 탈고 유화를 통해 의무가 공동의 혜택으로 변환된다(에스포지토, 『임무니타스』 44). 카바나를 비롯한 경계병들은 법적 의무에 귀속되어 있으나 그들의 권리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차원의 것이다. 젊은 세대는 남녀 모두 2년간 벽 방어의 복무 의무가 있으며, 벽을 지키기 위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 자녀를 낳는다는 선택을 하는 번식자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세상을 파괴했기에 인구 증감을 조절할 권리는 없지만, 국가는 벽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변한 탓에 번식을 꺼린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류를 전부 다 먹여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대부분 기아와 수난을 겪으며 사망과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아와 수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겪고 있다(33).

이미 존재하는 인류를 우리가 전부 먹이고 돌볼 수는 없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인간들 대부분은 굶주리고 익사하고 죽어가며 절박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기 이 나라에서만큼은 기아와 익사를 겪지 않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거의 다 겪고 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We can't feed and look after all the humans there already are, here and now; the humans who are here and now, most of them, are starving and drowning, dying and desperate; so how dare we make more of them? They aren't starving and drowning here, in this country, but they are almost everywhere else; so how dare we make more humans to come into this world? (35)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벽을 침입하였다가 검거된 타자는 안락사, 바다 추방, 도우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라고 했지만, 개인의 고유한 선택은 없다. 세계는 이미 그와 같이 체계화 되어 있었으며, 이 환경은 그 사회에 소속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인 것 같지만 소속 또한 소유한 자, 달리 말해, 빼앗을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엘리트층의 이동 권리라는 것도 말하자면 타인의 부동성을 강제하는, 이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Ⅲ. 벽 안/밖의 상황적 존재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벽은 공간이라고 규정하기엔 모호한 해안가 없는 바다 위로 홍수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마도 외국인 기후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벽 위에서는 경계병들이 벽을 지키는 것 외에도 먹거나 잠을 잔다. 벽 200미터마다 서 있는 5만 병력이 수시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또 다른 5만 병력이 교대조로 대기 중이니까 10만 병력이 주야로 경계 근무를 선다. 2주일은 당번, 2주일은 비번이다. 경계병 중 절반은 벽을 떠나 휴가 중이거나 훈련 중이거나 2주일 교대 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다. 따라서 20만 현역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지원 인력과 보조 인력에 장교와 행정병을 더하고, 해안 경비대와 공군·해군에 병가를 낸 병력 등등을

더하면, 벽을 방어하는 병력이 30만을 넘어선다(34). 모두가 예외 없이 벽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규칙이다. 이들의 삶은 벽 이전과 벽 이후로 나뉘며, 친구들과 공통으로 벽을 경험했음에도 복무를 마친 친구들과의 사이는 갈라놓는 것 같다. 카바나는 벽이 “모두에게 같으면서도 모두에게 달랐다”(59)고 말한다.

이런 벽에 적과 한편인 사람들이 있다. 적과 한편인 내부의 적인 셈이다. 내부의 적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벽 밖의 타자들과 연대한다는 점에서 ‘우리’에 속하지만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은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결여된 짓을 하는 자들로, 연단에 오른 정치인인지 관료인지 모를 엘리트 계층의 젊은이는 그들을 “반역자”(traitors, 113)라 불렀다. 반역자는 벽을 넘는 데 성공한 타자들을 멀리 달아나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과 내통하면서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고 심지어, 칩을 얻도록 도와줄 방법, 벽을 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 사회 속으로 숨어들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113). 우리 편이면서, 적의 편인 사람들로 인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망이 약화되는 느낌을 진단하는 『벽』은 디스토피아적 파문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보를 다르게 욕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Rychter 291). 벽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함이지 사람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현 사회체계에 반대한다. 타자들이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속이는 “해독 불가능한 재앙의 징후들”(Rychter 295)로 여기는 이유도 결국 자국민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안보 체계에 있는 것이다.

대격변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곳에서는 쉬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고, 상당수의 더 더운 지역에서는 대격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지형이 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격변의 영향에서 도망친 남녀는 새 삶을 꾸리기 위해, 다투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암반, 동굴, 우물, 오아시스를 찾고자 애를 쓰지만, 대

격변은 끝나지 않았다. 보금자리는 쓸려갔고, 해수면은 더 높아졌고, 지표면은 뜨거워졌고, 농작물은 타 죽었고, 암반은 무너졌고, 우물은 말라 버렸다. 안전은 환상이었다. 그래서 불행한 자들은 다시 도망쳐야 한다. 초기 대격변 때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상당한 수가, 위험할 정도의 수가 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비교적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그런 시절은 다 갔다(111). 연단에 올랐던 엘리트가 들려준 이야기다. 금발에 반짝거리는 정장을 입은 그는 “벽이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이 받은 훈련은 세계 최고”라면서, “여러분도 세계 최고이고 이 나라도 세계 최고”이니, “우리가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We have prevail, we do prevail, we will prevail. 112)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 또한 엄연히 구분되는 “흑백 논리만 있는, 규칙 아니면 무법천지였고, 벽과 타자, 항시 대기상태, 기대감, 오로지 매서운 바다뿐이었다”(Nothing but black and white, the rulebook or anarchy, nothing but the Wall and the Other and the always waiting, always expectant, entirely unforgiving sea. 48).

대격변은 ‘우리’ 세대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카바나가 만난 도우미는 “쿠이쉬아”(Coo-ee-shee-a)라는 ‘종말’을 뜻하는 스와힐리어(Swahili)를 사용했다(82). 갑작스러운 죽음과 소멸 보다는 점진적인 변형과 어울리는 어휘 ‘대격변’이 카바나의 인지와 상상력을 형성한 만큼 벽 너머의 언어 ‘쿠이쉬아’는 카바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의 것이었다. 벽을 넘어 왔다가 도우미가 된 그에게서 발음되는 ‘쿠이쉬아’는 그만큼 벽에 설정된 선, 구역과 일치하는 서구의 인식적이고 상상적인 기능성의 한계를 명시해준다(Rychter 295). 카바나는 도우미의 삶이 어땠는지, 대격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어떤 여행을 했는지, 어떻게 벽을 넘어왔는지, 타자들과 섞여 사는 것과 지금 도우미로 사는 건 어떤지 등을 연결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카바나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불타는 듯 뜨거운 모래밭, 머리 위로 뜬 거대한 노

란빛 태양, 상처를 따갑게 하는 짙 바닷물, 버림받은 약자들, 유배와 상실이라는 쓴맛, 안전에 대한 갈망, 계속 불어 닥칠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라고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80)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다. 상상력의 한계는 카바나뿐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도우미는 오로지 ‘패배한 자’로 인식되며, 경계병에게 상상 가능한 최종 목표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3부 <바다> 는 바다로 추방된 후의 카바나 일행을 조명한다. 벽을 침입한 적들을 전멸시키지 못한 ‘우리’ 측의 경계병들은 구명보트에 몇 주간의 식량과 함께 바다 한 가운데로 버려졌다. 카바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원래부터 벽의 규칙을 알고 있었다(181). ‘타자가 벽을 넘어오면 나는 바다로 추방된다.’ 그러나 자신이 그 경험의 중심에 서자 그것의 부당함에 구역질이 났다(181). 추방된 동료들과 자신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이 죽는 걸 지켜보았으며, 그 대가가 바다로의 추방이었다. 추방되는 과정은 절망으로 채워진다. 추방이 결정되면 한 사람씩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칩 제거 수술을 받는다. 생체 인식 ID 칩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182). 공황 상태, 탈출하고 싶은 욕구, 불가능한 탈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데 절대 불가능한 탈출,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끔찍하게 죽게 될 거라는 공포가 카바나를 감쌌다(183). 수면에서 겨우 몇 센티미터 높이의 작은 고무보트에 서게 되자 바다는 10미터 높이의 철제 갑판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육지를 찾아 노를 저었으나 바람이 불어와 파도에 부딪히는 가 하면, 히파는 이틀 동안 뱃멀미에 시달렸다.

구명보트에는 벽을 넘어온 적을 막아내지 못한 카바나 일행뿐만 아니라 연단에서 연설을 했던 엘리트 계층의 초짜 정치인(the baby politician, 113) 제임스(James), 벽에 복무하던 경계병들을 배신한 대위가 있었다. 적 열여섯 명이 벽을 넘어 도망쳐서 병사 열여섯 명이 바다로 추방당했다(189). 카바나는 대위가 타자를 돕는 조력자 간 네트워크에 속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대위 또한 과거에 벽을 침입했던 타자였다. 그런데 바다로 함께 추방된 후 대위가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너희 나라 사람 중 일부는 벽 방어에 찬성하지 않는다”(191)면서 벽은 바닷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을 “도우미로 쓰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노예제로 보기 때문”(They think it’s slavery. 191)라고 말했다. 도우미는 합법적인 사회 제도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일부 권력층의 합의에서도 출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다.

카바나 일행이 발견한 육지는 대격변 이후 세계 모든 해안가처럼 수면에서 수직으로 높이 솟아 있어 상륙할 곳이 없었다(199). 자칫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풍랑에 밀려 경사면에 부딪힐 게 뻔한 난파되기 좋은 섬이었다. 이곳은 과거 해변이 있었고, 완만한 둔덕이 있었고, 아마 물가엔 집도 몇 채 있었을 것이다. 발밑의 저 해저는 맨땅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모두 물속에 잠겼다(208). 그러나 무풍지대의 고요하고 조용한 데가 있었으며, 그곳에 여러 척의 배들이 조용하게 떠 있었다(200-201). 항해용 보트 여덟 척과 물에 뜨는 뗏목 두 대를 엮어 만든 “부유하는 공동체”(floating community, 203)가 존재했던 것이다. 열여섯 명이 이룬 공동체는 계획된 게 아니라 사고와 우연의 연속에 의해 형성되었다. 카바나는 생각한다.

나는 타자들의 출신과 정체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 그 모든 걸 무시하도록 길들였다. 타자는 그저 타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타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니지 않은가? 내가 타자이고 이들도 타자라면 우리는 타자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Us)일 것이다. 혼란스럽다.

I’d been brought up not to think about the Others in terms of where they came from or who they were, to ignore all that - they were just Others. But maybe, now that I was one of them, they weren’t Others any more? If I was an Other and they were Others perhaps none of us were Others but instead we were a new Us. It was confusing. (203)

벽 밖의 얼굴 없는 타자들은 카바나가 합류하여 그들과 새로운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얼굴을 가지며, 몸으로, 목소리로 부각된다. 타자들, 그리고 “그 밖의 타자들”(the other Others, 203)로 이루어진 부유하는 공동체에는 아주 먼 지역의 억양에 비영어권 언어의 리듬이 섞인 여자가 있는가 하면, 민족이 다른 어린 소녀 셋이 있었으며 언어도 영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카바나 일행을 받아들이는 투표에서 모두 찬성하면서 그들 무리에서 카바나 일행과 ‘우리’가 되었다. 그들은, 아니 ‘우리’는 상륙하진 못했으나 평온한 가운데에 안전했다.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살만한 삶이었다(204). 물론 이 공동체는 부서지기 쉽다.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며, 그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벽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우며, 따라서 와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살 곳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레푸기아(Refúgia)³⁾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벽은 ‘안전’과 ‘보호’를 모토로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 부유하는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타자가 침략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종류의 것이며, 따라서 벽은 순간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패를 경계병들의 과오로 돌리고 그들을 추방하면 벽은 다시금 온전한 ‘안전’과 ‘보호’의 온상이 된다는 식이다. 벽은 물리적이지만 규제, 법률, 사법 체제, 관료 체제 전부이기도 하다. 추방 시스템에 의한 벽 방어가 결함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엘리트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3) 레푸기아 또는 레퓨지아(refugia)는 ① 피난, 피신, 도피, 대피 또는 의지, ② 피난처, 대피소, 피신처, 은신처라는 뜻으로, 258만 년 동안의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에 척박한 삶을 연명했던 인류가 피해 있던 곳곳의 작은 피난처를 일컫는다. 플라이스토세의 끝에 있었던 최근 최대 빙하기가 갑자기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되었다. 레푸기아는 빙하기처럼 대륙 전체가 기후 변화기에 놓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멸종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비교적 기후 변화가 적어 동식물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지역이다.

부유하는 공동체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지만 개인들 간에 기능적인 차원의 분리를 통한 질서를 유지한다. 업무는 각자에게 할 만한 일들이 맡겨진다. 그것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제안→수락의 과정을 거친다. 카바나는 잠수해서 해초며, 조개류를 채취했다(213). 이곳도 폭풍을 피하지는 못한다. 비바람이 사선으로 불어 시야가 막혔으며 폭풍우는 45도 각도로 따갑게 쏟아졌으며 파도는 밑에서 연속적으로 뗏목을 때렸다. 카바나의 생각에는 공동체가 폭풍우를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재난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 지나갔다. 그들이 정박해 있는 섬이 폭풍의 기세를 약화시킨 것 같았다. 카바나는 공동체가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224). 과거에 자연을 저 너머의 것에 놓고 경계 지었던 것과 달리,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하기’(becoming-with)가 펼쳐진 것이다.

바로 그때 폭풍이 사라진 방향으로부터 해적선의 침입이 있었으며, 카바나 일행에게 “새로운 삶”(new life, 203)을 주었던 부유하는 공동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같은 인간에 의해 마침내 와해된다. 그들 모두 죽거나 흩어졌으며, 카바나와 히파는 다시금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마침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결합 자체의 벽보다 훨씬 폐쇄적인 석유 플랫폼이다. 그 폐쇄성은 외부인에게는 닫힌 것이지만 내부인에게는 안전과 보호의 새로운 대안적 성격을 내비친다. 그동안 어떤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던 은둔자가 마침내 카바나와 히파에게 사다리를 내려 내부로 들었다는 설정은 카바나와 히파에게는 행운이자 특권이며 은둔자에게는 혼자서 생존할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각성이라는 점에서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타자들끼리의 ‘우리’로 설정된 다수의 부유하는 공동체가 아닌, 제한적으로 선택 받은 소수에게만 열린, 그리고 다시 닫힌 석유 플랫폼이 다름 아닌 “분리주의 유토피아”(Rychter 299)의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석유 또는 가스 시설(oil or gas

installation)이었던 최후의 정착지는 유일하게 카바나와 히파의 안전을 보장함에도, 이러한 설정은 상상력의 한계로 보인다. 벽이 콘크리트였다면, 해저에 매장된 석유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석유 플랫폼은 아연, 크롬, 니켈 금속을 도금한 강철로, 벽의 물질성처럼 밀도가 높아 침투가 어렵다. 또한 이 속에서 발견한 석유램프는 카바나와 히파를 또 하나의 특권층으로 만든다. 『벽』에서 엘리트층은 고에너지 화석연료를 통해 항공 여행이 가능한 특권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카바나가 동경하는 대상이었던 바, 카바나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석유에 접근 가능해지자 감격한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살아있는 세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적게 끼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불균등 이동은 불평등한 이동 체제와 생활 패턴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그것이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우리’로 갈라져 나온 카바나지만 벽의 체제에 도전하기보다 제3의 장소, 즉 운 좋게 은신처를 나눠 받고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믿으며 안도는 데 이른다. 대격변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부모 세대를 비난하던 그조차 여전히 진행 중인, 따라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대격변을 묵도하지만 에너지 사용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의 상상력은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것은 소설의 한계이자 ‘우리’의 한계이다.

IV. 결론

환경 문제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과오나 불충분한 윤리적 책임감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계와도 연관된다(xvii). 법체계는 환경 입법을 발전시켰고, 정치 체계는 생태학적 개혁을 위한 정치적 플랫폼을 출현시켰다. 경제 체계

는 생태학적 비용을 가격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비자들이 녹색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방법을 따랐다. 교육 체계는 생태학적 문제를 커리큘럼에 통합한 반면, 학문은 생태학적으로 지향하는 하위 학문(그중에서도 후발자로 환경 문학 연구)을 생산했다(Bergthaller 128). 이러한 변화는 종종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전성기 환경 운동이 조장하고자 했던 생태학적 혁명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어떤 반향도 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Miller 1781). 그러나 기후 위기가 문제임을 드러내고 문제성으로 사회가 속속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회의 환경 자체가 유발한 결과들로부터 다시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Luhmann 1).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해졌으며, 사회가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시 말해 사회체계가 어떻게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고시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하는 출판물이 논픽션과 관련되거나 소설로 다루어지는 경우 공상과학이라는 장르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고, 따라서 상상력의 위기라는 것이다(9). 추방당한 카바나와 히파가 ‘그들’만의 은신처로 찾은 석유 플랫폼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상상력의 위기는 곧바로 현실에서 나타난다. 『벽』에서 홍수를 막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후 난민들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목적을 갖는 벽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Manhattan) 해안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5m 높이, 4km 길이의 방벽을 연상시킨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가 뉴욕을 강타하고 나서 뉴욕시(NYC)는 이스트 25번가(East 25th Street)에서 몽고메리 스트리트(Montgomery Street)에 이르는 맨해튼의 이스트사이드(Eastside)에서 해안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줄일 것을 목표로 ‘동부 해안가 복원력’(East Side Coastal Resiliency, ESCR)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이 방벽은 홍수는 막고 사람은 막지 않는 방파제를 쌓는다

는 것, 그리고 방벽 소재가 생태 친화적 콘크리트임을 널리 알렸다(“East Side Coastal Resiliency”). 또한 ESCR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스트 리버 파크(East River Park)에 대해 높이를 2.4m가량 올리고, 식물은 바다의 염수와 강수량 증가,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는 종으로 대체하여 심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1,000여 그루의 나무를 베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공원을 메우는 것이 포함되었다. 벌목과 공원 매립, 기존 야생동물의 보존과 재배치의 환경적 영향은 철저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Zao). 2013년 방벽 건설 발표 시점에 해안 지역은 인공제방을 쌓는 것보다 사구, 산호초, 해안 식생을 가꾸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자연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개념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 하는데, 자연재해 이후 인간의 방어 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임동욱). 즉 ‘세계에 대한 감각’(the sense of the world)이 요청되는데, Mick Smith(미크 스미스)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감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반응 능력에 개방되게 하고, 이것은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31). 생태적 상상력이 계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비인간과 “함께-되기”(becoming-with), 그리고 비인간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세계 짓기”(worlding)⁴⁾의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세(Anthropocene), 즉 대규모 태풍, 산성화된 바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 같은 인간 이상의(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집합체와 불안하고 무정형의 함께-되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Wright 280).

『벽』의 결말에서 카바나와 히파가 도착한 석유 플랫폼 대신 결코 닿을 수 없는 섬 주변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부유하는 공동체’는 영구적인 영토 정착, 민족국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불)가능한 대안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영토로 직결되는 소속 또는 소유와는 동떨어진, 섬 주변

4) ‘세계 만들기’ 또는 ‘세계 짓기’로 번역되는 worlding은 인간과 비인간의 엄격한 구분을 넘어 물질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에만 임시 정박할 수 있는 ‘부유하는 공동체’는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감성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을 지니며,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반응에 열려 있다. 에스포지토는 『코무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Communitas. Origine e Destino della Comunità*, 1998)의 서문에서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세의 기반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 감성적이거나 전통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이라면, 사회관계의 일면은 ‘공동체화’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공동체 개념을 언급한다. 소속 혹은 소유란 무엇보다 영토와 직결되는 것으로, 영토를 규정하는 것은 ‘점유’의 범주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소유’의 모체가 된다는 것인데(에스포지토, 『코무니타스』 10), 인간에게는 밭 디딜 땅이 필요하며,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을 준다는 점에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해도 -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대안이다 - 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의 어원은 고유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의무사항이나 빛을 공통의 요소로 지녔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며, 무언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덜’ 있어서, 혹은 어떤 결핍이 계기가 되어 모인 것이다(에스포지토, 『코무니타스』 16). 결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위해 ‘선사’(膳賜), 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벽』의 25, 26장에서 출현하는 ‘부유하는 공동체’야말로 결함 있는 인간들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다. 나아가 인간이 일방적으로 지구와 관계 맺은 결과가 『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바, 인간은 지구적 생태 공동체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없으며, 따라서 생태 공동체를 위한 책무가 있다.

(건국대)

■ 주제어

기후 변화, 『벽』, 우리, 타자, 사회체계, 이동성, 상황적 존재

■ 인용문헌

- 셀러, 미미. 『모빌리티 정의』. 최영석 옮김. 서울: 앨피, 2019.
- 에스포지토, 로베르토. 『코뮤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 윤병언 옮김. 크리티카, 2022.
- _____. 『임무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윤병언 옮김. 크리티카, 2022.
- 임동욱. 「자연재해 막는 최고 해법은 ‘자연’」. 『사이언스타임즈』. 22 Jul. 2013.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Accessed 28 Feb. 2023.
- Bergthaller, Hannes. “Beyond Ecological crisis: Niklas Luhmann’s Theory of Social Systems.” *Ecological Thought in German Literature and Culture*. Ed, Gabriel Dürbeck et al. Lanham: Lexington Books, 2017. 119–131.
- Chakrabarty, Dipesh. “Climate and Capital: On Conjoined Histories.” *Critical Inquiry* 41.1 (2014): 1–23.
- Esposito, Roberto. *Term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mmunity, Biopolitics*. Trans. Rhiannon Noel Welch. New York: Fordham UP, 2013.
- Ghosh, Amitav.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U of Chicago P, 2016.
- Hauthal, Janine. “Explain Brexit: (Re-)Thinking the Nexus of Nation and Narration in Pre- and Post-Referendum British Fiction.” *De Gruyter* vii, 331 (2021): 297–321.
- Jay, Nancy. “Gender and Dichotomy.” *Feminist Studies* 7.1 (1981): 38–56.

- Latour, Bruno.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Polity, 2018.
- Lanchester, John. *The Wall*. London: Faber & Faber, 2019.
- Luhmann, Niklas. *Ecological Communication*. Trans. John Bednarz, Jr. Chicago: U of Chicago P, 1989.
- Rychter, Ewa. “Testing the Limits: Boundaries and Fault Lines of Dystopia in John Lanchester’s *The Wall* (2019).” *Polilog: Studia Neofilologiczne* 12 (2022): 291–301.
- Smith, Mick. “Ecological Community, the Sense of the World, and Senseless Extinc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2 (2013): 21–41.
- Urry, John. *Mobilities*. Cambridge: Polity, 2007.
- Wagner, Erica. “The Return of Dystopian Fiction: From Dave Eggers to John Lanchester and Ben Okri to Margaret Atwood, Writers are Crafting Horror Stories that Reflect Our Living Nightmare.” *New Statesman* 20 Mar. 2019. <https://www.newstatesman.com/culture/2019/03/the-return-of-dystopian-fiction>. Accessed 11 Apr. 2023.
- Wittmann, Lucas. “What Goes Down After a Wall Goes Up.” *Time Magazine*, 7 Mar. 2019. <https://time.com/5546787/john-lanchester-the-wall-book-review/>. Accessed 27 Dec. 2022.
- Wright, Kate. “Becoming-With: Living Lexicon for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5 (2014): 277–281.
- Zao, Kellie. “The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breaks ground, but opponents aren’t backing down.” *The Architect’s Newspaper*, 28 May. 2021. <https://www.archpaper.com/2021/05/easr-side-coastal-resiliency-project-breaks-ground-oppon>

- 존 란체스터의 『벽』에 나타난 대격변 시대의 사회체계와 상황적 존재들 | 최은주

ents-arent-backing-down/. Accessed 3 Mar. 2023.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NYC The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https://www.nyc.gov/site/escr/index.page>. Accessed 29 Feb. 2023.

■ Abstract

**The Social System and Situational Existence
of the Cataclysmic Era in John Lanchester's
*The Wall***

Choi, Eunjoo
(Konkuk Univ.)

This paper examines the post (and still ongoing) society of the cataclysmic era and its situational existence in John Lancaster's *The Wall*, which depicts dystopia due to rising sea levels and climate change. The word "situational" is used for those who do not have regular places for themselves and who are likely to be deprived at any time but unlikely to have recoverability in their territories. As Amitav Ghosh pointed out, climate change is an unintended result of humans as a species, and different human groups have contributed to climate change in various ways, but global warming is ultimately the total result of all human actions over a long period. The novel correlates Brexit, which means building a fortress on Britain's island, defending the wall, preventing refugees by making self-isolation choices, and not engaging in relief work on what has not happened in their territories. In the words of Bruno Latour, the New Climate Regime has long swept the border, exposed us to all the storms, and no wall we can build will stop the invaders. In other words, border closures to confront refugees on two legs cannot be limited to countries such as climate, erosion, pollution, resource depletion, and habitat destruction,

and they cannot prevent shapeless movements. In this paper, I will contemplate the ‘between-difference’ of various ‘us’ in *The Wall*, Gosh’s ‘us’ and Latour’s ‘us’ and examine the real alternative possibility of the ‘floating community’ in addition to non-human activities such as cold, wind and typhoon represented in the novel.

■ Key words

climate change, *The Wall*, us, Others, social system, mobility, situational existences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3년 3월 9일 ○심사일: 2023년 4월 10일 ○게재일: 2023년 4월 11일

Scholarship Boys Against the Welfare State:

Critiques of Education and Bureaucracy in Tony Harrison
and Richard Hoggart

Herzog, Matthew*

I. Introduction

The poem I dedicated to you is about that situation. I was not allowed to read poetry by one of the English teachers, because I used to say '*Mi 'art aches and a drowsy numbness*' and he thought of me as a barbarian, you see. (40)

- Tony Harrison, "Richard Hoggart in Conversation with Tony Harrison"

The experience of not being able to read Keats' poem "Ode to a Nightingale" was not just a core educational experience for Tony Harrison, but one where we see how literature and the welfare state of mid-century Britain came together to enact an exclusion within state institutions of working-class people. Harrison's interlocutor in the above interview, Richard Hoggart, was one of the first to experience the way exclusionary practices manifested in terms of education and to go on to write about them. The "Scholarship Boy"

* Lecturer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atthew@jbnu.ac.kr

section of his famous book *Uses of Literacy* began a whole tradition of writing about class, social mobility, and education. Harrison took up this tradition in his poetry and also tapped into another one of Hoggart's thematics: the linguistic conception of "them and us." By interrogating Hoggart's and Harrison's engagement with this linguistic phrase, this article traces how these authors of similar working-class backgrounds and upwardly mobile life-trajectories, but different vocations, public intellectual and poet respectively, engaged with the changing relations of politics and class in twentieth-century Britain. I argue that while both Hoggart and Harrison seek to show how the phrase "them and us" functioned as a critique of welfare state management of the lives of working people, Harrison's poetry, by working from his own experiences and within the transgressive aesthetic of art itself, provides a more direct critique of how the British welfare state sought to manage social mobility during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to bring together the lives and writing of Richard Hoggart and Tony Harrison. However, they themselves engaged with each others' work and published the interview above together. What connects them first and foremost is that they both come from working-class backgrounds and grew up in the Northern city of Leeds. Second, Harrison dedicated one of his most famous poems, analyzed below in this article, "Them and [Uz]" to Hoggart. In making such a dedication, Harrison specifically connected his poetry to Hoggart's writing and marked out Hoggart's influence on himself. Third, "Them and [Uz]" was not just any poem, but a poem about the struggles of working-class students in the new

regime of post-war education that Harrison came of age in. Thus, he engaged specifically with the issues raised by Hoggart and his conception of the “scholarship-boy”. Ultimately, these intertextual engagements reveal how their work needs to be brought into relation and their connections analyzed so that scholars can better understand how the “scholarship-boy” tradition was developed in relation to cultural production.

By bringing Hoggart and Harrison together we can shed light on is how the linguistic conception of “them and us” was at the heart of legitimate grievances over the inner workings of the welfare state and its bureaucratic forms of management of the lives of working people. This is ultimately to say that they remind us that the politics of bureaucracy is a site of social struggle that makes its way into the works of culture whether literary criticism or poetry. Both Hoggart and Harrison remind us of how the Left has sought to legitimate the concerns and criticisms of working-class people against rigid bureaucratic management, a mode of critique that the Right has come to monopolize in our present moment.

II. “Them and Us”:

The Uses of Literacy and The Way We Live Now

Richard Hoggart’s *The Uses of Literacy* (1957) has maintained a canonized place as a founding text of cultural studies. His lengthy corpus of work, moreover, has been receiving renewed attention through a number of recently published books and anthologies^{[WJ].¹⁾}

Hoggart was a prolific writer publishing his first book on W.H. Auden in 1951 while his last book, *Promises to Keep: Thoughts in Old Age*, was published fifty-five years later in 2006. *The Uses of Literacy* is very much a post-war book that vacillates between discussing life and generational experiences before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younger generations immediately after the war. One of Hoggart's main claims is that the conception of "them and us" was stronger among pre-war generations and waned among post-war generations exposed to a new consumer culture. Hoggart opens the third chapter of *Uses*, actually entitled "'Them' and 'Us,'" with an analysis of the word "them" and what it means for working-class people. According to Hoggart, "them" can mean, "the world of the bosses, whether those bosses are private individuals or, as is increasingly the case today, public officials. 'Them' may be, as occasion requires, anyone from the classes outside other than the few individuals from those classes whom working-people know as individuals" (48). In some sense, "them" is a designation for the classes above, and it functions much the same way that "the masses" operates in upper- and upper-middle class discourse to signify the classes below. The term's differences are intimately connected to the social conditions of use: "them" is a pronoun given extra connotative meaning while "masses" is an abstraction that emerged out of educated discourse. The former is a matter of knowing how a group uses and appropriates a common aspect of language while the latter is specific term with a long history in political theory and philosophy.²⁾ Hoggart

1) See Owen 2008; Bailey, Clarke, and Walton 2011; Bailey and Eagleton 2017.

2) See Williams' *Keywords* entry "Masses," pp.192-197.

also gestures towards the ‘localness’ of the use of “them” and how it relates to individuals one knows personally, which is a matter of relations of propinquity. The “us” that Hoggart is describing is locally based while the “them” he defines has access to movement even if it was movement between cities and towns, the urban and the rural. The differences in access to spaces is at the same time a difference in class culture. Social mobility, in this sense, is very much related to physical mobility.

Hoggart’s analysis, though, is not necessarily free from the ideologies of the time, and there is a certain Cold War rhetoric that seeps into his discussion. He tells us that “This is not the ‘Them’ of some European proletariates, of secret police, open brutality, and sudden disappearances” (49). This is to say that the usage is not continental and Marxist, but rather, its use refers to the liberal capitalist order. This is where Hoggart’s ethical socialism could fit in with the Cold War critique of communism, and here it comes closer to Labourism and has no qualms about tapping into Cold War rhetoric that distinguished a sort of British social democracy from European radical traditions and the communism of Russia. Hoggart flirted extensively with the right-wing of the Labour party all his life. Indeed, as Bailey et. al. write in their work *Understanding Richard Hoggart*, “in 1981 he became a member of the Atlanticist right-wing Committee for a Free World, where he kept company for a while with Sir James Goldsmith, Peregrine Worsthorne, and an array of Thatcherite, Reaganite, and Zionist luminaries” (97). However, it also needs to be mentioned that Hoggart’s reformist response was also a reply to radical and romantic left-wing ideas of revolution. Hoggart, coming

from a working-class background, was keen on how often in western capitalist democracies, it was revolutionaries from the upper-classes that romantically called for abstract communism while the working-classes persevered in the long and arduous work of reform. Raymond Williams discusses a similar point in his famous essay, "Culture is Ordinary": "I got angry at my friends' talk about the ignorant masses: one kind of Communist has always talked like this" (7). Thus, Hoggart vacillated between a "fellow-traveller" of both the right and the left, which makes his own ethical socialism seem, at times, opportunist.

Moreover, this raises the difficulty of recognizing the lines of identification happening in Hoggart's conception of "them." On the one hand, those to the left of Hoggart could criticize his distinction between British social democracy and the traditions of communism. The two histories were intimately interwoven and, with historical distance today, we can see how welfare capitalism was defeated by its own other, neoliberal capitalism and not the communism of Russia. It is here that one limit in Hoggart's thought is brought to light: its confidence that capitalism can be controlled via a more ethical arrangement of the capitalist order. Hoggart's mid-century "them" is one used by those side-lined by the complexity of capitalist democracy and its growing bureaucratic forms in the twentieth century. He explains that "Working-class people have had years of experience of waiting at labour-exchanges, at the panel doctor's and at hospitals" (48). "Them" comes to signify the managers and administrators as well as educated specialists and the salaried white-collar workers below them, with all of these social actors moving and managing working-class people through different forms of bureaucracy. Hoggart

goes on to state that “They get something of their own back by always blaming the experts, with or without justification, if something goes wrong – ‘Ah never ought to ‘ave lost that child if that doctor ‘ad known what ‘e was doing” (49). To maintain dignity under the pressures of bureaucratically managed life, working-class people vent their frustrations at the managers and administrators to each other by talking about “them.”

What Hoggart seeks to do is to valorize why this is a legitimate response in light of how working-class anger as an emotion was often seen as irrational and uncivil while working-class speech was perceived as uneducated and incorrect, a theme that Harrison will pick up on. Further, Hoggart’s own use of transcribing accents in writing comes in with this quote. One can see how he picks up from novelists the representation of dialect. This is the literary side of Hoggart’s sociological writing: he is not directly quoting participants in an ethnographic study, but rather using his authority as a public intellectual and literary critic to construct his examples. The quotes he provides are fictional but composed by someone who grew up in a working-class neighborhood and knows the people and the way they talk.

Certainly, this aspect of Hoggart’s sociological approach would never be accepted as academic sociology. Yet, writing for a larger public, Hoggart was able to be an immensely effective author in bringing to light class disparities in mid-century British society. Modified conceptions of ‘imagination’ became a practical tool for mid-century intellectuals to blend the sociological, the literary, and the historical, the most famous of which being C. Wrigh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Qualifying the concept of ‘imagination’ with field-specific modifiers allowed these writers to flesh out the specific functions of the imaginary of specific intellectual and artistic fields. Hoggart engaged this modified conception of imagination in his essay,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In the piece, he notes how these faculties complement the writer and social scientist alike: “a writer may have at least as many ‘facts’ to work on as a social scientist. And that he orders them so as to make ‘significant detail’ not by conscious, controlled aggregation but by imaginative power. His imaginative power is the social scientist’s capacity to frame hypotheses; or the other way round, the social scientist’s capacity to find hypotheses is decided by his imaginative power” (249). For Hoggart, the writer and the social scientist are corresponding types who are bound up with similar forms of work and writing. This fusion of writer and sociologist, of the literary and sociological imaginations, can be seen in the work of Hoggart himself as well as Harrison’s poetry. Exploring the connections between Hoggart and Harrison allow us to see how these relations manifested in the scholarly and artistic fields of the time, and what this engagement meant for mid-century literary history.

Hoggart’s dual conception of ‘imagination’ provides one framework to productively read his and Harrison’s work together: Hoggart privilege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and puts the literary imagination in service of it while, for Harrison, the literary imagination is paramount and supplemented by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A parallel chiasmus emerges with Hoggart with as the literary sociologist and Harrison as the sociological poet. At the level of their own

writing, the way into this relation is through the writers' shared interest in the linguistic conception of "them and us" or, as Harrison forms it, "them and [uz]." Through this conception, Hoggart and Harrison were able to focus and form the sociological and literary dimensions of class, culture,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imaginative language of their own writing. Working through how both Hoggart and Harrison used these forms of imagination to mold their linguistic conceptions of "them and us" is to attempt to grasp the complex lines of affiliation that grew out of a shared interest in the sociological and the literary.

Hoggart's valorization of the implicit critique contained within the working-class meaning of "them" is important, and what needs to be brought out is how this functions as a critique of the welfare state and its forms of social democracy. While Hoggart was not one to ruffle too many feathers with passionate political statements, he was a writer who often left much of his politics between the lines of his work. The way he unpacks the meaning of "them" is an implicit indictment of the failings of the welfare state and how it turned from a project of democratization into one of management. Hoggart experienced this first hand, and it is at the core of his conception of the "scholarship boy," a figure discussed later in *The Uses of Literacy*. Education was a crucial site for the problems of the welfare state: on the one hand, it allowed working-class youth who submitted themselves to the autho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o be upwardly mobile, moving from one of the managed into one of the managers; yet, on the other hand, it was this very submission that was itself a symbolic violence that cut off ties to family and community that upwardly

mobile youth hailed from.

Hoggart begins his chapter on the “scholarship boy” with a quote from Chekhov that encapsulates the core problem of the position: how to have autonomy when the price of upward mobility is submission. Indeed, the Chekhov quote is worth reproducing because its poignant insights helps illuminate Hoggart’s thinking. In *A Life in Letters*, Chekhov writes to Alexey Suvorin of the restlessness of the “scholarship boy” in freeing themselves from their own submissiveness:

What upper-class writers have always taken for granted, those from humbler origins must sacrifice their youth to acquire. Try writing a story about a young man, son of a serf, a former shop boy and chorister, schoolboy and student . . . go on to tell the story of how this young man drop by drop wrings the slave out of himself until, one fine morning, he awakes to feel that flowing in his veins is no longer the blood of a slave, but that of a complete human being. (175)

The dialectic of autonomy and slavery is at the core of Hoggart’s conception of the “scholarship boy,” and he foregrounds it precisely with the quote from Chekhov as he starts the chapter. Hoggart’s own diagnosis is not necessarily flattering to the figure that he himself represents. According to Hoggart, the “scholarship boy” is talented in terms of the “brains” he has and how far that can take him in his education, “But he is not a ‘creative genius’. He is clever enough to take himself out of his class mentally, but not equipped, mentally or emotionally, to surmount the problems that follow” (248). Indeed, these problems are the violence of the welfare state system and how it manages citizens. While the “scholarship boy” may be “between two worlds” as Hoggart phrased the title of one of his collections of

essays, he lives in neither unable to lose his self-consciousness and just “be” in either world. Ultimately, even though there is a tinge of Cold War rhetoric in Hoggart’s early work, it is difficult not to read his work on the “scholarship boy” as an implicit critiqu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kinds of social mobility that it offered. It is from a position of ethics that so much of his work on the “scholarship boy” is grounded. Hoggart highlight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ethical to uproot young people from their home lives and propel them into a different culture and world through education. This is to raise the further point as to why it is that there is such a divide between these two worlds and why there is such a difficult gap to cross. Hoggart might answer that the welfare state still rem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what Hoggart would call, following the work of R.H. Tawney, the acquisitive society.

Hoggart’s *The Way We Live Now* (1995) is in some ways a companion text and sequel to *The Uses of Literacy*. Yet, as Jim McGuigan notes, scholars in cultural studies, “may not have even heard of *The Way We Live Now*” (75). This is an unfortunate situation because it is in *The Way We Live Now* that Hoggart returns to and comments on concepts and ideas from *The Uses of Literacy*. When he returns to the notion of “them and us” forty years later in *The Way We Live Now*, it is now to understand the rise of relativism. The conception has, in the mid-nineties, become “just us – or just them.” Not only has the consumer society eroded a sense of social bonds, but over a decade of Thatcherism and neoliberal policies have brought about a new sense of social relations where every social group’s own immediate culture is “the real world.”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ccording to Hoggart “need relativism; it is the perfect soil for their endless always changing urges” (6). This idea of change in these types of societies is important for Hoggart. The persuaders behind the massive systems of communication and profit driven consumption have an interest in constantly promoting change for some while also at the same time keeping the status quo for others. With classes high, middle, and low all being targeted with different messages about what to buy and why, the process ends up creating “A society of beliefs, of different beliefs, divides, splits people into majorities and, worse, awkward minorities. Some well-heeled minorities can by now be addressed with profit. But that specialized provision is inextricably related to the fact that others, the great body of people, are more and more led towards having undifferentiated, shared, but always changing tastes” (6). Thus, change for all, but distinction for only a minority: the wealthy and “well-heeled.”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t is consumption itself that becomes definitive of self-realization for a wealthy minority while everyone else is reduced to the standards of the lowest-common denominator. Yet, this standard itself is fractured as different locales, and groups are target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using marketing research, which results in the promotion and reinforcement of local tastes and group preferences. This is the world of “just them” and “just us.” It is a world where people feel cut off from each other as if different groups inhabit different islands. The dichotomy of “them and us” has, by the nineties, been taken to its extreme to the point where it has been shattered so that few can even understand who “us” is in such a fractured world. For Hoggart, the phrase had morphed and changed

to such an extent it could no longer maintain its older significations. Hoggart used his writing to trace these social changes and combat them from a deeply moral position that he gained from the literary traditions he was so well-versed in.

III. Them and [Uz]: *The School of Eloquence* and *V*.

Whereas Hoggart sought to orient himself as a public intellectual drawing on a long history of writing about “culture and society,” Harrison saw himself as a poet and artist taking revenge for how “Received Pronunciation” was forced on him in school. In turn, the criticism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way that it forced unsupportive forms of socialization on young working-class boys are at the heart of Harrison’s work. Unlike Hoggart, these are not implicit criticisms left between the lines but the very matter that composes Harrison’s poetry. Politics, then, is at the forefront of Harrison’s writing in a way that it is not in Hoggart’s more reserved prose. In an interview with Hoggart himself, Harrison states how revenge was a factor in different works and was particularly related to “that schoolteacher I wrote about in the poem I dedicated to you” (44). Harrison states that “Leeds Grammar School, to which I won one of six scholarships for the plebs, seemed to me a class conspiracy” (“Inkwell” 83). The conspiracy was deeply connected to the problems of the post-war welfare state and how it engaged in overt attempts to resocialize the language and habits of “scholarship boys” like Hoggart and Harrison. It was an ideological process that left its mark on both authors. In his

interview with Hoggart, Harrison notes, “Looking back I can think there was a kind of aggro in my writing. I wanted to do it, make things that were classically formed, but in my own voice” (40). In Harrison’s context, doing classical styles in his own voice could only be a form of aggression. William Fogarty writes of Harrison, “His work . . . aims to connect individual experience and social reality, and to enact the disruptions produced by hierarchical class divisions” (226). In this sense, Harrison blends the pre-war concern for “them and us” but forms it in the developing spirit of youth culture and rebellion of the post-war era. Yet, he also understood the need for discipline and spoke to Hoggart of his need for a rigorous form like poetry: “Yes, well I’m a very passionate person. And I feel that I need a way I can control what I say” (43). While Hoggart seeks to give legitimacy to such rage in disciplined and distanced prose, Harrison forms it into a controlled unit in his poetry that expresses the aggression itself and makes it poetic.

It is this very symbolic violence and suffering that Harrison foregrounds in his poem “Them & [Uz].” The poem has a direct connection to Hoggart in that when it was published in 1978, it was dedicated to both Hoggart and the actor Leon Cortez. Harrison was one of a small few who came of ag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actually did have an older sense of “them and us.” Harrison’s affinity with the conception of “them and us” of the pre-war generations is likely connected to a social trajectory that paralleled Hoggart’s own. Indeed, Hoggart’s image was one way Harrison represented his vision of Leeds: “In our street in Hoggarty Leeds I was the only one who used his literacy to read books, the only ‘scholar’” (“Inkwell” 82). In a

poetic turn on Hoggart's name, Harrison transforms it into an adjective, describing the city when discussing his literacy and background. Similar to Hoggart, Harrison grew up in a working-class neighborhood in this northern city. He followed Hoggart in his scholarly ambitions and received scholarships to grammar school and the University of Leeds, Hoggart's alma mater.

If we turn to Harrison's poem, it explicitly uses the conception of "Them & [Uz]" which, according to Joe Kelleher in his book on Harrison, is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the pronoun" (43). This phonetic transcription, [Uz], develops Hoggart's uses of the linguistic phrase and adds to it the northern Leeds accent. Harrison, then, moves away from Hoggart's use of novelistic styles for reproducing linguistic accents in writing and on to a poetic use of the IPA or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Harrison explicitly locates how politics manifests in the realm of language. As Fogarty has recently written, "Harrison's work, however, belies the notion that explicit political dissent in poetry inherently opposes inherited poetic forms. His arrangements of different forms of speech . . . rebuke prescriptions about the kinds of speech deemed suitable for poetry" (210). Harrison's work continues the debate between aesthetics and politics, and his work clearly falls on the side of politics. Yet, his explicit aesthetic engagements blend the two in ways that are productive in terms of their critique.

The narrative of "Them and [Uz]" is that of Harrison's own cultural education at his grammar school. It contains two voices, namely that of Harrison's teacher and that of Harrison himself. "Them & [Uz]" directly confronts the issues of accent and cultural production

as the voice of the teacher scolds Harrison to speak in “Received Pronunciation” and gives him only the minor parts in Shakespeare written in prose as opposed to the main roles written in verse. The poem begins with Harrison identifying himself as a “stutterer Demosthenes.” This contradiction encapsulates Harrison himself: considered to not speak properly while being student of classical literature, he became a stuttering version of the Greek orator Demosthenes (Kennedy 514–523).

The core of the poem is the problem of “Received Pronunciation” and its use by the figure of the teacher. The conflict is introduced with the words of the narrator and the figure of the teacher in a heated exchange: “4 words only of *mi ‘art aches* and . . . ‘Mines broken, / you barbarian T.W.!’ *He* was nicely spoken” (133). Harrison reveals how the teacher is quick to twist the language of the student. The teacher intrudes and plays off of the phrase “*mi ‘art aches*” by cutting off the speaker and inserting his own ironic rhetoric of “Mines broken.” Indeed, when the figure of the teacher replies “Mine’s broken,” he is lamenting the narrator’s way of speaking itself, going so far as to refer to a person with such pronunciation as a “barbarian.” The exchange is quick, but Harrison imbues it with layers of meaning. We see how the figure of the teacher wittily plays with and puns off of his young students and how they speak. This overbearing use of authority, though, is then contrasted with the moral status of the teacher that comes from his accent: “*He* was a nicely spoken person.” Harrison opens up how being nicely spoken translates into that moral value of being nice in itself.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heated exchange, the figure of the teacher was anything but nice to his

working-class pupils.

Next, Harrison depicts what Eric Hobsbawm calls an “invented tradition.” For Hobsbawm, invented traditions were social constructions:

[Invented traditions are] a set of practices, normally governed by overtly or tacitly accepted rules and of a ritual or symbolic nature, which seek to inculcate certain values and norms of behavior by repetition, which automatically implies continuity with the past. In fact, where possible they normally attempt to establish continuity with a suitable historic past.
(1)

Indeed, this plays out in Harrison’s next lines in the poem: “Can’t have our glorious heritage done to death!’ / I played the Drunken Porter in Macbeth / ‘Poetry’s the speech of kings. You’re one of those / Shakespeare gives the comic bits to: prose!” (133). The invented tradition at work is the relation between a certain accent and the British dramatic tradition. “Our glorious heritage” is governed by the implicit rules of proper speech, which in that sense shows the inherent class contradiction in the words of the figure of the teacher. This figure can say the heritage is “ours” in the nationalistic sense of all figures in the poem, including Shakespeare. However, this tradition is not the tradition of those who do not speak with the proper accent, at least according to the teacher’s conception.

It is at this point Harrison comes to the invocation of Received Pronunciation. As Lynda Mugglestone explains, Received Pronunciation or “RP” was meant to solve the issue of accent in Britain by creating a standardized way of speaking: “Non-localized, betraying little (if anything) of the speaker’s place of birth, ‘received pronunciation’, and

approximations to it, were to meet that desire for a geographically neutral accent” (258). In Harrison’s poem, the teacher tells the narrator, “All poetry (even Cockney Keats?) you see / ’s been dubbed by [AS] into RP, / Received Pronunciation, please believe [AS] / your speech is in the hands of the Receivers / ‘We say [AS] not [uz], T.W.” (133). Importantly, the concept of Received Pronunciation has a very specific class background, and Harrison taps directly into this, mentioning the concept’s twentieth-century proponent, the phonetician Daniel Jones. Harrison writes later that “I chewed up Littererchewer and spat the bones / into the lap of dozing Daniel Jones” (134). Jones himself was keen to mention the intersection of class and education at the core of the concept. However, this is not done in a critical way in his *English Pronunciation Dictionary*, but rather with the attempt to deny that Jones’ work is sanctioning a certain way of speaking. Jones writes, “The pronunciation represented in this book is that which I believe to be very usually heard in everyday speech in the families of Southern English people who have been educated at the public schools.” (xvii). Jones was very specific that he was tracing the speech patterns of the British upper-middle classes. He even discusses how the process that Harrison marks out happened at the public schools themselves:

I believe that the pronunciation above referred to is readily understood in most part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This result is perhaps due to the boarding-school system of education prevalent in England. For centuries past, boys from all parts of Great Britain have been educated together in boarding-schools. If a boy in such a school has a marked local peculiarity in his pronunciation, it generally disappears or is

modified during his school care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t mode of speaking which he hears continually around him, (xvii)

Yet, despite Jones' sanctioning this way of speaking by writing a whole book about it, he claims that "I should like it to be understood, however, that RP means merely 'widely understood pronunciation,' and that I do not hold it up as a standard which everyone is recommended to adopt" (xviii). Harrison shows how, despite Jones' desire, this is exactly what Received Pronunciation became: a standard against which other forms of speech were measured and criticized. As Mugglestone writes, "Early twentieth-century accounts of speech – and the associated complexities of 'talking proper' – therefore in some ways further signal the divide between the new (and intentionally objective) era of linguistics, and the subjectivities which had in many instances served to mar the insights of the past" (265). Harrison ultimately uses the concept of Received Pronunciation as a site for the conflict between the "them" represented by the figure of the teacher and the [uz] represented by the working-class narrator in the poem. His direct reference to Jones, shows how he uses poetry to upend the attempted "objectivity" of linguistics that tries to claim to be an objective science of language operating outside the bounds of social norms, expectations, and conventions.

Harrison's poem *V.* took his critique one step further. In this work, Harrison engages the figure of the "skinhead," a white-working class conservative sub-culture that arose in the wake of the explosion of youth sub-cultures in the 1960s and 1970s as well as the rise of the National Front, a fascist movement that threatened to enter

parliamentary politics in the 1970s. According to Clarke and Jefferson, in their work on sub-cultural styles, skinheads “were a reaction against contamination of the parent culture by middle class values, and a reassertion of the integral values of working-class culture through its most recessive traits: puritanism and chauvinism. The puritanism crystallized in opposition to the hedonistic greasers and hippies and the chauvinism in ‘Queer Bashing’” (13-14). The skinhead was a right-wing manifestation of sub-cultural rebellion. Skinheads found community in the “territoriality” of football and felt bonded over white racial group identification against incoming immigrant populations, especially those from South Asia (Clarke 15-16). Importantly, the skinhead sub-culture was a post-war development amongst working-class youth that emphasized the conservative elements of working-class culture against the hegemony of a growing educated liberal middle-class culture. Racism and a xenophobic hatred of immigrants was where the skinheads and National Front politics came to find common ground.

By having a dialogue with the figure of the skinhead, Harrison foregrounds the problem of politics and class that have changed in the era of neoliberal Thatcherism. “Them and us” has radically transformed in meaning: “class v. class as bitter as before, / the unending violence of US and Them, / personified in 1984” (266). In using the poetic and symbolic device of “V.” or “versus,” Harrison brings out the new divides growing in society. The mid-century consensus between labor and capital has ended. Welfare state management, despite its problems, has now been concluded, and there was a return to class warfare. This, as Harrison rightly remarks,

is represented by the miner's strike of 1984, now considered a watershed moment in the rise of neoliberalism where Thatcher consolidated power. As Harrison goes on, he connects the neoliberal offensive against Labour with the rise of right-wing fascist movements: "The prospects for the present aren't too grand / when a swastika with NF (National Front)'s / sprayed on a grave" (266). This image invokes the death of a certain kind of Labour activism and in many ways foreshadows the rise of the Blairite incarnation of the Labour party as one amenable to the interests of big business and ready to blame the working-classes for their own marginalization in society.

Harrison, however, does not engage in this practice. He, instead, develops a dialogue with the figure of the skinhead in his poem as a way of self-critique. Speaking of the figure of the skinhead, Harrison writes, "It isn't all his fault though. Much is ours" (267). Here the poe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of the situation. He was able to get out of the working-class as a "scholarship boy" and even gain acceptance as a poet in the centers of cultural production. Yet,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in a poetic twist, Harrison unravels his own relationship with this figure of the skinhead to the point where it is revealed that the skinhead is Harrison himself displaced into a different time. Fogarty writes of Harrison's *V*. that "Both inclined to respond to conditions that oppress and anger them, the speaker and the skinhead each represent an aspect of the artist whose individual concerns are also social concerns" (223). We are given the first indications of this when he writes: "I shouted, turning where I thought the voice had been" (270). Harrison is literally haunted by the voices

of the working-classes that have been left behind and are being crushed under the new neoliberal regime. Harrison even identifies with these youths telling us “I had all your aggro in my jeering” and “I could run as fast as you then” (272). The figure of the skinhead rebukes Harrison, “*Don’t talk to me of fucking representing / the class yer were born into any more*” (273). Even though the poet-narrator seeks to show the young angry working-class figure that he comes from a similar place, the current class distance that separates them is too vast. Harrison is indicted for becoming a “scholarship boy” representing the class to the outside world. Yet, at the height of the poem, the figure of the skinhead goes to write his name in spray paint, and we are told: “He aerosalled his name. And it was mine” (273). It is this poetic turn, where the figure of the skinhead is both a voice haunting Harrison’s poetic persona, and, indeed, Harrison himself if he grew up in a different time.

Harrison is able not only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a working-class youth that came to embody conservative ideas and practices in post-industrial society, but to identify with this youth and upend the neoliberal politics of Labour and the Tories that sought to leave them behind. Of course, Harrison did not identify with the ideas or politics of skinheads. The figure of the skinhead, though, is the youthful specter of class, haunting the poet in his middle years. Harrison’s poem gestures at how historical forces shape the politics and cultural associations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how he, now a famous poet, could have easily become the skinhead in his poem had he also grown up in the same era.

Thus, while both of Hoggart’s and Harrison’s later conceptions of

“them and us” detail the fragmentation and the dominance of the consumer society, and essentially the breakdown of the possibility of an “us,” what Harrison’s poem is able to do is gesture towards going past the stark divisions brought about by Thatcherism, consumerism, and post-industrialization. Harrison reflexively engages with the post-industrial political realignment. In this sense, Harrison’s poem provides a radical supplement to Hoggart’s more nuanced and restrained prose that can speak about fragmentation, but not get at the complex political affiliations that have arisen in response to it. Harrison’s work gestures at how those on the left can engage a working-class with a conservative political alignment. In this sense, both Hoggart and Harrison foreshadow many of the more explicit problems of British politics today, from Brexit to the rise of nationalism, that were at work in the margins of their own time. Returning to their writing, then, and trac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their conceptions of “them and us” can help us to understand our own moment with more clarity.

IV. Conclusion

Richard Hoggart and Tony Harrison both articulated a critique of the welfare state management of working peoples’ lives. While they traced developments of working-class life and advocated for more state intervention on their behalf, they were also critical of how the working-classes were left to the meaninglessness of a consumerism that they could never fully participate in and at the same time how

they were abandoned and beaten into submission by an establishment that blamed them for their own exclusion from society. What both writers show is that the paternalism of management and the disregard embodied in neoliberal abandonment are two positions, from which those in the upper-classes seek to relate to the ordinary workers of Britain. As “scholarship boys,” they knew both of these worlds: that of workers and that of the elites who sought to manage them or enacted indifference towards them. Yet, they also went beyond being “scholarship boys,” or those who were good at school but unable to deal with the larger upper-class world they found themselves to be a part of. Hoggart and Harrison engaged this world in a critical way and sought to hold it to account and in this sense, they were more than “scholarship boys.” They both became critical intellectuals and writers.

(Jeonbuk National Univ.)

■ Key Words

Richard Hoggart, Tony Harrison, *The Uses of Literacy*, *The Way We Live Now*, “Them and [Uz]”, *V.*, the Welfare State, Neoliberalism

■ Works Cited

- Bailey, Michael, Ben Clarke, and John K. Walton. *Understanding Richard Hoggart: A Pedagogy of Hope*. Oxford: Blackwell, 2012.
- Bailey, Michael and Mary Eagleton, Eds. *Richard Hoggart: Culture and Critique*. Nottingham: Critical, Cultural and Communications P. 2011.
- Chekhov, Anton. *A Life in Letters*. Trans. Rosamund Bartlett and Anthony Phillips. Ed. Rosamund Bartlett. London: Penguin, 2004.
- Clarke, John, and Tony Jefferson. *Working Class Youth Cultures*. Birmingham: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U of Birmingham, 1973.
- Fogarty, William. "The Rhubarbarian's Redress: Tony Harrison and the Politics of Speech." *Twentieth-Century Literature* 66.2 (2020): 207–232.
- Harrison, Tony. "The Inkwell of Dr Agrippa". *The Inky Digit of Defiance: Selected Prose 1966–2016*. Ed. Edith Hall. London: Faber and Faber, 2017. 81–86.
- _____. "Them & [uz]". *Collected Poems*. London: Penguin, 2007. 133–134.
- _____. "V.", *Collected Poems*. London: Penguin, 2007. 263–279.
- Hobsbawm, Eric.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 *The Invention of Tradition*. Ed.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Cambridge: Cambridge UP, 1983.

- Hoggart, Richard. "In Conversation with Tony Harrison." *Tony Harrison*. Ed. Neil Astley. New Castle: Bloodaxe Books, 1991. 36-45.
- _____.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Speaking to Each Other Volume II: About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260-274.
- _____. *The Uses of Literacy: Changing Patters in English Mass Culture*. Boston: Beacon Press, 1957.
- _____. *The Way We Live Now*. London: Chatto & Windus, 1995.
- Jones, Daniel. *Everyman's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 1917. Ed. A.C. Gimson. London: J.M. Dent & Sons, 1969.
- Kelleher, Joe. *Tony Harrison*. Devon: Northcote House Publishers, 1996.
- Kennedy, George A. "Oratory". *The Cambridge History of Classical Greek Literature*. Ed. P. Easterling and B. Knox. Cambridge: Cambridge UP. 498-526.
- McGuigan, Jim. "Richard Hoggart and The Way We Live Now". *Richard Hoggart and Cultural Studies*. Ed. Sue Owe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75-87.
- Mugglestone, Lynda. *'Talking Proper': The Rise of Accent as Social Symbol*. Oxford: Oxford UP, 2003.
- Owen, Sue, Ed. *Richard Hoggart and Cultural Stud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Williams, Raymond. "Culture is Ordinary." *Resources of Hope*. Ed. Robin Gable. New York: Verso, 1989. 3-18.
- _____.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P, 1985.

■ Abstract

Scholarship Boys Against the Welfare State: Critiques of Education and Bureaucracy in Tony Harrison and Richard Hoggart

Herzog, Matthew
(Jeonbuk National Univ.)

The connections between one of the founders of British cultural studies, Richard Hoggart, and the poet Tony Harrison have been little studied. However, both of these writers were what Richard Hoggart termed “scholarship boys”: they came from working-class backgrounds and were upwardly mobile through education. It is often thought that Hoggart and Harrison solely represent a kind of left-labourism that tries to provide state support for the working classes. Yet, what this article seeks to expand on is how both Hoggart and Harrison were actually staunch critics of the Welfare state and how it sought to manage the lives of working people. By analyzing their shared use of the linguistic phrase, “them and us,” in their work, I trace how both writers engaged in critiques of the mid-century Welfare state as well as late twentieth-century neoliberal politics and the consumer society. Specifically, I look at how Harrison’s transgressive poetics registers a more sympathetic relation to working people in a way that Hoggart’s nuanced prose cannot.

■ Key words

Richard Hoggart, Tony Harrison, *The Uses of Literacy*, *The Way We Live Now*, “Them and [Uz]”, *V.*, the Welfare State, Neoliberalism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23년 3월 27일 ○심사일: 2023년 4월 10일 ○게재일: 2023년 4월 11일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제1조 (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동국대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는 영어권 문화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를 발간한다.
- (2) 본 학술지는 영어권문화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 (학술지 발간 일정)

- (1)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 발간한다.
- (2) [원고 접수와 심사] 원고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1권은 2월 28일, 2권은 6월 30일, 그리고 3권은 10월 31일로 하고 이때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호 게재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한보다 늦게 투고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및 심사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투고 및 심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9)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11) 편집위원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에 맞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루 선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두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원고는 공정한 투고 시스템을 사용해 모집한다.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에 해당분야 책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논문 주제의 창의성, 2) 논문 주제의 시의성, 3) 논지의 명확성 및 일관성, 4) 논리적 논지 전개, 5) 논문의 가독성, 6) 학문적 기여도와 같은 논문의 질적 심사와 7) 논문 형식의 적합성, 8) 인용문헌의 적합성 및 정확성, 9) 논문 초록의 적절성, 10) 논문 작성법(MLA) 준수 등과 같은 형식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게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6)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게재 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나) 수정 후 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다) 수정 후 재심사: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에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그보다 하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라) 게재 불가: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 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계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를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1. 논문의 구성

- (1) 제목 : 제목은 논문보다 큰 글자(14 포인트)를 사용하고 부제목 (12 포인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목 다음에 콜론을 찍고 부제목을 쓴다. 작품제목은 영어로 쓴다.

예: 브라이언 프리엘의 휴머니티 이념: Translations를 중심으로

(2) 논문의 소제목

로마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 서론부분: I. 서론 (영문논문의 경우, I. Introduction)
- 본론부분: II, III, IV. . . (구체적 소제목 명기는 저자의 필요에 따른다)
- 결론부분: V. 결론 (영문논문의 경우, V. Conclusion)

(3) 필자이름

- ▶ 논문 서두 우측 상단에 위치. 한글 성명을 쓴다.

예 : 홍길동

- ▶ 논문 본문 마지막, 주제어 전에 소속 학교 명칭을 넣는다.

예 : 동국대

- ▶ Abstract 경우에는 영문 성명 아래 영문 학교 명칭을 쓴다.

예 : Hong, Kil Dong (or Kil-Dong)

(HanKuk University)

- ▶ 영문 성명은 Hong, Kil Dong으로 한다.

- ▶ 공동필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필자가 제1필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필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4) 참고 / 인용 문헌(References / Works Cited)

본문이 끝난 뒤 반드시 인용 문헌(11 포인트)이라는 제목 하에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하고 인용 문헌이 끝나면 20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5) 영문 요약

논문제목(14 포인트)은 영어로 쓴다. 제목 1줄 밑 오른쪽 끝에는 필자의 영문이름을 쓴다.

예: Myth-seeking Journey in Brian Friel

Hong, Gil Dong
(Dongguk University)

The theme of rebirth in Brian Friel is well expounded in many aspects : . . .

Its main objective is. . . .

(6) 주제어

본문이 끝나면 2줄을 띄고, 한글 논문인 경우 “주제어”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한다. 그리고, 영문초록이 끝나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7) 본문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로 하되 줄 사이의 간격 비율은 160으로 한다.

2. 한글 논문에서의 외국어 사용

- 고유명사의 경우 작품명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인명은 우리말로 옮겨 적되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른다.
- 처음 나오는 모든 외국어는 괄호 속에 원어를 제시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제시가 필요 없다. 작품명과 번역된 저서명은 처음에 번역한 제목을 『 』 안에 쓰고 이어서 () 안에 원어 제목을 병기하고, 그 다음에는 번역된 제목만 쓴다. 한글 논문 제목은 「 」 안에 쓴다.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3. 강조와 들여쓰기 (Indentation)

- (1)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혹 밑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 안에 쓰며, 인용문 중 강조 부분은 원저자의 명기에 따르고, 논문 필자의 강조는 이탤릭체로 쓰며 인용문 끝 출처 표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 모든 새로운 문단은 두 글자만큼(타자 철자 5칸) 들여쓰기를 한다.

4. 인용 및 출처 밝히기

모든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고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원문을 덧붙인다.

- (1) 직접인용의 경우
 - 한글로 된 번역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 안에 출처를 밝히고 괄호 밖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

은 죽지만 비극 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55-56).

- 외국어 원본에서 인용할 경우 “ ” 안에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안에 원문을 쓴 후에 적절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예: “역설적으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저급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열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구축한다”

(Paradoxically, O'Neill's characters achieve their greatness through passions that might be thought of as base. 428-29).

예: “어제의 고통”(yesterday's pain, 471)

(2) 간접인용의 경우 출처는 문장의 마지막에 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안에 쪽수를 밝히고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55-56).

(3) 독립인용문

- 두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의 첫 줄은 어느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쓴다. 또한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9 포인트의 글자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좌우를 5칸 정도 본문보다 들어가게 한다.

- 괄호를 사용하여 독립인용문의 출처를 밝힌다. 본문 중 인용과 달리 인용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 다음 괄호를 시작한다.

예: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15)

(4) 인용문중 논문 필자의 첨삭

- 인용문의 중간부분을 논문필자가 생략할 경우 마침표 세 개를 한 칸 씩 띄운다.

예: 길을 가다 . . .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 . . . (뒤를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에)

- 인용문의 대명사나 논문의 맥락에 맞춰 의미를 논문 필자가 지칭하여 밝힐 때 대명사나 어구 다음 []안에 쓴다.

예: In his [John F. Kennedy's] address, "new frontier" means . . .

(5) 구두점과 인용문

- 따옴표와 함께 마침표(또는 쉼표)를 사용할 때 마침표(또는 쉼표)는 따옴표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처를 병기하여 밝힐 때는 '출처 밝히기' 원칙에 먼저 따른다.

예: 인호는 "영어," "불어"에 능통하다고 "철수가 주장했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55-56).

5. 영문원고 및 영문요약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6. 서지 사항

(1) 인용 문헌이라는 제목 하에 밝히되 모든 출전은 저자 항목, 서명 항목, 출판 배경 항목, 쪽수 항목 등의 순서로 적는다. 그리고 항목 내의 세

부 사항은 MLA 최신판의 규정을 따른다.

- (2) 단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헌을 명기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저자 항목: 원저자의 한국어 발음 이름 중 성, 심표,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번역자 항목: 번역자 이름을 쓰고 “역”을 붙인다.
 - 서명 항목: 번역된 책 명을 겹낫표 안에 쓰고 괄호 안에 원서 명을 이탤릭체로 쓴다.
 - 출판 배경 항목: 번역서의 출판 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순으로 쓴다.
예: 윌리엄스, 레이몬드.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 (3) 하나의 문헌에 관한 서지항목의 길이가 길어서 한 줄 이상이 될 때 두 번째 줄부터 6칸 들여 쓰도록 한다.
- 예: Lewis, C. S. “View Point: C. S. Lewi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10-22.
- (4) 외국문헌 서지목록에 국내문헌도 함께 포함시킬 때는 국내문헌을 가나다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 (5) 외국대학 출판사의 경우 University는 U로 Press는 P로 줄여쓴다. 외국출판사의 경우 Publishers, Press, and Co., 등의 약호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머리 이름만 쓴다.
- 예: Harper, Norton, Houghton, Routledge 등.
예외로 Random House로 표기한다.

- (6) 같은 저자의 2개 이상 출판물을 명기할 때는 두 번째부터 저자이름은 다섯칸의 밑줄로 처리한다. (_____.)
- (7) 공동저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저자가 제1 저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 저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8) 기타 상세한 논문 작성법은 MLA 최신판을 따르고 그 기준을 한국어 논문 작성법에 응용하도록 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1. [학술지 발간] 매년 4월 30일, 8월 31, 12월 31일 연 3회 발행하며, 한글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2. [원고 제출시한] 1권은 2월 28일, 2권은 6월 30일, 그리고 3권 10월 31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예정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번역,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고 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어권문화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5.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을 따른다.
6. [편집요령]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에 따른다.
7. [심사기준]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항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을 적용한다.
8.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시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30만원, 전임 논문은 20만원, 비전임 논문은 10만원을 논문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소유] 논문을 포함하여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은 영어권문화연구소가 소유한다.
12. [규정의 개폐 및 수정] 본 규정의 개폐 및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폐 및 수정을 의결한다.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은 아래의 원고 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1.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된 논문은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괄호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쓰는 경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외국어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을 괄호 속에 병기한다. 운문의 경우에는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3. 각주는 연구비 관련 내용 및 재인용 사실을 밝히거나 본문 내용의 필수적인 부연 정보를 위해서 간략히 사용하고, 인용문헌의 명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미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실용논문의 경우 조사 및 실험 내용을 미주의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5. 컴퓨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우리말 논문은 45자×450행, 영문논문은 70자×500행 (출판지면 약 20쪽) 내외로 한다. 논문의 작성은 가능하면 <아래한글> 프로그램(hwp)으로 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및 크기 등은 기본양식으로 한다.
6. 직접, 간접 인용 부분의 마지막 구두점이 마침표의 경우에는 출처 표기 원칙을 적용 받아 (따옴표 다음의) 괄호에 이어서 표기한다.

7. 국내 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 중에 괄호를 이용하여 미국현대어문학회(MLA)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규정에 따라 저자와 쪽수를 명시하고,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밝힌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영문문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책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8.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함께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문헌을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열거한다.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직접, 간접 인용된 문헌만을 명시하고 참고(references)로만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기하지 않는다.
9. 기타 논문 작성법의 세부 사항은 미국현대어문학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최근판 규정을 따르며, 한글 논문의 경우에도 미국현대어문학회 『지침서』의 세부 사항을 응용하여 따른다.
10.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원고 제출시 필자의 신원은 ‘논문게재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한다.
11. 원고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3부의 인쇄본을 동시에 우송한다. 제출할 때, 다음의 기본사항을 명시한 표지를 붙이고, 원고(영문요약 포함)에는 일체 필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게재 확정 이후 출판 교정 시에 필요에 따라 인적 사항을 첨부한다.
 - 논문 제목 (한글 및 영문)

- 필자 이름 (한글 및 영문) 및 필자 정보
 -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을 때 명시
 - 필자 소속단체(학교)명(한글 및 영문)
 - 필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게재 희망호
12. 모든 논문의 말미에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시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말미에 2줄 띄고 “주제어”를 제목으로 한글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하고, 영문초록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논문과 영문요약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어로 명기한다.
13. 모든 논문 뒤에는 20행 내외의 영문요약을 붙인다.
14. 원고는 접수 순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심사하고 게재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5.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포함한 원고 필자에게 출판 최종 송고 이전에 논문 형식과 맞춤법에 대한 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받은 논문의 경우 최종 교정 및 편집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원고작성 세부 지침

1. 용지규격: A4

2. 용지여백: 위 쪽: 56.00 mm 머리말: 10.00 mm
 왼 쪽: 49.99 mm 오른쪽: 49.99 mm
 아래쪽: 60.00 mm 꼬리말: 0.00 mm

3. 아래의 사항은 편집 메뉴 중 “모양 → 스타일”을 이용하여 정하시오.

구 분	정렬 방식	행간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 쓰기	글자 크기	글자 장평	글자 간격	글자모양
논문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4pt	90%	0%	한글: HY신명조 영문: Times New Roman 한자: HY신명조
부-소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2pt			
필자명	오른쪽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0pt			
본문/바탕글	혼합	160%	0글자	0글자	2글자	10pt			
인용문	혼합	150%	2글자	0글자	2글자	9pt			
각주	혼합	130%	0글자	0글자	2글자	9pt			
머리말-홀수	오른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pt			
머리말-짝수	왼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pt			

* 2글자: 5칸 띄우기

* 인용문 들여쓰기: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쓰기

* 논문의 시작 쪽에서는 머리말 감추기를 하시오.

접수 제 호
(심사) 호

수정·보완 의뢰서

심사 위원 ()명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님의 논문을 『영어권문화연구』 제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래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교정을 거쳐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시 필수 기입 사항

1. 수정·보완 사항의 항목별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수정·보완이 완료된 논문과 수정·보완 의뢰서를 영어권문화연구소 이메일 계정(esc8530@dongguk.edu)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의 우편송부는 편집시 그림이나 도표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한합니다.

년 월 일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장

수정·보완 확인서

논문 제목		
수정 및 보완 사항	논문 형식	
	논문 내용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위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소 전임연구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적부 판단, 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4. 연구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10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심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피조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연구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구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금지
4.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연구소의 학술활동 참여 금지
5. 해당자의 회원자격 정지

제14조(후속조치)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연구소에 보존한다.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2023년 4월 30일 / 30 April 2023

16권 1호 / Vol.16 No.1

발행인 윤재웅

편집인 노현균

발행처 영어권문화연구소/Official Publication by

Institute for English Cultural Studies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620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계산관B 102호

Tel 02-2260-8530

<https://english-culture.dongguk.edu/>

E-mail: esc8530@dongguk.edu

인쇄처: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신관 105호, 106호

전화: (02) 2264-4714, 0142

팩스: (02) 2268-7851